

# 서울시 다자녀 지원정책 확장 관련 여론조사

정서적·심리적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2020년 10월

REALMETER



## |||||| 일 러 두 기 ||||||

1. 문항별 결과는 변수별로 백분율(%)을 산출하며, 결과 값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음. 이 과정에서 백분율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ing error)가 나타날 수 있음.  
(※반올림 오차란 실제 전체 합계는 100%이나 소수점 반올림 과정에서 합계가 100.0%가 아닌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으로, 실제로는 오류가 아님.)
2. 표본조사이므로 결과값의 해석 시 표본오차를 고려해야 함.
3. 집단별 표본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함.



# Contents

|                              |    |
|------------------------------|----|
| 제 1장. 조사 개요 .....            | 1  |
| 1. 조사의 목적 .....              | 3  |
| 2. 조사 방법론 .....              | 3  |
| 3. 조사 설계 .....               | 4  |
| 4. 조사 내용 .....               | 4  |
| 5. 응답자 특성 .....              | 7  |
| 제 2장. 조사 결과 요약 .....         | 9  |
| 1절. 전화면접조사 .....             | 11 |
| 1. 서울시정 평가 .....             | 11 |
| 2. 서울시민복지정책 .....            | 11 |
| 3. 중앙/서울 복지정책 구분 .....       | 12 |
| 4. 서울시 다자녀 지원정책 .....        | 12 |
| 5. 서울시 다자녀 지원 강화 필요성 .....   | 13 |
| 6. 심리지원 필요성 .....            | 13 |
| 7.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필요 경험 ..... | 14 |
| 8.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필요 내용 ..... | 14 |
| 9.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지출의향 .....  | 15 |
| 10. 자녀 양육 조력자 .....          | 15 |
| 2절. 표적접단면접(FGI) .....        | 16 |
| 1. 서울시 복지정책 평가 및 인식 .....    | 16 |
| 2. 다자녀 정책 관련 평가 및 인식 .....   | 16 |
| 3. 자녀수에 따른 스트레스 .....        | 16 |
| 4. 심리적, 정서적 지원 필요성 .....     | 17 |
| 5. 심리적, 정서적 지원에 대한 태도 .....  | 17 |
| 6. 기타 의견 .....               | 18 |
| 3절. 전문가심층인터뷰 .....           | 19 |
| 1. 심리상담가 .....               | 19 |
| 2. 심리상담프로그램 기획자 .....        | 20 |
| 3. 심리상담 학자 .....             | 21 |

# Contents

|                                  |    |
|----------------------------------|----|
| 제 3장. 전화면접조사                     | 23 |
| 1. 서울시정평가                        | 25 |
| 2. 서울시민복지정책                      | 27 |
| 3. 중앙/서울 복지정책 구분                 | 29 |
| 4. 서울시 다자녀 지원정책                  | 31 |
| 5. 서울시 다자녀 지원 강화 필요성             | 33 |
| 6. 심리지원 필요성                      | 35 |
| 7.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필요 경험           | 37 |
| 8.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필요 내용           | 39 |
| 9.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지출의향            | 41 |
| 10. 자녀 양육 조력자                    | 43 |
| 제 4장. 표적집단면접(FGI)                | 45 |
| 1절. 서울시 복지정책 평가 및 인식             | 47 |
| 1. 서울시 복지 관련 일반적 인식              | 47 |
| 2. 정부-지자체 간 복지정책 구분              | 49 |
| 2절. 다자녀 정책 관련 평가 및 인식            | 50 |
| 3. 다자녀 정책 관련 평가                  | 50 |
| 4. 다자녀 정책 강화 필요성                 | 52 |
| 3절. 자녀수에 따른 스트레스                 | 53 |
| 5. 가정 내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 53 |
| 6. 지지자 여부                        | 55 |
| 4절. 심리적, 정서적 지원 필요성              | 56 |
| 7. 심리적·정서적 스트레스 발생 성향            | 56 |
| 8. 심리적·정서적 스트레스의 영향력 및 해소 방안     | 58 |
| 5절. 심리적, 정서적 지원에 대한 태도           | 59 |
| 9. 심리적·정서적 지원 경험 및 참여 의사 및 관심 분야 | 59 |

# Contents

|                             |           |
|-----------------------------|-----------|
| 10. 지불의사 및 참여빈도 .....       | 59        |
| 11. 자유 의견 .....             | 62        |
| <b>제 5장. 전문가심층인터뷰 .....</b> | <b>63</b> |
| 1절. 심리상담가 .....             | 65        |
| 2절. 심리상담프로그램기획자 .....       | 79        |
| 3절. 심리상담학자 .....            | 89        |
| <b>제 6장. 결론 .....</b>       | <b>95</b> |
| <b>부록 .....</b>             | <b>99</b> |
| 부록1 : 전화면접조사 설문지 .....      | 101       |
| 부록2 : 표적집단면접 가이드 .....      | 106       |
| 부록3 : 표적집단면접 스크립트 .....     | 110       |
| 1. 다자녀 아버지 .....            | 110       |
| 2. 다자녀 어머니 .....            | 138       |

# Tables

|          |                      |    |
|----------|----------------------|----|
| 표 I-1    | 조사 설계                | 4  |
| 표 I-2    | 조사 내용 : 전화면접조사       | 4  |
| 표 I-3    | 조사 내용 : 표적집단면접(FGI)  | 5  |
| 표 I-4    | 조사 내용 : 전문가심층인터뷰     | 5  |
| 표 I-5    | 응답자 특성 : 전화면접조사      | 7  |
| 표 I-6    | 응답자 특성 : 표적집단면접(FGI) | 8  |
| 표 I-7    | 응답자 특성 : 전문가심층인터뷰    | 8  |
| 표 III-1  | 서울시정평가               | 26 |
| 표 III-2  | 서울시민복지정책             | 28 |
| 표 III-3  | 중앙/서울복지정책 구분         | 30 |
| 표 III-4  | 서울시 다자녀 지원정책         | 32 |
| 표 III-5  | 서울시 다자녀 지원 강화 필요성    | 34 |
| 표 III-6  | 심리지원 필요성             | 36 |
| 표 III-7  |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필요 경험  | 38 |
| 표 III-8  |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필요 내용  | 40 |
| 표 III-9  |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지출 의향  | 42 |
| 표 III-10 | 자녀 양육 조력자            | 44 |
| 표 V-1    | 다자녀가족 심리치료프로그램 예시    | 74 |



|           |                        |    |
|-----------|------------------------|----|
| 그림 II-1   | 서울시정 평가                | 11 |
| 그림 II-2   | 서울시민복지정책               | 11 |
| 그림 II-3   | 중앙/서울 복지정책 구분          | 12 |
| 그림 II-4   | 서울시 다자녀 지원정책           | 12 |
| 그림 II-5   | 서울시 다자녀 지원 강화 필요성      | 13 |
| 그림 II-6   | 심리지원 필요성               | 13 |
| 그림 II-7   |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필요 경험    | 14 |
| 그림 II-8   |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필요 내용    | 14 |
| 그림 II-9   |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지출의향     | 15 |
| 그림 II-10  | 자녀 양육 조력자              | 15 |
| 그림 II-11  | 다자녀 정책 강화 필요성          | 16 |
| 그림 II-12  | 자녀양육 스트레스              | 17 |
| 그림 II-13  | 정서적,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참가 희망 | 17 |
| 그림 III-1  | 서울시정평가                 | 25 |
| 그림 III-2  | 서울시민복지정책               | 27 |
| 그림 III-3  | 중앙/서울 복지정책 구분          | 29 |
| 그림 III-4  | 서울시 다자녀 지원정책           | 31 |
| 그림 III-5  | 서울시 다자녀 지원 강화 필요성      | 33 |
| 그림 III-6  | 심리지원 필요성               | 35 |
| 그림 III-7  |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필요 경험    | 37 |
| 그림 III-8  |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필요 내용    | 39 |
| 그림 III-9  |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지출 의향    | 41 |
| 그림 III-10 | 자녀 양육 조력자              | 43 |
| 그림 IV-1   | 다자녀 정책 강화 필요성          | 52 |
| 그림 IV-2   | 자녀양육 스트레스              | 53 |
| 그림 IV-3   | 정서적,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참가 희망 | 59 |





# 서울시 다자녀 지원정책 확장 관련 여론조사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제3장. 전화면접조사

제4장. 표적집단면접

제5장. 전문가심층인터뷰

제6장. 결론

부록



## 1. 조사의 목적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은 0.76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를 위해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의 대부분은 ‘생활요금감면’ 종류의 경제적 지원에 편중됨

이에 도시화, 다양화, 다변화의 특징을 지닌 서울시의 특징상 획일적 비용지원 정책보다 경제적 지원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서적’, ‘심리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요구됨.

따라서 ‘정서적’, ‘심리적’ 지원정책 등을 포함한 다자녀 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 조사를 수행함.

## 2. 조사 방법론

유의미하고 활용도 높은 조사결과 도출을 위하여 전화면접, 표적집단면접(FGI) 및 전문가심층인터뷰 방식을 혼용하여 조사를 수행함.

서울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정량적 조사를 통해 다자녀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인식에 대해서 확인함. 정량조사는 서울시민의 집합적인 의견 및 필요성을 수치화 할 수 있지만, 인식이나 만족도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서울시 거주 다자녀 부모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해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와 정책 도입 시 바라는 점 등 시민의 구체적인 의견이 표출될 수 있도록 고려함.

마지막으로 정서적·심리적 지원방안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현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재 시행되는 유사한 프로그램의 구체화 과정을 거친 후, 나아가 실제 정책 실행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요소들까지 확인함.

### 3. 조사 설계

표 1-1 | 조사 설계

| 구분    | 전화면접조사                   | 표적집단면접(FGI)           | 전문가심층인터뷰                    |
|-------|--------------------------|-----------------------|-----------------------------|
| 조사대상  | 서울시민                     | 2 그룹                  | 현직전문가 및 교수                  |
| 응답자 수 | 700명                     | 남성6명, 여성6명            | 3명                          |
| 응답률   | 15.7%                    | -                     | -                           |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br>± 3.70%포인트 | -                     | -                           |
| 조사방법  | CATI시스템 활용<br>전화면접조사     | Focus Group Interview | 심층인터뷰 및<br>내용 보강을 위한 서면 인터뷰 |
| 설문유형  | 구조화된 설문지                 | 반(半)구조화된 설문지          | 반(半)구조화된 설문지                |
| 조사기간  | 9월 21일~10월 5일            | 10월 9일, 16일           | 9월 1일~10월 16일               |

### 4. 조사 내용

#### 가. 전화면접조사

표 1-2 | 조사 내용 : 전화면접조사

| 구분                           | 내용  |
|------------------------------|---|
| 선별문항<br>(Screening Ques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기초 지자체</li> <li>◆ 연령</li> <li>◆ 성별</li> <li>◆ 미성년 자녀 양육 여부</li> <li>◆ 미성년 자녀 명수</li> </ul>   |
| 본문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정평가</li> <li>◆ 서울시민복지정책</li> <li>◆ 중앙/서울 복지정책 구분</li> <li>◆ 서울시 다자녀 지원정책</li> <li>◆ 서울시 다자녀 지원 강화 필요성</li> <li>◆ 심리지원 필요성</li> <li>◆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필요 경험</li> <li>◆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필요 내용</li> <li>◆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지출의향</li> <li>◆ 자녀 양육 조력자</li> </ul> |

| 구분                             | 내용   |
|--------------------------------|--|
| 분석문항<br>(Demographic Ques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li> <li>◆ 주택점유형태</li> <li>◆ 가구내 월평균 소득</li> </ul> |

나. 표적집단면접(FGI)

표 1-3 | 조사 내용 : 표적집단면접(FGI)

| 구분                 | 내용  |
|--------------------|---|
| 서울시 복지정책 평가 및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복지 관련 일반적 인식</li> <li>◆ 정부-지자체 간 복지정책 구분</li> </ul>            |
| 다자녀 정책 관련 평가 및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 정책 관련 평가</li> <li>◆ 다자녀 정책 강화 필요성</li> </ul>                   |
| 자녀수에 따른 스트레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 내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li> <li>◆ 지지자 여부</li> </ul>                  |
| 심리적, 정서적 지원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적·정서적 스트레스 발생 성향</li> <li>◆ 심리적·정서적 스트레스의 영향력 및 해소 방안</li> </ul> |
| 심리적, 정서적 지원에 대한 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적·정서적 지원 경험 및 참여 의사 및 관심 분야</li> <li>◆ 지불 의사 및 참여빈도</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 의견</li> </ul>   |

다. 전문가심층인터뷰

표 1-4 | 조사 내용 : 전문가심층인터뷰

| 대상    | 내용  |
|-------|---|
| 상담전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처 및 현재 활동 내용</li> <li>◆ 진행 중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및 실사례</li> <li>◆ 다자녀 가정의 주(主)호소 문제</li> <li>◆ 다자녀 가정의 정서적·심리적 취약지점</li> <li>◆ 다자녀 가정의 정서적·심리적 지원의 필요성</li> <li>◆ 기타요인(경제적 요인 등)의 영향</li> <li>◆ 다자녀 가정의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실사례</li> </ul> |

| 대상        | 내용   |
|-----------|--|
| 프로그램기획전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처 및 현재 활동 내용</li> <li>◆ 진행 중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및 실사례</li> <li>◆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실사례</li> <li>◆ 다자녀 가정의 정서적·심리적 프로그램 접근에 대한 방해 요인</li> <li>◆ 정부나 지자체의 정서적·심리적 지원 정책 사례</li> <li>◆ 다자녀 가정의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실사례</li> <li>◆ 다자녀 가정의 정서적·심리적 지원 정책마련을 위한 제언</li> <li>◆ 다자녀 가정의 정서적·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제안</li> </ul> |
| 심리상담 학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분야 및 경력</li> <li>◆ 정량조사 결과 논평</li> <li>◆ 다자녀 가정의 정서적·심리적 취약지점</li> <li>◆ 다자녀 가정의 정서적·심리적 취약지점 해소방안</li> </ul>   |



## 5. 응답자 특성

## 가. 전화면접조사

표 1-5 | 응답자 특성 : 전화면접조사

| 구분      |       | 응답자 수  |       |
|---------|-------|--------|-------|
|         |       | 사례수(명) | 비율(%) |
| 전 체     |       | 700    | 100.0 |
| 미성년 자녀수 | 없음    | 450    | 64.3  |
|         | 1명    | 75     | 10.7  |
|         | 2명    | 145    | 20.7  |
|         | 3명    | 30     | 4.3   |
| 다자녀 여부  | 非다자녀  | 525    | 75.0  |
|         | 다자녀   | 175    | 25.0  |
| 연령대     | 30대   | 100    | 14.3  |
|         | 40대   | 200    | 28.6  |
|         | 50대   | 200    | 28.6  |
|         | 60대이상 | 200    | 28.6  |
| 성       | 남성    | 337    | 48.1  |
|         | 여성    | 363    | 51.9  |
| 거주권역*   | 도심권   | 63     | 9.0   |
|         | 동북권   | 190    | 27.1  |
|         | 서북권   | 128    | 18.3  |
|         | 서남권   | 188    | 26.9  |
|         | 동남권   | 131    | 18.7  |

\* 거주권역

1. 도심권 : 용산구, 종로구, 중구
2. 동북권 :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3. 서북권 :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4. 서남권 :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5. 동남권 :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나. 표적집단면접(FGI)

표 1-6 | 응답자 특성 : 표적집단면접(FGI)

| 그룹 | 성명   | 거주지  | 연령대 | 미성년 자녀수 |
|----|------|------|-----|---------|
| 남성 | 이□□  | 서대문구 | 40대 | 3       |
|    | 김 ■  | 종로구  | 40대 | 2       |
|    | 공○○  | 강북구  | 40대 | 3       |
|    | 최◆◆  | 서초구  | 40대 | 2       |
|    | 김◎◎  | 은평구  | 30대 | 2       |
|    | 고▲▲  | 송파구  | 50대 | 3       |
| 여성 | 이○○  | 송파구  | 40대 | 2       |
|    | 강■ ■ | 종로구  | 40대 | 2       |
|    | 조☆☆  | 강남구  | 30대 | 2       |
|    | 김●●  | 서대문구 | 40대 | 2       |
|    | 서□□  | 성북구  | 40대 | 3       |
|    | 송♣♣  | 송파구  | 50대 | 4       |

다. 전문가심층인터뷰

표 1-7 | 응답자 특성 : 전문가심층인터뷰

| 구분      | 성명    | 전공/학력                                   | 소속        |
|---------|-------|---|-----------|
| 심리상담가   | 송 영 숙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치료교육대학원 석사                    | 굿네이버스     |
| 프로그램기획자 | 최 현 영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
| 심리상담 학자 | 조 성 봉 | Florida State Univ. 결혼 및 가족치료 박사(Ph.D.) | 한동대학교     |



# 서울시 다자녀 지원정책 확장 관련 여론조사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제3장. 전화면접조사

제4장. 표적집단면접

제5장. 전문가심층인터뷰

제6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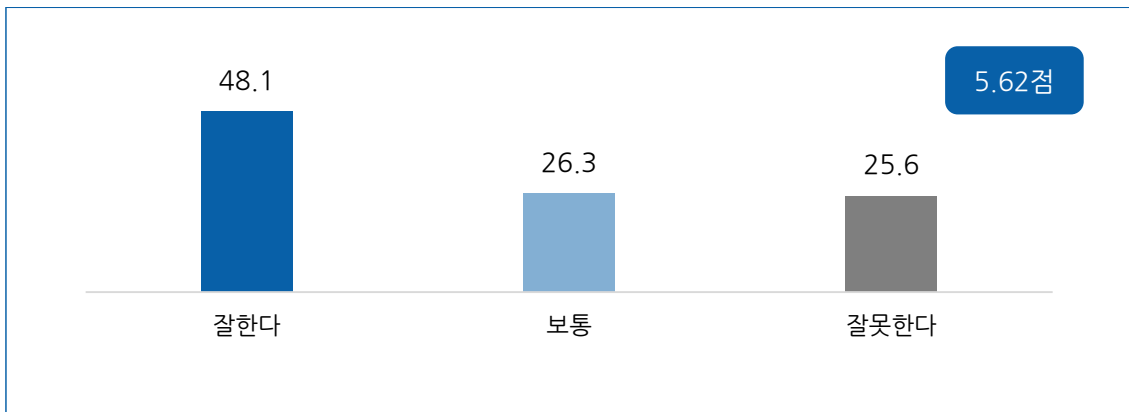


## 1절. 전화면접조사

### 1. 서울시정 평가

응답자 중 48.1%는 서울시가 전반적인 시정운영을 '잘한다'고 응답했음. '잘못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5.6%로 집계되었으며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26.3%였음. 잘함의 정도를 10점 평점으로 산출했을 때 5.62점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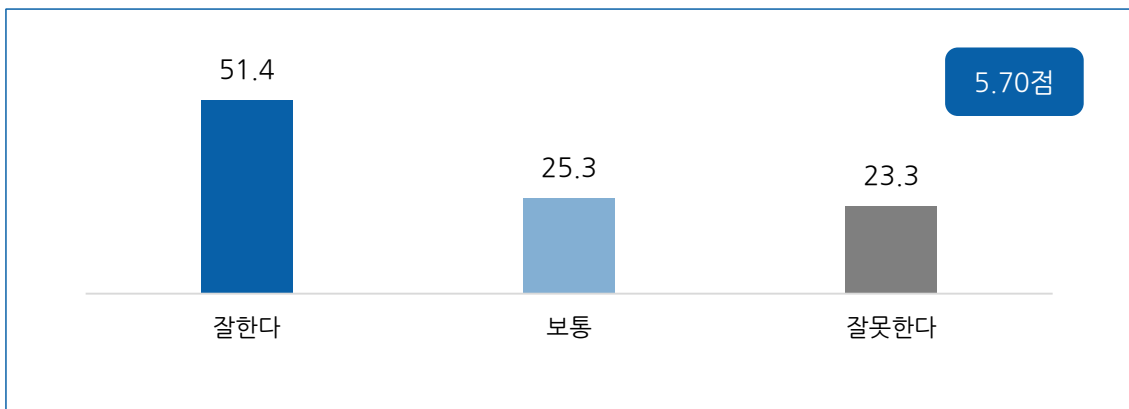
그림 II-1 | 서울시정 평가



### 2. 서울시민복지정책

응답자 중 절반(51.4%)이 서울시가 시민 복지관련 정책을 '잘한다'고 응답했음. '잘못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3.3%로 집계되었으며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25.3%였음. 잘함의 정도를 10점 평점으로 산출했을 때 5.70점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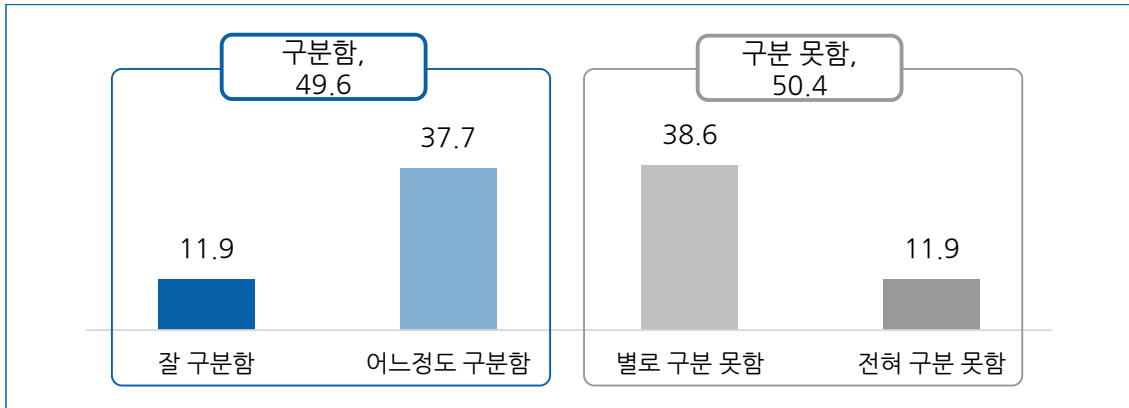
그림 II-2 | 서울시민복지정책



### 3. 중앙/서울 복지정책 구분

서울시민 절반(50.4%)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구분 못한다'고 응답했음. '별로 구분 못한다'는 응답은 38.6%, '전혀 구분 못한다'라는 응답은 11.9%였음. '구분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9.6%였는데 '어느정도 구분한다'는 비율이 37.7%였으며 '잘 구분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1.9%로 집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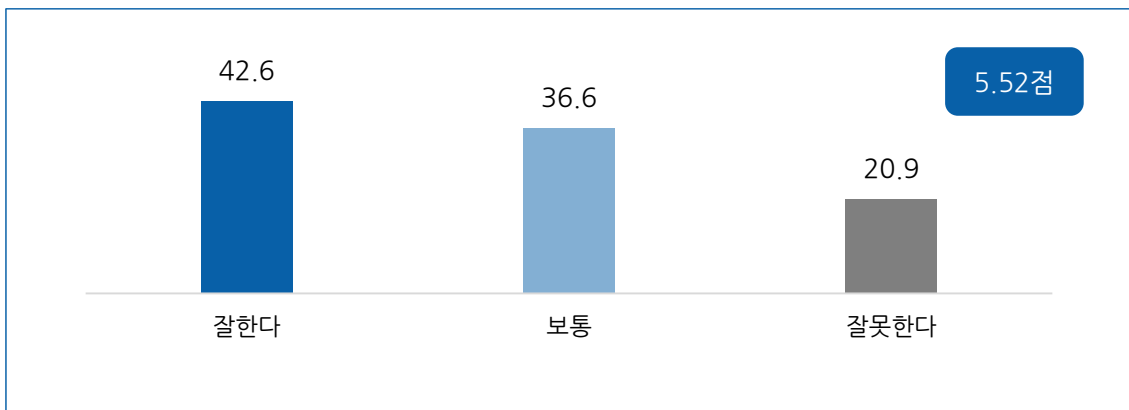
그림 II-3 | 중앙/서울 복지정책 구분



### 4. 서울시 다자녀 지원정책

응답자 중 42.6%가 서울시가 다자녀 지원정책을 '잘한다'고 응답했음. '잘못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9%로 집계되었으며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36.6%였음. 잘함의 정도를 10점 평점으로 산출했을 때 5.52점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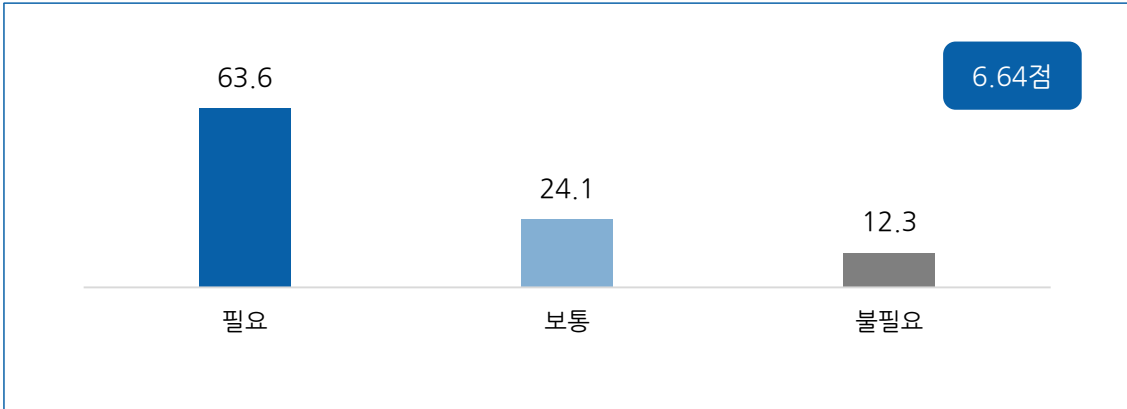
그림 II-4 | 서울시 다자녀 지원정책



## 5. 서울시 다자녀 지원 강화 필요성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63.6%)이 서울시의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한 강화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2.3%에 불과했으며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24.1%였음. 필요성의 정도를 10점 평점으로 산출했을 때 6.64점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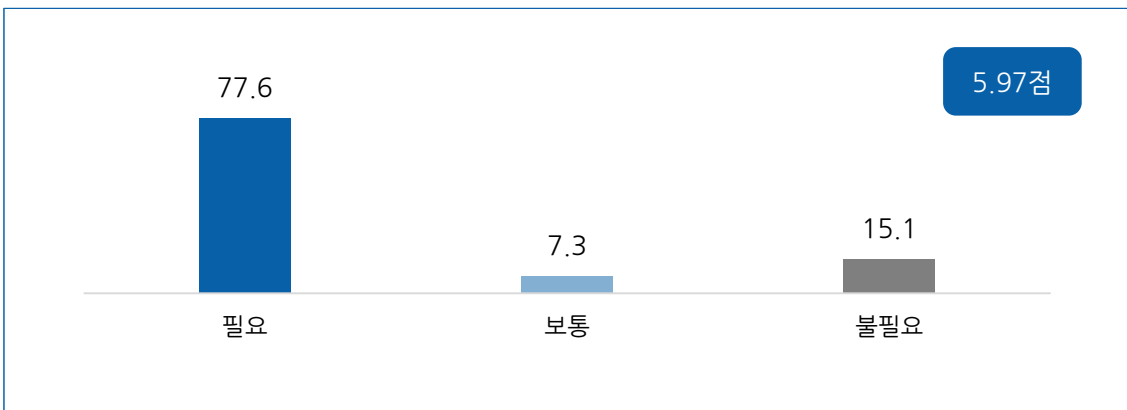
그림 II-5 | 서울시 다자녀 지원 강화 필요성



## 6. 심리지원 필요성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77.6%)이 가족관계 문제로 인한 심리 상담이나 스트레스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불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5.1%에 불과했으며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7.3%였음. 필요성의 정도를 10점 평점으로 산출했을 때 5.97점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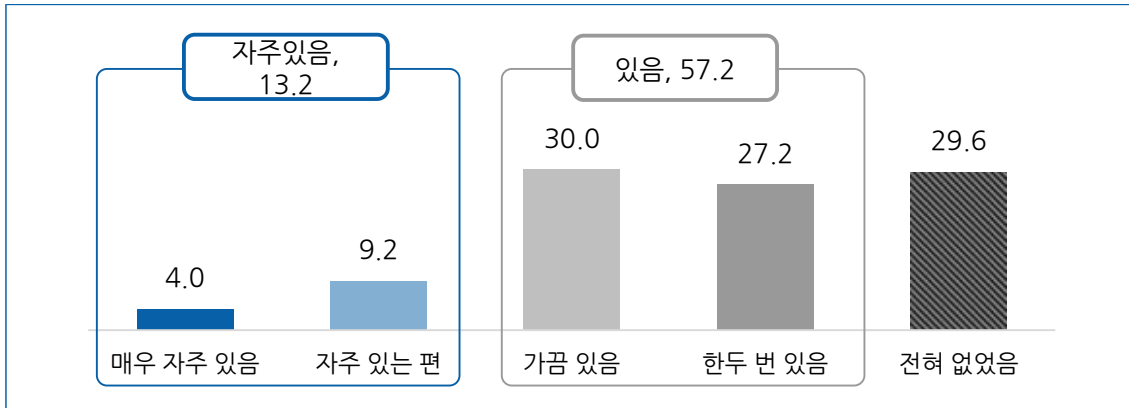
그림 II-6 | 심리지원 필요성



## 7.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필요 경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 250명 중 자녀 양육 과정에서 심리적·정서적 만족감이나 안정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57.2%로 조사되었으며 '가끔 있다'는 응답이 30.0%, '한 두 번 있다'라는 응답은 27.2%였음. '자주 있다'는 응답은 13.2%(자주 있는 편이다 9.2%, 매우 자주 있다 4.0%)로 나타났으며, '전혀 없다'는 응답자는 29.6%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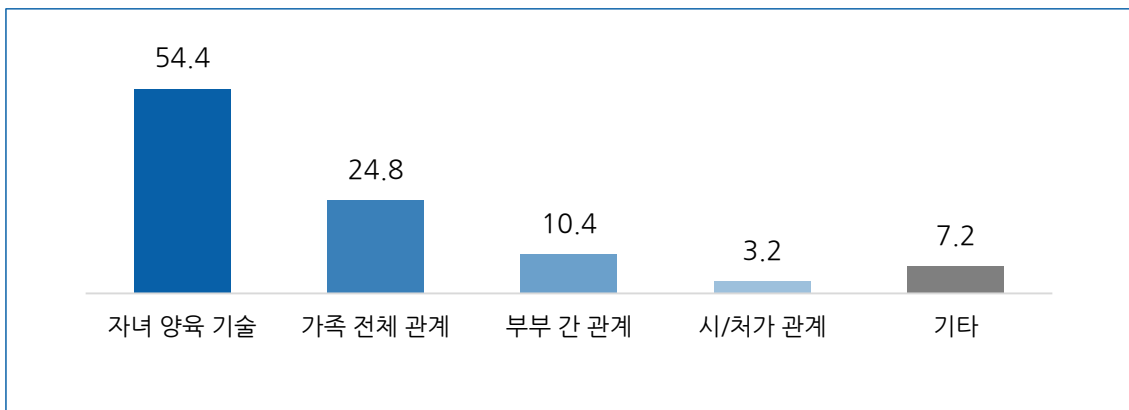
그림 II-7 |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필요 경험



## 8.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필요 내용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 250명 중 절반(54.4%)이 자녀 양육에 관해 상담이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자녀 양육 기술'이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가족 전체의 관계' 24.8%, '부부 사이의 관계' 10.4%, '시댁 혹은 처가와와의 관계' 3.2%의 순서로 조사되었고 '기타'는 7.2%였음.

그림 II-8 |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필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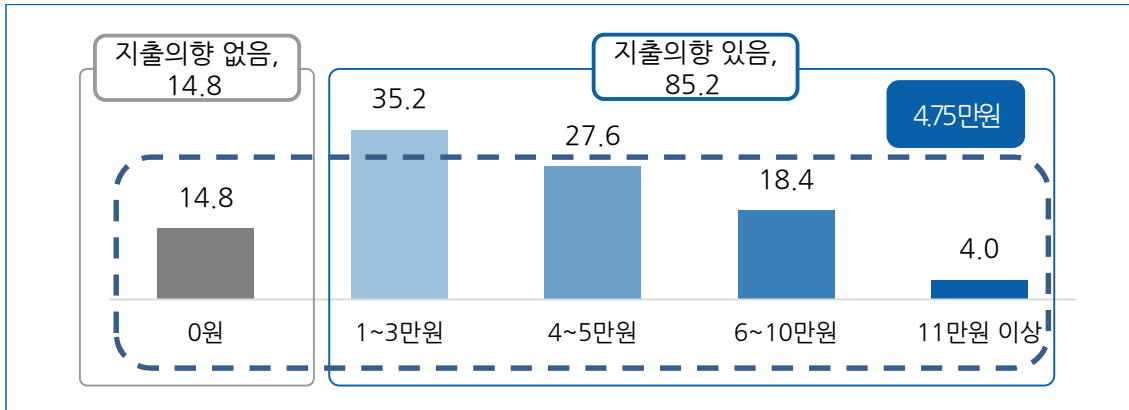




### 9.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지출의향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 250명 중 85.2%가 자녀 양육 과정에서 심리적 정서적 만족감이나 안정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지출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음. '1~3만원' 35.2%, '4~5만원' 27.6%, '6~10만원' 18.4%, '11만원 이상'은 4.0%였음. '지출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4.8%였음. 이에 대한 평균 지출의향은 4.75만원으로 집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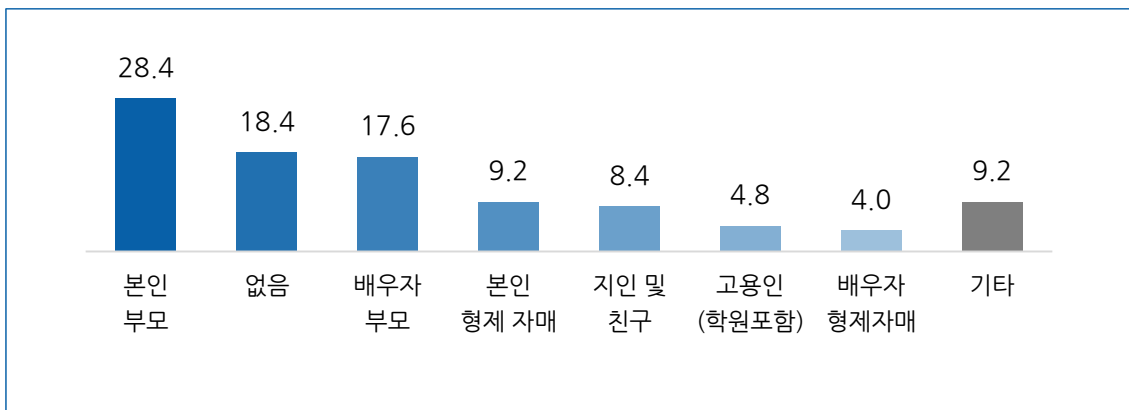
그림 II-9 |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지출의향



### 10. 자녀 양육 조력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 250명 중 자녀 양육 조력자를 물어본 결과 '나의 부모님'이 2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없다' 18.4%, '배우자 부모님' 17.6%, '나의 형제자매' 9.2%, '지인 및 친구' 8.4%, '고용인(학원포함)' 4.8%, '배우자 형제자매' 4.0%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기타'는 9.2%였음.

그림 II-10 | 자녀 양육 조력자



## 2절. 표직접단면접(F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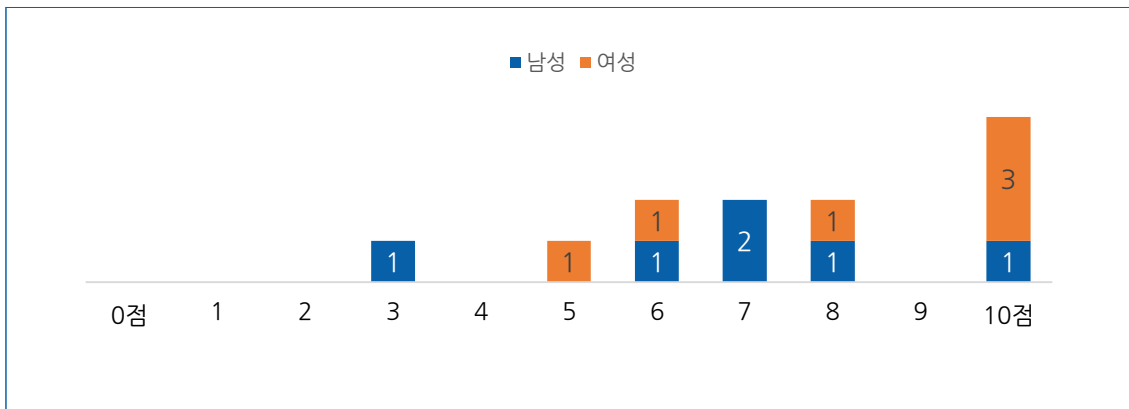
### 1. 서울시 복지정책 평가 및 인식

- 서울시정 평가는 상대적으로는 개선되었으나, 절대적인 관점에서는 만족하지 않는 양면적 태도를 보임
-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복지정책 구분을 못 하였으며, 홍보나 안내 부족으로 원인을 돌림.
- ‘따릉이’나 ‘다둥이’ 카드와 같이 실생활에 밀접한 것 외에는 시행 주체에 관한 관심은 미비

### 2. 다자녀 정책 관련 평가 및 인식

- 다자녀 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참여자 거의 없었음
- 거주(주택)와 교육 관련 요구가 가장 컸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
- 다자녀 정책 강화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했으나, 보편적 복지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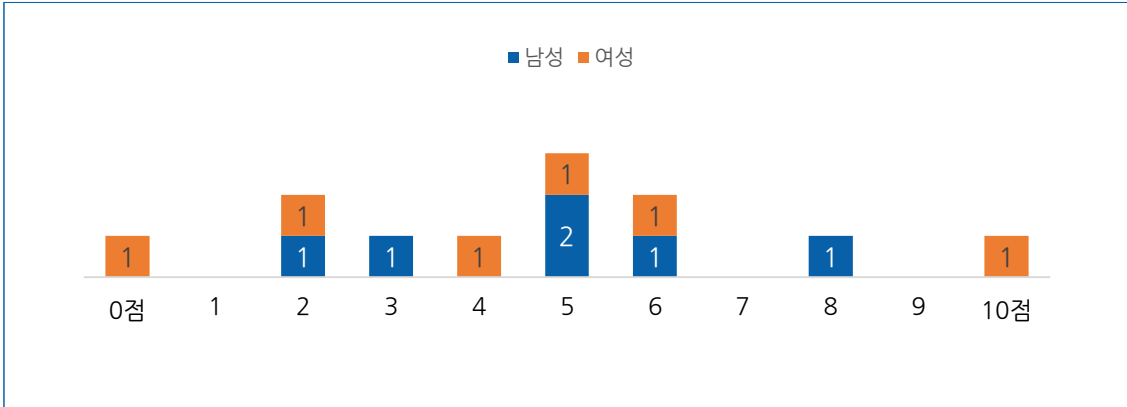
그림 II-11 | 다자녀 정책 강화 필요성



### 3. 자녀수에 따른 스트레스

- 가정 내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높다 혹은 낮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평가가 곤란
- 스트레스를 받는 대상이나 해소방식, 삶에 대한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일관된 의미를 찾기 곤란함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전업주부 어머니가 자녀는 키우는 경우 많아 독립적으로 육아 및 가사를 꾸려가려는 의지가 강함.

그림 II-12 | 자녀양육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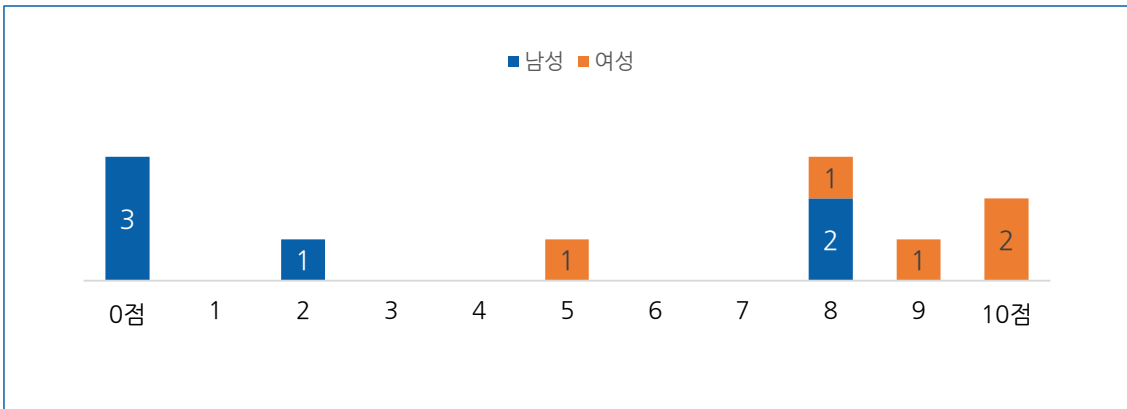
#### 4. 심리적, 정서적 지원 필요성

- 가족 내부의 관계서 발생하는 문제가 심리·정서적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을 차지
- 심리적·정서적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해 자녀와 격리된 상황에서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하는 공통점을 일부에서 보임

#### 5. 심리적, 정서적 지원에 대한 태도

- 여성의 경우 심리적인 지원에 대해 긍정적이나, 남성의 경우 호·불호가 엇갈림
- 남녀를 막론하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경험한 경우 참여 의지가 높게 나타났음
- 부부나 가족 전체의 관계성의 문제보다는,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관한 도움을 얻고자 하는 요구가 드러남

그림 II-13 | 정서적,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참가 희망



## 6. 기타 의견

- 현재의 지원정책으로는 다자녀 문제 해결하는데 부족함
- 대학생 멘토제도, 생활체육, 교육비 등 자녀 교육 관련 의견 다수 제시
- 자녀 키우기 안전한 환경, 학대방지 관련 의견
- 탄력적 근무제를 제도화 함으로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의 의견이 제시됨

### 3절. 전문가심층인터뷰

#### 1. 심리상담가

상담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보아야 함. 심리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내담자의 중 아동의 경우는 자존감이 낮아 사회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진단을 받은 경우가 많음.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춘기로 인한 감정 기복과 가정에서 부모와의 갈등 및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성인의 경우는 주로 다자녀 부모님은 양육 스트레스를 주문제로 호소함. 그런 이런 문제는 가족이라는 ‘체계’ 안에서 연결되어있는 문제임.

다자녀 가정에서는 주로 어머니들의 과기능이 문제가 되어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남편의 경우 아내와의 소통 부재와 사회생활에서 소진한 에너지를 집에서 충전하지 못해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음. 가정 내 의사소통의 문제로 자녀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아동이 폭력적 성향을 표출하게 만드는 원인 됨. 폭력적 성향을 띠는 아동은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정서적·심리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하기 위해서는 ‘관계에 대한 욕구 해결’에 초점을 맞춘 가족 상담, 부정적 영향력의 ‘대물림 차단’, ‘부부관계 회복’, ‘의사소통 훈련’ 등을 포함한 가족 전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함

경제적 문제의 비중이 크기는 하나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음. 경제적인 요소가 가정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내면을 지니고 있어야 함.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담 기법으로 ‘단기해결중심 가족상담’, ‘사티어의 경험주의 가족상담’, ‘다세대 가족상담’ 및 ‘상담과정에서 매체를 활용’하는 기법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 평가하였음.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부부’이며 가정의 기능과 가족 전체 구성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부부관계’이며 다자녀 가정의 복합적 문제해결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음.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데, 직업 등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이 생기길 바랐으며, 교육비 또한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하였음.

## 2. 심리상담프로그램 기획자

일반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도입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내담자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음. 다자녀는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이러한 도입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비단 다자녀 가정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취약한 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여러 가지 진입장벽에 존재함. 다자녀 가정의 어머니는 양육 부담으로 외출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바이럴 홍보의 효과가 큰데 이런 종류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짐. 혹은 ‘자녀돌봄 자체의 어려움’, ‘주변인(가족)의 참여 방해’, ‘프로그램의 시간과 장소’ 및 ‘참여자 간 갈등’ 등도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금전적인 유인도 중요한 변수이긴 하나 유·무료가 관건이며 저소득 가정이 아니더라도 유료참여를 꺼림.

정부나 지자체의 심리상담 비용지원은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집단활동은 제한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짐.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참가자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다자녀 가정의 진입이 어려울 수 있음.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참여 의지가 높은 편임.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어가는 경우는 큰 갈등이 없는 한 프로그램의 참여 의지가 높지는 않음.

만약 정부가 바우처 제도 등을 활용해 다자녀 가정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오·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심리검사 등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함. 다자녀가 아닌 경우도 동일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이 있는데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 따라서 다자녀라는 한가지 기준만으로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은 지양하고 복합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봄.

다자녀 가정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양육의 어려움에 관한 요소뿐 아니라, 자녀의 학교 적응, 가족 간 갈등 해소에 관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 더불어, 전술한 바와 같이 대상자 모집 후 개별 면담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과 더불어 맞벌이 가정에 대한 탄력근무의 제도적 보장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양육자와 자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뒷받침해야 할 것.

### 3. 심리상담 학자

이 조사에 포함된 정량조사 결과를 통해 '심리정서적 지원에 대한 필요가 다자녀 부모들에게 상당히 실적 이슈임을 확인하였음. 다자녀 부모들이 전문가로부터의 심리정서적 지지, 코칭/교육이 제공된다면 상당수 부모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함. 이러한 조력에 대한 필요는 경력에 따라서 차이를 보임.

심리정서적 전문조력이 가장 필요한 영역은 '자녀양육 기술'에 관한 것임. 이는 다자녀 부모들이 자녀양육으로 고충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며 습득한 경험과 기술이 있더라도 '다자녀'를 양육함으로 경험하는 부가적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현실적으로 출산은 부부의 상당한 수고와 희생을 요구함. 아이가 성장하는 기간까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여러 방면에서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사실임. 무엇보다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큼.

일반적으로 가구당 출산 자녀의 수는 그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비례하지 않음. 많은 어머니가 장기간의 양육으로 상당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호소하는데, 하루 대부분 시간을 자녀를 돌보고 가사를 책임지기 때문에 상당한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겪음.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정적 경험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에 다양한 모습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침.

이러한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간 차이가 있으나 물질적 지원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하지만 현재까지 이런 정책들이 양육경험이나 출산장려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체감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은 기존 정책과 차이를 보이면서도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음. 이 시도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첫째, 양육문제 등에 관한 상담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춤. 둘째, 의지가 있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단, 심리상담 프로그램/서비스 제공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양질의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 실제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는 과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함.







# 서울시 다자녀 지원정책 확장 관련 여론조사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제3장. 전화면접조사**

제4장. 표적집단면접

제5장. 전문가심층인터뷰

제6장. 결론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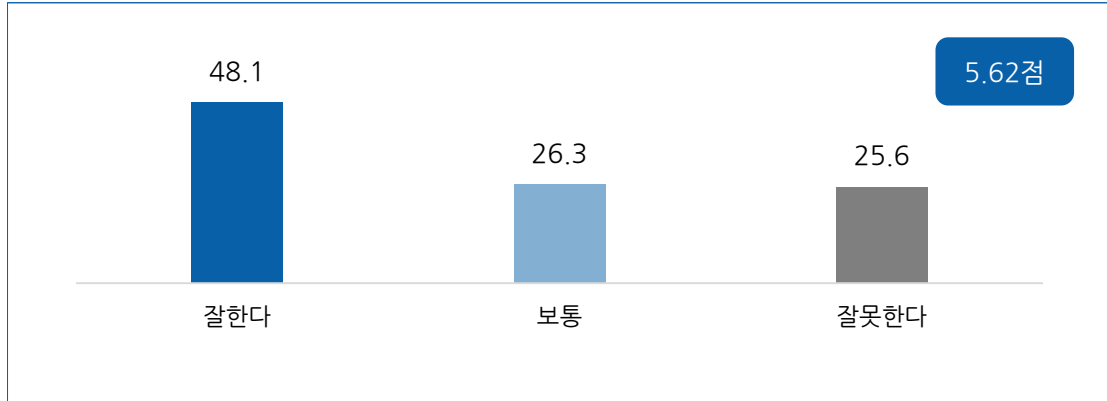
## 1. 서울시정평가

Q

귀하께서 평소 서울시가 전반적인 시정운영을 얼마나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로 말씀 주십시오.

그림 III-1 | 서울시정평가

[N: 700, 단위: %, 점]



■ 서울시가 시정운영을 '잘한다'는 응답 48.1%, 10점 평균점수 5.62점

- 응답자 중 48.1%는 서울시가 전반적인 시정운영을 '잘한다'고 응답했음. '잘못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5.6%로 집계되었으며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26.3%였음. 질함의 정도를 10점 평점으로 산출했을 때 5.62점으로 조사되었음.
- 응답자의 다자녀 부모 여부에 따라서는 다자녀 부모 중 57.1%가 시정운영을 '잘한다'고 답했으며, nond자녀 부모 중에서는 45.1%가 '잘한다'고 답해 차이를 보였음.
- 응답자의 미성년 자녀 여부에 따라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에서 '잘한다'는 응답이 56.0%로 미성년 자녀가 없는 응답자(43.8%)보다 다소 높게 조사되었음.
- 응답자의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서는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시정운영을 '잘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1)미성년 자녀가 3명인 응답자의 63.3%가 '잘한다'고 답했으나 미성년 자녀가 없는 응답자에서는 43.8%로 유일하게 절반에 미치지 못함.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49.3%), 여성(47.1%)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연령대에 따라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시정운영을 '잘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져 30대 응답자의 60.0%가 '잘한다'고 답했으나 60대 이상은 29.5%에 불과하였음.
- 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500만원 미만 응답자에서 '잘한다'는 응답 비율이 56.4%로 가장 높았고, 500만원 이상 53.5%, 300만원 미만 40.0%의 순이었음.

1) 집단별 표본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함.

표 III-1 | 서울시정평가

[단위: %, 점]

| 구 분            |            | 사례수   | 잘못한다  | 보통   | 잘한다   | 10점평점 |      |
|----------------|------------|-------|-------|------|-------|-------|------|
| 전체             |            | (700) | 25.6  | 26.3 | 48.1  | 5.62  |      |
| 미성년<br>자녀여부    | 없음         | (450) | 28.0  | 28.2 | 43.8  | 5.48  |      |
|                | 1명         | (75)  | 22.7  | 24.0 | 53.3  | 5.99  |      |
|                | 2명         | (145) | 20.7  | 23.4 | 55.9  | 5.74  |      |
|                | 3명         | (30)  | 20.0  | 16.7 | 63.3  | 6.30  |      |
| 다자녀<br>여부      | 非다자녀       | (525) | 27.2  | 27.6 | 45.1  | 5.55  |      |
|                | 다자녀        | (175) | 20.6  | 22.3 | 57.1  | 5.83  |      |
|                | 부모<br>직업   | 없음    | (55)  | 18.2 | 20.0  | 61.8  | 6.00 |
|                |            | 있음    | (120) | 21.7 | 23.3  | 55.0  | 5.76 |
| 미성년<br>자녀여부    | 있음         | (250) | 21.2  | 22.8 | 56.0  | 5.88  |      |
|                | 없음         | (450) | 28.0  | 28.2 | 43.8  | 5.48  |      |
| 연령대            | 30대        | (100) | 16.0  | 24.0 | 60.0  | 6.20  |      |
|                | 40대        | (200) | 19.0  | 22.0 | 59.0  | 5.98  |      |
|                | 50대        | (200) | 23.0  | 27.0 | 50.0  | 5.85  |      |
|                | 60대이상      | (200) | 39.5  | 31.0 | 29.5  | 4.76  |      |
| 성별             | 남성         | (337) | 25.8  | 24.9 | 49.3  | 5.70  |      |
|                | 여성         | (363) | 25.3  | 27.5 | 47.1  | 5.55  |      |
| 거주<br>권역       | 도심권        | (63)  | 31.7  | 20.6 | 47.6  | 5.37  |      |
|                | 동북권        | (190) | 21.1  | 31.6 | 47.4  | 5.73  |      |
|                | 서북권        | (128) | 16.4  | 25.8 | 57.8  | 6.30  |      |
|                | 서남권        | (188) | 28.7  | 22.9 | 48.4  | 5.49  |      |
|                | 동남권        | (131) | 33.6  | 26.7 | 39.7  | 5.14  |      |
| 주택<br>점유<br>형태 | 자가         | (479) | 26.9  | 26.7 | 46.3  | 5.52  |      |
|                | 전세         | (148) | 23.0  | 23.6 | 53.4  | 5.89  |      |
|                | 월세         | (54)  | 24.1  | 31.5 | 44.4  | 5.67  |      |
|                | 무상거주 및 기타  | (19)  | 15.8  | 21.1 | 63.2  | 6.16  |      |
| 평균<br>가구<br>소득 | 300만원 미만   | (235) | 28.1  | 31.9 | 40.0  | 5.34  |      |
|                | 500만원 미만   | (202) | 19.8  | 23.8 | 56.4  | 6.08  |      |
|                | 500만원 이상   | (215) | 24.2  | 22.3 | 53.5  | 5.79  |      |
|                | 거절 및 무응답   | (48)  | 43.8  | 27.1 | 29.2  | 4.40  |      |
| 직업             | 자영업/개인사업   | (227) | 20.7  | 27.8 | 51.5  | 5.96  |      |
|                | 판매/영업/서비스직 | (41)  | 19.5  | 29.3 | 51.2  | 5.83  |      |
|                | 생산/기능/노무직  | (20)  | 30.0  | 30.0 | 40.0  | 5.00  |      |
|                | 사무/관리/전문직  | (152) | 22.4  | 19.1 | 58.6  | 6.05  |      |
|                | 전업주부       | (181) | 31.5  | 26.0 | 42.5  | 5.13  |      |
|                | 학생         | (2)   | 0.0   | 0.0  | 100.0 | 8.50  |      |
|                | 은퇴 및 무직    | (64)  | 35.9  | 39.1 | 25.0  | 4.83  |      |
|                | 기타         | (13)  | 30.8  | 15.4 | 53.8  | 5.4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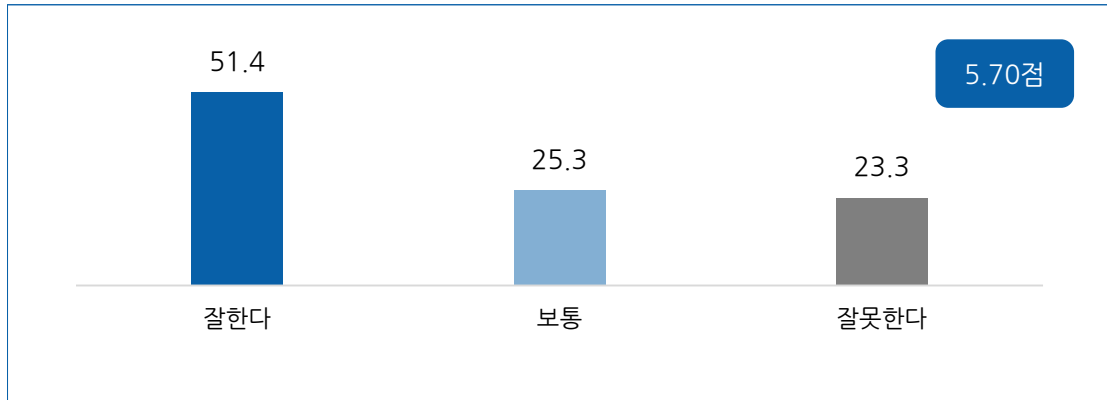
## 2. 서울시민복지정책

Q

그렇다면, 서울시가 전반적인 ‘시민 복지관련 정책’은 얼마나 잘 수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로 말씀 주십시오.

그림 Ⅲ-2 | 서울시민복지정책

[N: 700, 단위: %, 점]



■ 시민 복지관련 정책을 ‘잘한다’는 응답 51.4%, 10점 평균점수 5.70점

- 응답자 중 절반(51.4%)이 서울시가 시민 복지관련 정책을 ‘잘한다’고 응답했음. ‘잘못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3.3%로 집계되었으며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25.3%였음. 잘함의 정도를 10점 평점으로 산출했을 때 5.70점으로 조사되었음.
- 응답자의 다자녀 부모 여부에 따라서는 다자녀 부모 중 59.4%가 시민 복지관련 정책을 ‘잘한다’고 답했으며, 非다자녀 부모 중에서는 48.8%가 ‘잘한다’고 답해 차이를 보였음.
- 응답자의 미성년 자녀 여부에 따라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에서 ‘잘한다’는 응답이 59.2%로 전체 대비 높게 나타났으나 미성년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47.1%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응답자의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서는 미성년 자녀가 3명인 응답자 중에서 ‘잘한다’는 응답 비율이 6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명 58.7%, 2명 58.6%의 순이었음. 미성년 자녀가 없는 응답자 중에서는 ‘잘한다’는 응답 비율이 47.1%로 유일하게 절반에 미치지 못함.
- 성별에 따라서는 전체응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연령대에 따라서는 40대 응답자 중에서 ‘잘한다’는 응답 비율이 61.5%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에서 37.0%로 가장 낮았음.
- 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500만원 이상 응답자에서 ‘잘한다’는 응답 비율이 56.7%로 가장 높았고, 500만원 미만 55.9%, 300만원 미만 45.1%의 순이었음.

표 III-2 | 서울시민복지정책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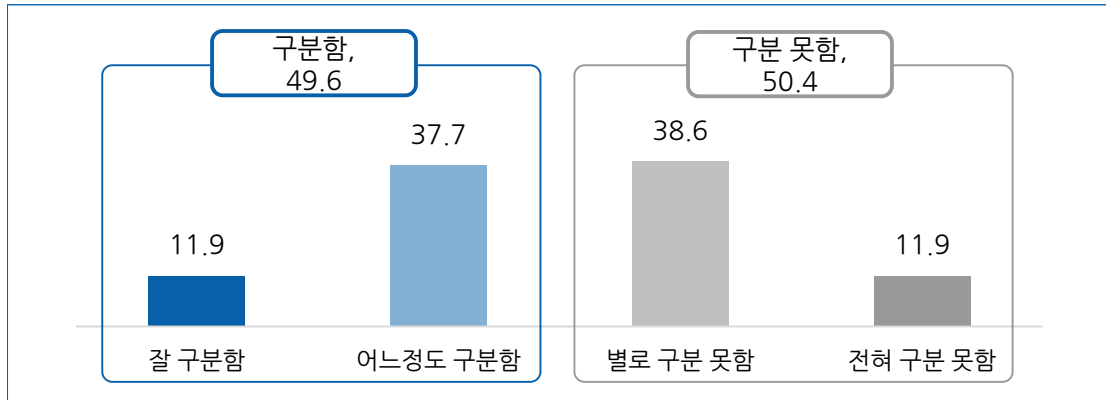
| 구 분            |            | 사례수          | 잘못한다        | 보통          | 잘한다         | 10점평점       |      |
|----------------|------------|--------------|-------------|-------------|-------------|-------------|------|
| <b>전체</b>      |            | <b>(700)</b> | <b>23.3</b> | <b>25.3</b> | <b>51.4</b> | <b>5.70</b> |      |
| 미성년<br>자녀수     | 없음         | (450)        | 26.2        | 26.7        | 47.1        | 5.53        |      |
|                | 1명         | (75)         | 21.3        | 20.0        | 58.7        | 6.13        |      |
|                | 2명         | (145)        | 15.9        | 25.5        | 58.6        | 5.95        |      |
|                | 3명         | (30)         | 20.0        | 16.7        | 63.3        | 6.00        |      |
| 다자녀<br>여부      | 非다자녀       | (525)        | 25.5        | 25.7        | 48.8        | 5.62        |      |
|                | 다자녀        | (175)        | 16.6        | 24.0        | 59.4        | 5.96        |      |
|                | 부모<br>직업   | 없음           | (55)        | 16.4        | 20.0        | 63.6        | 6.16 |
|                |            | 있음           | (120)       | 16.7        | 25.8        | 57.5        | 5.87 |
| 미성년<br>자녀여부    | 있음         | (250)        | 18.0        | 22.8        | 59.2        | 6.01        |      |
|                | 없음         | (450)        | 26.2        | 26.7        | 47.1        | 5.53        |      |
| 연령대            | 30대        | (100)        | 16.0        | 26.0        | 58.0        | 6.17        |      |
|                | 40대        | (200)        | 17.0        | 21.5        | 61.5        | 6.00        |      |
|                | 50대        | (200)        | 23.0        | 24.5        | 52.5        | 5.89        |      |
|                | 60대이상      | (200)        | 33.5        | 29.5        | 37.0        | 5.00        |      |
| 성별             | 남성         | (337)        | 24.6        | 23.4        | 51.9        | 5.69        |      |
|                | 여성         | (363)        | 22.0        | 27.0        | 51.0        | 5.71        |      |
| 거주<br>권역       | 도심권        | (63)         | 20.6        | 27.0        | 52.4        | 5.68        |      |
|                | 동북권        | (190)        | 20.0        | 28.9        | 51.1        | 5.76        |      |
|                | 서북권        | (128)        | 18.8        | 22.7        | 58.6        | 6.20        |      |
|                | 서남권        | (188)        | 22.9        | 22.3        | 54.8        | 5.83        |      |
|                | 동남권        | (131)        | 34.4        | 26.0        | 39.7        | 4.95        |      |
| 주택<br>점유<br>형태 | 자가         | (479)        | 25.9        | 24.6        | 49.5        | 5.60        |      |
|                | 전세         | (148)        | 17.6        | 25.0        | 57.4        | 6.03        |      |
|                | 월세         | (54)         | 22.2        | 31.5        | 46.3        | 5.48        |      |
|                | 무상거주 및 기타  | (19)         | 5.3         | 26.3        | 68.4        | 6.26        |      |
| 평균<br>가구<br>소득 | 300만원 미만   | (235)        | 23.8        | 31.1        | 45.1        | 5.55        |      |
|                | 500만원 미만   | (202)        | 19.8        | 24.3        | 55.9        | 5.97        |      |
|                | 500만원 이상   | (215)        | 22.3        | 20.9        | 56.7        | 5.92        |      |
|                | 거절 및 무응답   | (48)         | 39.6        | 20.8        | 39.6        | 4.38        |      |
| 직업             | 자영업/개인사업   | (227)        | 22.0        | 23.3        | 54.6        | 5.94        |      |
|                | 판매/영업/서비스직 | (41)         | 9.8         | 39.0        | 51.2        | 6.02        |      |
|                | 생산/기능/노무직  | (20)         | 35.0        | 15.0        | 50.0        | 4.60        |      |
|                | 사무/관리/전문직  | (152)        | 19.1        | 21.7        | 59.2        | 6.00        |      |
|                | 전업주부       | (181)        | 27.1        | 27.1        | 45.9        | 5.41        |      |
|                | 학생         | (2)          | 0.0         | 0.0         | 100.0       | 8.50        |      |
|                | 은퇴 및 무직    | (64)         | 31.3        | 31.3        | 37.5        | 5.09        |      |
|                | 기타         | (13)         | 30.8        | 23.1        | 46.2        | 5.31        |      |

### 3. 중앙/서울 복지정책 구분

Q 그렇다면 귀하께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림 3-3 | 중앙/서울 복지정책 구분

[N: 700, 단위: %]



- 중앙/서울시의 복지정책 '구분한다' 49.6%, '구분 못한다' 50.4%로 오차범위 내 팽팽
- 서울시민 절반(50.4%)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구분 못한다'고 응답했음. '별로 구분 못한다'는 응답은 38.6%, '전혀 구분 못한다'라는 응답은 11.9%였음. '구분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9.6%였는데 '어느정도 구분한다'는 비율이 37.7%였으며 '잘 구분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1.9%로 집계되었음.
- 응답자의 다자녀 부모 여부에 따라서는 다자녀 부모 중 53.1%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구분 못한다'고 답했으며, 非다자녀 부모 중에서는 49.5%가 '구분 못한다'고 답하였음.
- 응답자의 미성년 자녀 여부나 성별에 따라서는 전체응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응답자의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서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응답자 중에서 '구분 한다'는 응답 비율이 5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명 50.0%, 2명 46.2%, 1명 44.0%의 순이었음.
- 연령대에 따라서는 30대 응답자 중에서 '구분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56.0%로 다른 연령대보다 근소하게 높았고 40대 응답자에서 48.0%로 가장 낮았음.
- 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500만원 이상 응답자에서 '구분한다'는 응답 비율이 54.0%로 가장 높았고, 500만원 미만 49.0%, 300만원 미만 47.2%의 순이었음.

표 III-3 | 중앙/서울복지정책 구분

[단위: %]

| 구분             |            | 사례수   | 잘 구분함<br>① | 어느정도<br>구분함<br>② | 별로 구분<br>못함<br>③ | 전혀 구분<br>못함<br>④ | 구분함<br>①+② | 구분 못함<br>③+④ |
|----------------|------------|-------|------------|------------------|------------------|------------------|------------|--------------|
| 전체             |            | (700) | 11.9       | 37.7             | 38.6             | 11.9             | 49.6       | 50.4         |
| 미성년<br>자녀수     | 없음         | (450) | 12.9       | 38.7             | 36.2             | 12.2             | 51.6       | 48.4         |
|                | 1명         | (75)  | 16.0       | 28.0             | 44.0             | 12.0             | 44.0       | 56.0         |
|                | 2명         | (145) | 8.3        | 37.9             | 43.4             | 10.3             | 46.2       | 53.8         |
|                | 3명         | (30)  | 3.3        | 46.7             | 36.7             | 13.3             | 50.0       | 50.0         |
| 다자녀<br>여부      | 非다자녀       | (525) | 13.3       | 37.1             | 37.3             | 12.2             | 50.5       | 49.5         |
|                | 다자녀        | (175) | 7.4        | 39.4             | 42.3             | 10.9             | 46.9       | 53.1         |
|                | 부모<br>직업   |       |            |                  |                  |                  |            |              |
|                | 없음         | (55)  | 3.6        | 34.5             | 50.9             | 10.9             | 38.2       | 61.8         |
|                | 있음         | (120) | 9.2        | 41.7             | 38.3             | 10.8             | 50.8       | 49.2         |
| 미성년<br>자녀여부    | 있음         | (250) | 10.0       | 36.0             | 42.8             | 11.2             | 46.0       | 54.0         |
|                | 없음         | (450) | 12.9       | 38.7             | 36.2             | 12.2             | 51.6       | 48.4         |
| 연령대            | 30대        | (100) | 12.0       | 32.0             | 46.0             | 10.0             | 44.0       | 56.0         |
|                | 40대        | (200) | 11.0       | 41.0             | 37.5             | 10.5             | 52.0       | 48.0         |
|                | 50대        | (200) | 9.5        | 40.0             | 38.5             | 12.0             | 49.5       | 50.5         |
|                | 60대이상      | (200) | 15.0       | 35.0             | 36.0             | 14.0             | 50.0       | 50.0         |
| 성별             | 남성         | (337) | 13.6       | 37.4             | 36.8             | 12.2             | 51.0       | 49.0         |
|                | 여성         | (363) | 10.2       | 38.0             | 40.2             | 11.6             | 48.2       | 51.8         |
| 거주<br>권역       | 도심권        | (63)  | 11.1       | 30.2             | 38.1             | 20.6             | 41.3       | 58.7         |
|                | 동북권        | (190) | 13.2       | 40.5             | 35.3             | 11.1             | 53.7       | 46.3         |
|                | 서북권        | (128) | 8.6        | 43.0             | 38.3             | 10.2             | 51.6       | 48.4         |
|                | 서남권        | (188) | 12.8       | 39.9             | 38.8             | 8.5              | 52.7       | 47.3         |
|                | 동남권        | (131) | 12.2       | 29.0             | 43.5             | 15.3             | 41.2       | 58.8         |
| 주택<br>점유<br>형태 | 자가         | (479) | 12.5       | 38.4             | 36.7             | 12.3             | 50.9       | 49.1         |
|                | 전세         | (148) | 11.5       | 37.8             | 41.2             | 9.5              | 49.3       | 50.7         |
|                | 월세         | (54)  | 9.3        | 29.6             | 46.3             | 14.8             | 38.9       | 61.1         |
|                | 무상거주 및 기타  | (19)  | 5.3        | 42.1             | 42.1             | 10.5             | 47.4       | 52.6         |
| 평균<br>가구<br>소득 | 300만원 미만   | (235) | 11.5       | 35.7             | 42.1             | 10.6             | 47.2       | 52.8         |
|                | 500만원 미만   | (202) | 11.9       | 37.1             | 41.1             | 9.9              | 49.0       | 51.0         |
|                | 500만원 이상   | (215) | 10.7       | 43.3             | 34.4             | 11.6             | 54.0       | 46.0         |
|                | 거절 및 무응답   | (48)  | 18.8       | 25.0             | 29.2             | 27.1             | 43.8       | 56.3         |
| 직업             | 자영업/개인사업   | (227) | 15.4       | 36.1             | 36.6             | 11.9             | 51.5       | 48.5         |
|                | 판매/영업/서비스직 | (41)  | 7.3        | 41.5             | 48.8             | 2.4              | 48.8       | 51.2         |
|                | 생산/기능/노무직  | (20)  | 5.0        | 50.0             | 30.0             | 15.0             | 55.0       | 45.0         |
|                | 사무/관리/전문직  | (152) | 13.8       | 42.8             | 30.3             | 13.2             | 56.6       | 43.4         |
|                | 전업주부       | (181) | 8.3        | 37.6             | 42.5             | 11.6             | 45.9       | 54.1         |
|                | 학생         | (2)   | 0.0        | 50.0             | 50.0             | 0.0              | 50.0       | 50.0         |
|                | 은퇴 및 무직    | (64)  | 9.4        | 28.1             | 48.4             | 14.1             | 37.5       | 62.5         |
|                | 기타         | (13)  | 15.4       | 23.1             | 46.2             | 15.4             | 38.5       | 6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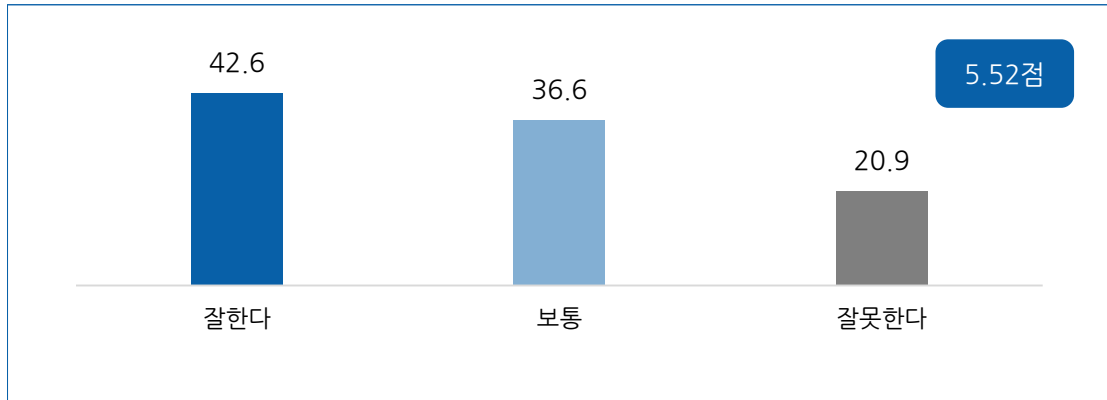
## 4. 서울시 다자녀 지원정책

Q

귀하께서는 서울시가 '다자녀 지원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로 말씀 주십시오.

그림 Ⅲ-4 | 서울시 다자녀 지원정책

[N: 700, 단위: %, 점]



■ 다자녀 지원정책을 '잘한다'는 응답 42.6%, 10점 평균점수 5.52점

- 응답자 중 42.6%가 서울시가 다자녀 지원정책을 '잘한다'고 응답했음. '잘못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9%로 집계되었으며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36.6%였음. 잘함의 정도를 10점 평점으로 산출했을 때 5.52점으로 조사되었음.
- 응답자의 다자녀 부모 여부에 따라서는 다자녀 부모 중 45.7%가 '잘한다'고 답했으며, 非다자녀 부모 중에서도 41.5%가 '잘한다'고 답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응답자의 미성년 자녀 여부에 따라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44.8%)와 미성년 자녀가 없는 응답자(41.3%) 간 차이가 거의 없었음.
- 응답자의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서는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다자녀 지원정책을 '잘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미성년 자녀가 3명인 응답자에서 53.3%로 가장 높았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응답자에서 41.3%로 가장 낮았음.
- 성별에 따라서는 전체응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연령대에 따라서는 40대 응답자 중 49.0%가 다자녀 지원정책을 '잘한다'고 답해 다른 연령대보다 근소하게 높은 비율을 보임.
- 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500만원 미만 응답자에서 '잘한다'는 응답 비율이 51.0%로 전체 대비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음.

표 III-4 | 서울시 다자녀 지원정책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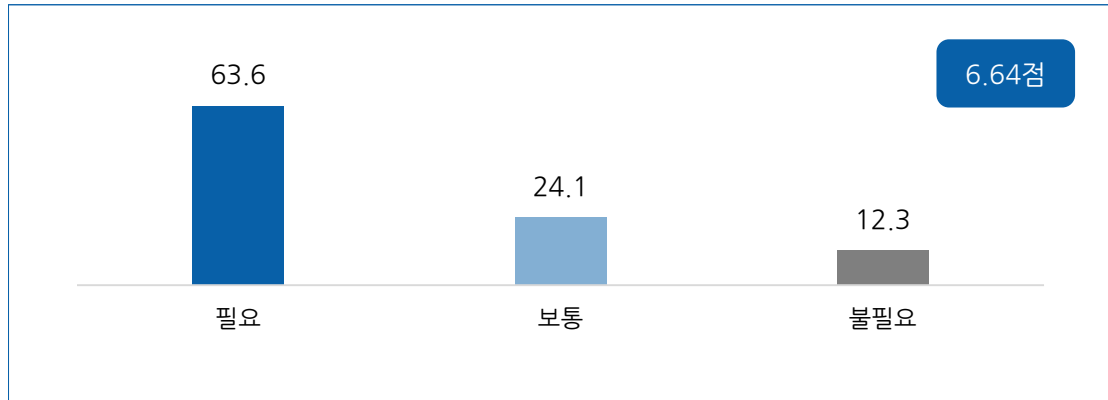
| 구 분            |            | 사례수          | 잘못한다        | 보통          | 잘한다         | 10점평점       |      |
|----------------|------------|--------------|-------------|-------------|-------------|-------------|------|
| <b>전체</b>      |            | <b>(700)</b> | <b>20.9</b> | <b>36.6</b> | <b>42.6</b> | <b>5.52</b> |      |
| 미성년<br>자녀수     | 없음         | (450)        | 20.4        | 38.2        | 41.3        | 5.51        |      |
|                | 1명         | (75)         | 16.0        | 41.3        | 42.7        | 5.67        |      |
|                | 2명         | (145)        | 23.4        | 32.4        | 44.1        | 5.39        |      |
|                | 3명         | (30)         | 26.7        | 20.0        | 53.3        | 5.80        |      |
| 다자녀<br>여부      | 非다자녀       | (525)        | 19.8        | 38.7        | 41.5        | 5.54        |      |
|                | 다자녀        | (175)        | 24.0        | 30.3        | 45.7        | 5.46        |      |
|                | 부모<br>직업   | 없음           | (55)        | 23.6        | 23.6        | 52.7        | 5.62 |
|                |            | 있음           | (120)       | 24.2        | 33.3        | 42.5        | 5.38 |
| 미성년<br>자녀여부    | 있음         | (250)        | 21.6        | 33.6        | 44.8        | 5.52        |      |
|                | 없음         | (450)        | 20.4        | 38.2        | 41.3        | 5.51        |      |
| 연령대            | 30대        | (100)        | 21.0        | 38.0        | 41.0        | 5.53        |      |
|                | 40대        | (200)        | 19.0        | 32.0        | 49.0        | 5.70        |      |
|                | 50대        | (200)        | 17.5        | 37.0        | 45.5        | 5.75        |      |
|                | 60대이상      | (200)        | 26.0        | 40.0        | 34.0        | 5.09        |      |
| 성별             | 남성         | (337)        | 21.1        | 35.0        | 43.9        | 5.54        |      |
|                | 여성         | (363)        | 20.7        | 38.0        | 41.3        | 5.49        |      |
| 거주<br>권역       | 도심권        | (63)         | 19.0        | 44.4        | 36.5        | 5.21        |      |
|                | 동북권        | (190)        | 17.4        | 40.5        | 42.1        | 5.64        |      |
|                | 서북권        | (128)        | 21.9        | 32.0        | 46.1        | 5.70        |      |
|                | 서남권        | (188)        | 23.4        | 34.6        | 42.0        | 5.40        |      |
|                | 동남권        | (131)        | 22.1        | 34.4        | 43.5        | 5.48        |      |
| 주택<br>점유<br>형태 | 자가         | (479)        | 20.9        | 37.4        | 41.8        | 5.51        |      |
|                | 전세         | (148)        | 23.0        | 32.4        | 44.6        | 5.52        |      |
|                | 월세         | (54)         | 18.5        | 37.0        | 44.4        | 5.52        |      |
|                | 무상거주 및 기타  | (19)         | 10.5        | 47.4        | 42.1        | 5.53        |      |
| 평균<br>가구<br>소득 | 300만원 미만   | (235)        | 21.3        | 40.0        | 38.7        | 5.36        |      |
|                | 500만원 미만   | (202)        | 17.3        | 31.7        | 51.0        | 5.95        |      |
|                | 500만원 이상   | (215)        | 21.9        | 35.3        | 42.8        | 5.51        |      |
|                | 거절 및 무응답   | (48)         | 29.2        | 45.8        | 25.0        | 4.52        |      |
| 직업             | 자영업/개인사업   | (227)        | 20.3        | 34.8        | 44.9        | 5.69        |      |
|                | 판매/영업/서비스직 | (41)         | 34.1        | 29.3        | 36.6        | 5.17        |      |
|                | 생산/기능/노무직  | (20)         | 25.0        | 40.0        | 35.0        | 4.80        |      |
|                | 사무/관리/전문직  | (152)        | 18.4        | 33.6        | 48.0        | 5.68        |      |
|                | 전업주부       | (181)        | 21.0        | 39.8        | 39.2        | 5.35        |      |
|                | 학생         | (2)          | 0.0         | 0.0         | 100.0       | 7.00        |      |
|                | 은퇴 및 무직    | (64)         | 20.3        | 43.8        | 35.9        | 5.45        |      |
|                | 기타         | (13)         | 15.4        | 46.2        | 38.5        | 5.00        |      |

## 5. 서울시 다자녀 지원 강화 필요성

Q 귀하께서는 서울시가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Ⅲ-5 | 서울시 다자녀 지원 강화 필요성

[N: 700, 단위: %, 점]



■ 다자녀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 63.6%, 10점 평균점수 6.64점

-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63.6%)이 서울시의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한 강화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2.3%에 불과했으며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24.1%였음. 필요성의 정도를 10점 평점으로 산출했을 때 6.64점으로 조사되었음.
- 응답자의 다자녀 부모 여부에 따라서는 다자녀 부모 중 다자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81.7%로 非다자녀 부모의 동일 응답 비율(57.5%)보다 20%p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응답자의 미성년 자녀 여부에 따라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 74.4%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미성년 자녀가 없는 응답자 중에서는 57.6%가 ‘필요하다’고 답해 차이가 나타남.
- 응답자의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서는 미성년 자녀가 2명인 응답자 중 78.6%, 미성년 자녀가 3명인 응답자 중 96.7%가 다자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해 다른 응답자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음.
-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응답자 중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67.7%로 여성(59.8%)보다 높았음.
- 연령대에 따라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자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30대 응답자의 74.0%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60대 이상은 50.0%로 집계되었음.
- 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500만원 이상 응답자에서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70.2%로 가장 높았고, 500만원 미만 66.3%, 300만원 미만 57.9%의 순이었음.

표 III-5 I 서울시 다자녀 지원 강화 필요성

[단위: %, 점]

| 구 분            |            | 사례수          | 불필요         | 보통          | 필요          | 10점평점       |      |
|----------------|------------|--------------|-------------|-------------|-------------|-------------|------|
| <b>전체</b>      |            | <b>(700)</b> | <b>12.3</b> | <b>24.1</b> | <b>63.6</b> | <b>6.64</b> |      |
| 미성년<br>자녀수     | 없음         | (450)        | 13.1        | 29.3        | 57.6        | 6.36        |      |
|                | 1명         | (75)         | 20.0        | 22.7        | 57.3        | 5.91        |      |
|                | 2명         | (145)        | 8.3         | 13.1        | 78.6        | 7.49        |      |
|                | 3명         | (30)         | 0.0         | 3.3         | 96.7        | 8.60        |      |
| 다자녀<br>여부      | 非다자녀       | (525)        | 14.1        | 28.4        | 57.5        | 6.29        |      |
|                | 다자녀        | (175)        | 6.9         | 11.4        | 81.7        | 7.68        |      |
|                | 부모<br>직업   | 없음           | (55)        | 3.6         | 9.1         | 87.3        | 7.82 |
|                |            | 있음           | (120)       | 8.3         | 12.5        | 79.2        | 7.62 |
| 미성년<br>자녀여부    | 있음         | (250)        | 10.8        | 14.8        | 74.4        | 7.15        |      |
|                | 없음         | (450)        | 13.1        | 29.3        | 57.6        | 6.36        |      |
| 연령대            | 30대        | (100)        | 4.0         | 22.0        | 74.0        | 7.19        |      |
|                | 40대        | (200)        | 10.5        | 16.5        | 73.0        | 7.08        |      |
|                | 50대        | (200)        | 16.0        | 21.5        | 62.5        | 6.49        |      |
|                | 60대이상      | (200)        | 14.5        | 35.5        | 50.0        | 6.07        |      |
| 성별             | 남성         | (337)        | 11.9        | 20.5        | 67.7        | 6.83        |      |
|                | 여성         | (363)        | 12.7        | 27.5        | 59.8        | 6.46        |      |
| 거주<br>권역       | 도심권        | (63)         | 11.1        | 28.6        | 60.3        | 6.81        |      |
|                | 동북권        | (190)        | 16.3        | 26.8        | 56.8        | 6.20        |      |
|                | 서북권        | (128)        | 7.8         | 21.1        | 71.1        | 7.14        |      |
|                | 서남권        | (188)        | 11.2        | 21.3        | 67.6        | 6.72        |      |
|                | 동남권        | (131)        | 13.0        | 25.2        | 61.8        | 6.58        |      |
| 주택<br>점유<br>형태 | 자가         | (479)        | 12.9        | 24.4        | 62.6        | 6.59        |      |
|                | 전세         | (148)        | 9.5         | 24.3        | 66.2        | 6.79        |      |
|                | 월세         | (54)         | 13.0        | 22.2        | 64.8        | 6.74        |      |
|                | 무상거주 및 기타  | (19)         | 15.8        | 21.1        | 63.2        | 6.37        |      |
| 평균<br>가구<br>소득 | 300만원 미만   | (235)        | 12.8        | 29.4        | 57.9        | 6.47        |      |
|                | 500만원 미만   | (202)        | 11.4        | 22.3        | 66.3        | 6.81        |      |
|                | 500만원 이상   | (215)        | 10.2        | 19.5        | 70.2        | 6.90        |      |
|                | 거절 및 무응답   | (48)         | 22.9        | 27.1        | 50.0        | 5.56        |      |
| 직업             | 자영업/개인사업   | (227)        | 14.5        | 16.7        | 68.7        | 6.78        |      |
|                | 판매/영업/서비스직 | (41)         | 4.9         | 34.1        | 61.0        | 7.07        |      |
|                | 생산/기능/노무직  | (20)         | 25.0        | 15.0        | 60.0        | 6.10        |      |
|                | 사무/관리/전문직  | (152)        | 10.5        | 17.8        | 71.7        | 6.91        |      |
|                | 전업주부       | (181)        | 12.2        | 30.4        | 57.5        | 6.30        |      |
|                | 학생         | (2)          | 50.0        | 0.0         | 50.0        | 5.00        |      |
|                | 은퇴 및 무직    | (64)         | 10.9        | 43.8        | 45.3        | 6.14        |      |
|                | 기타         | (13)         | 0.0         | 30.8        | 69.2        | 7.7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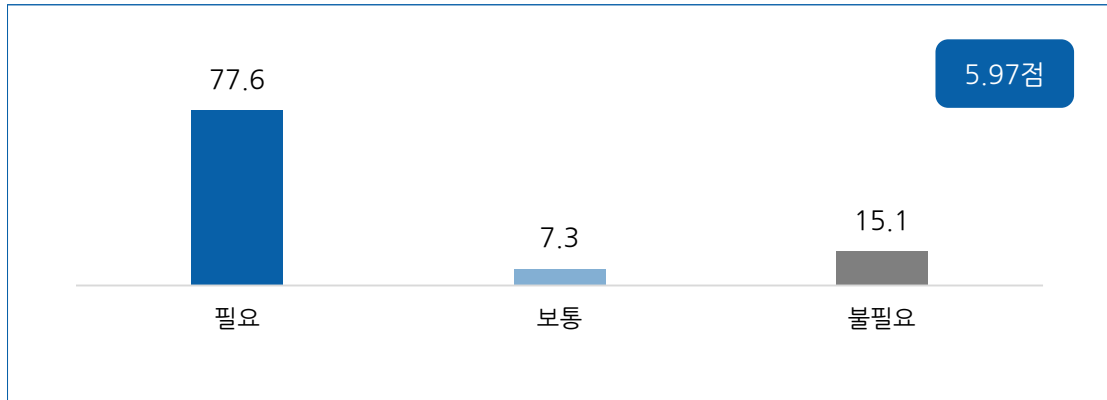
## 6. 심리지원 필요성

Q

그렇다면 (자녀를 포함한) 가족관계의 문제로 인한 심리 상담이나 스트레스 관리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얼마나 크게 느끼시나요?

그림 III-6 | 심리지원 필요성

[N: 700, 단위: %, 점]



- 가족관계에 대한 심리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 77.6%, 10점 평균점수 5.97점
-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77.6%)이 가족관계 문제로 인한 심리 상담이나 스트레스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불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5.1%에 불과했으며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7.3%였음. 필요성의 정도를 10점 평점으로 산출했을 때 5.97점으로 조사되었음.
- 응답자의 다자녀 부모 여부에 따라서는 다자녀 부모 중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85.7%로 非다자녀 부모의 동일 응답 비율(74.9%)보다 10%p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응답자의 미성년 자녀 여부에 따라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82.0%)가 미성년 자녀가 없는 응답자(75.1%)에 비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음.
- 응답자의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서는 미성년 자녀가 2명인 응답자와 미성년 자녀가 3명인 응답자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 85.5%, 86.7%로 다른 응답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음.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중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80.4%로 남성(74.5%)보다 근소하게 높았음.
- 연령대에 따라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심리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30대에서 84.0%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에서 68.5%로 가장 낮았음.
- 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500만원 이상 응답자에서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82.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00만원 미만 77.2%, 300만원 미만 75.3%의 순이었음.

표 III-6 | 심리지원 필요성

[단위: %, 점]

| 구 분            |            | 사례수   | 불필요   | 보통   | 필요   | 10점평점 |      |
|----------------|------------|-------|-------|------|------|-------|------|
| 전체             |            | (700) | 15.1  | 7.3  | 77.6 | 5.97  |      |
| 미성년<br>자녀수     | 없음         | (450) | 18.0  | 6.9  | 75.1 | 5.75  |      |
|                | 1명         | (75)  | 16.0  | 10.7 | 73.3 | 6.09  |      |
|                | 2명         | (145) | 7.6   | 6.9  | 85.5 | 6.48  |      |
|                | 3명         | (30)  | 6.7   | 6.7  | 86.7 | 6.43  |      |
| 다자녀<br>여부      | 非다자녀       | (525) | 17.7  | 7.4  | 74.9 | 5.80  |      |
|                | 다자녀        | (175) | 7.4   | 6.9  | 85.7 | 6.47  |      |
|                | 부모<br>직업   | 없음    | (55)  | 1.8  | 7.3  | 90.9  | 6.95 |
|                |            | 있음    | (120) | 10.0 | 6.7  | 83.3  | 6.26 |
| 미성년<br>자녀여부    | 있음         | (250) | 10.0  | 8.0  | 82.0 | 6.36  |      |
|                | 없음         | (450) | 18.0  | 6.9  | 75.1 | 5.75  |      |
| 연령대            | 30대        | (100) | 7.0   | 9.0  | 84.0 | 7.00  |      |
|                | 40대        | (200) | 8.5   | 8.5  | 83.0 | 6.44  |      |
|                | 50대        | (200) | 15.5  | 6.5  | 78.0 | 6.01  |      |
|                | 60대이상      | (200) | 25.5  | 6.0  | 68.5 | 4.95  |      |
| 성별             | 남성         | (337) | 17.8  | 7.7  | 74.5 | 5.72  |      |
|                | 여성         | (363) | 12.7  | 6.9  | 80.4 | 6.20  |      |
| 거주<br>권역       | 도심권        | (63)  | 9.5   | 9.5  | 81.0 | 6.06  |      |
|                | 동북권        | (190) | 18.4  | 8.4  | 73.2 | 5.73  |      |
|                | 서북권        | (128) | 10.9  | 4.7  | 84.4 | 6.42  |      |
|                | 서남권        | (188) | 13.3  | 7.4  | 79.3 | 6.04  |      |
|                | 동남권        | (131) | 19.8  | 6.9  | 73.3 | 5.73  |      |
| 주택<br>점유<br>형태 | 자가         | (479) | 16.7  | 8.4  | 74.9 | 5.75  |      |
|                | 전세         | (148) | 12.2  | 5.4  | 82.4 | 6.41  |      |
|                | 월세         | (54)  | 9.3   | 5.6  | 85.2 | 6.81  |      |
|                | 무상거주 및 기타  | (19)  | 15.8  | 0.0  | 84.2 | 5.79  |      |
| 평균<br>가구<br>소득 | 300만원 미만   | (235) | 19.1  | 5.5  | 75.3 | 5.73  |      |
|                | 500만원 미만   | (202) | 12.9  | 9.9  | 77.2 | 6.04  |      |
|                | 500만원 이상   | (215) | 9.3   | 8.4  | 82.3 | 6.45  |      |
|                | 거절 및 무응답   | (48)  | 31.3  | 0.0  | 68.8 | 4.71  |      |
| 직업             | 자영업/개인사업   | (227) | 13.7  | 8.4  | 78.0 | 6.06  |      |
|                | 판매/영업/서비스직 | (41)  | 9.8   | 9.8  | 80.5 | 6.12  |      |
|                | 생산/기능/노무직  | (20)  | 20.0  | 0.0  | 80.0 | 6.25  |      |
|                | 사무/관리/전문직  | (152) | 12.5  | 9.9  | 77.6 | 6.34  |      |
|                | 전업주부       | (181) | 17.1  | 5.5  | 77.3 | 5.73  |      |
|                | 학생         | (2)   | 50.0  | 0.0  | 50.0 | 2.50  |      |
|                | 은퇴 및 무직    | (64)  | 21.9  | 4.7  | 73.4 | 5.36  |      |
|                | 기타         | (13)  | 15.4  | 0.0  | 84.6 | 6.0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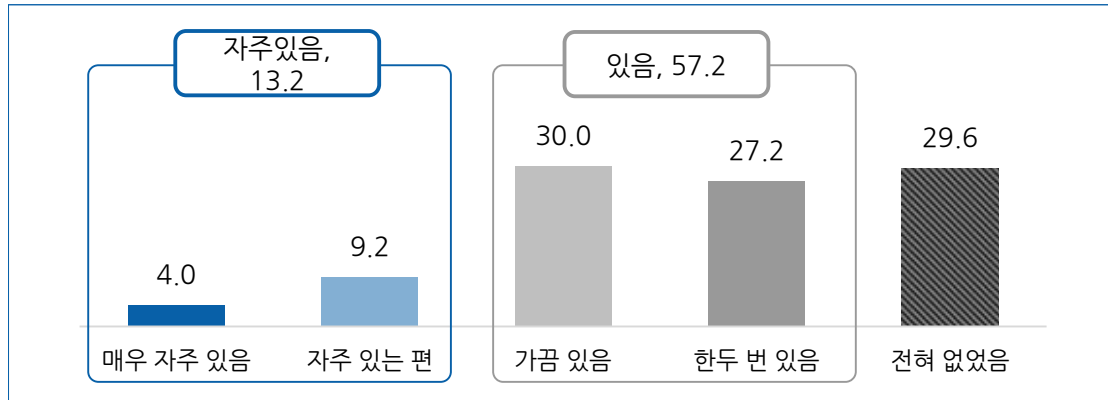
## 7.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필요 경험

Q

[미성년자녀가 있는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심리적·정서적 만족감이나 안정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림 Ⅲ-7 |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필요 경험

[N: 250, 단위: %]



-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이 필요했던 경험이 '있다' 57.2%, '자주 있다' 13.2%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 250명 중 자녀 양육 과정에서 심리적·정서적 만족감이나 안정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57.2%로 조사되었으며 '가끔 있다'는 응답이 30.0%, '한 두 번 있다'라는 응답은 27.2%였음. '자주 있다'는 응답은 13.2%(자주 있는 편이다 9.2%, 매우 자주 있다 4.0%)로 나타났으며, '전혀 없다'는 응답자는 29.6%였음.
- 응답자의 다자녀 부모 여부에 따라서는 非다자녀 부모 중 40.0%가 자녀 양육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했으나, 다자녀 부모 중에서는 25.1%만이 '전혀 없다'고 답해 차이를 보였음.
- 응답자의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서는 미성년 자녀가 3명인 응답자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0.0%로 전체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고, 미성년 자녀가 1명인 응답자와 2명인 응답자에서는 각 52.0%, 57.2%로 전체와 유사한 비율을 보였음.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응답자 중에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7.1%로 남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남성 응답자의 경우 '전혀 없다'는 응답이 43.6%로 여성(20.1%)에 비해 다소 높았음.
- 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500만원 이상 응답자에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61.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0만원 미만 응답자가 54.2%로 그 뒤를 이었음.

표 III-7 |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필요 경험

[단위: %]

| 구 분            |            | 사례수      | 매우자주<br>있음<br>① | 자주<br>있는 편<br>② | 가끔<br>있음<br>③ | 한두 번<br>있음<br>④ | 전혀<br>없었음<br>⑤ | 자주있음<br>①+②  | 있음<br>③+④    | 전혀없음<br>⑤    |
|----------------|------------|----------|-----------------|-----------------|---------------|-----------------|----------------|--------------|--------------|--------------|
| 전체             |            | (250)    | 4.0             | 9.2             | 30.0          | 27.2            | 29.6           | 13.2         | 57.2         | 29.6         |
| 미성년<br>자녀수     | 1명         | (75)     | 2.7             | 5.3             | 20.0          | 32.0            | 40.0           | 8.0          | 52.0         | 40.0         |
|                | 2명         | (145)    | 3.4             | 11.0            | 33.1          | 24.1            | 28.3           | 14.5         | 57.2         | 28.3         |
|                | 3명         | (30)     | 10.0            | 10.0            | 40.0          | 30.0            | 10.0           | 20.0         | 70.0         | 10.0         |
| 다자녀<br>여부      | 非다자녀       | (75)     | 2.7             | 5.3             | 20.0          | 32.0            | 40.0           | 8.0          | 52.0         | 40.0         |
|                | 다자녀        | (175)    | 4.6             | 10.9            | 34.3          | 25.1            | 25.1           | 15.4         | 59.4         | 25.1         |
|                | 부모<br>직업   | 없음<br>있음 | (55)<br>(120)   | 7.3<br>3.3      | 12.7<br>10.0  | 34.5<br>34.2    | 29.1<br>23.3   | 16.4<br>29.2 | 20.0<br>13.3 | 63.6<br>57.5 |
| 연령대            | 30대        | (42)     | 9.5             | 14.3            | 38.1          | 14.3            | 23.8           | 23.8         | 52.4         | 23.8         |
|                | 40대        | (152)    | 3.3             | 9.2             | 31.6          | 29.6            | 26.3           | 12.5         | 61.2         | 26.3         |
|                | 50대        | (45)     | 2.2             | 4.4             | 20.0          | 26.7            | 46.7           | 6.7          | 46.7         | 46.7         |
|                | 60대이상      | (11)     | 0.0             | 9.1             | 18.2          | 45.5            | 27.3           | 9.1          | 63.6         | 27.3         |
| 성별             | 남성         | (101)    | 5.0             | 8.9             | 20.8          | 21.8            | 43.6           | 13.9         | 42.6         | 43.6         |
|                | 여성         | (149)    | 3.4             | 9.4             | 36.2          | 30.9            | 20.1           | 12.8         | 67.1         | 20.1         |
| 거주<br>권역       | 도심권        | (36)     | 0.0             | 5.6             | 33.3          | 30.6            | 30.6           | 5.6          | 63.9         | 30.6         |
|                | 동북권        | (60)     | 0.0             | 11.7            | 21.7          | 28.3            | 38.3           | 11.7         | 50.0         | 38.3         |
|                | 서북권        | (63)     | 1.6             | 14.3            | 46.0          | 22.2            | 15.9           | 15.9         | 68.3         | 15.9         |
|                | 서남권        | (46)     | 10.9            | 10.9            | 17.4          | 28.3            | 32.6           | 21.7         | 45.7         | 32.6         |
|                | 동남권        | (45)     | 8.9             | 0.0             | 28.9          | 28.9            | 33.3           | 8.9          | 57.8         | 33.3         |
| 주택<br>점유<br>형태 | 자가         | (148)    | 2.7             | 10.8            | 27.0          | 27.7            | 31.8           | 13.5         | 54.7         | 31.8         |
|                | 전세         | (75)     | 2.7             | 6.7             | 30.7          | 32.0            | 28.0           | 9.3          | 62.7         | 28.0         |
|                | 월세         | (18)     | 22.2            | 5.6             | 38.9          | 16.7            | 16.7           | 27.8         | 55.6         | 16.7         |
|                | 무상거주 및 기타  | (9)      | 0.0             | 11.1            | 55.6          | 0.0             | 33.3           | 11.1         | 55.6         | 33.3         |
| 평균<br>가구<br>소득 | 300만원 미만   | (39)     | 5.1             | 12.8            | 28.2          | 25.6            | 28.2           | 17.9         | 53.8         | 28.2         |
|                | 500만원 미만   | (83)     | 8.4             | 7.2             | 24.1          | 30.1            | 30.1           | 15.7         | 54.2         | 30.1         |
|                | 500만원 이상   | (116)    | 0.9             | 10.3            | 33.6          | 27.6            | 27.6           | 11.2         | 61.2         | 27.6         |
|                | 거절 및 무응답   | (12)     | 0.0             | 0.0             | 41.7          | 8.3             | 50.0           | 0.0          | 50.0         | 50.0         |
| 직업             | 자영업/개인사업   | (71)     | 2.8             | 2.8             | 23.9          | 29.6            | 40.8           | 5.6          | 53.5         | 40.8         |
|                | 판매/영업/서비스직 | (19)     | 0.0             | 15.8            | 42.1          | 26.3            | 15.8           | 15.8         | 68.4         | 15.8         |
|                | 생산/기능/노무직  | (5)      | 0.0             | 20.0            | 20.0          | 20.0            | 40.0           | 20.0         | 40.0         | 40.0         |
|                | 사무/관리/전문직  | (68)     | 5.9             | 10.3            | 29.4          | 20.6            | 33.8           | 16.2         | 50.0         | 33.8         |
|                | 전업주부       | (73)     | 5.5             | 11.0            | 34.2          | 32.9            | 16.4           | 16.4         | 67.1         | 16.4         |
|                | 학생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                | 은퇴 및 무직    | (4)      | 0.0             | 25.0            | 25.0          | 25.0            | 25.0           | 25.0         | 50.0         | 25.0         |
|                | 기타         | (9)      | 0.0             | 11.1            | 22.2          | 22.2            | 44.4           | 11.1         | 44.4         | 4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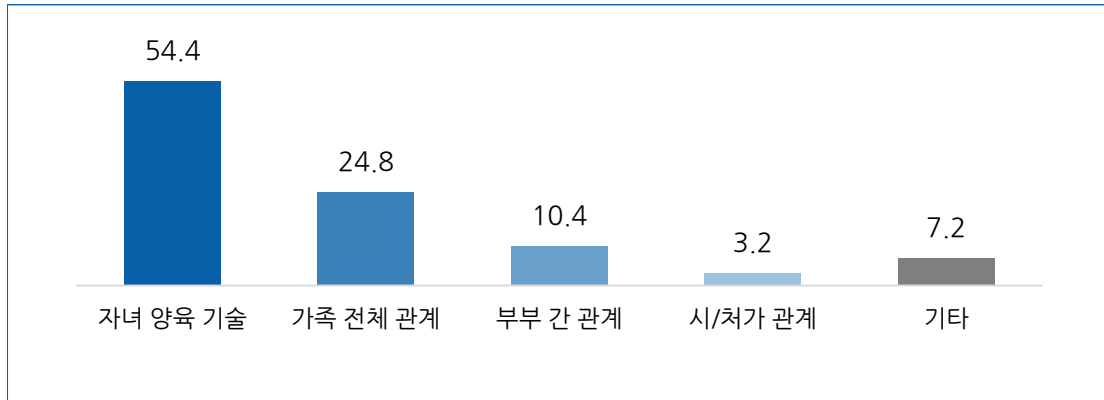


## 8.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필요 내용

|   |  |
|---|--|
| Q | [미성년자녀가 있는 응답자만] 귀하께서 '자녀 양육'에 관해 상담이나 전문적인 조언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그림 III-8 |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필요 내용

[N: 250, 단위: %]



- **응답자의 절반(54.4%), '자녀 양육 기술'에 대한 상담이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 250명 중 절반(54.4%)이 자녀 양육에 관해 상담이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자녀 양육 기술'이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가족 전체의 관계' 24.8%, '부부 사이의 관계' 10.4%, '시댁 혹은 처가와와의 관계' 3.2%의 순서로 조사되었고 '기타'는 7.2%였음.
- 응답자의 다자녀 부모 여부에 따라서는 다자녀 부모 중 57.1%가 '자녀 양육 기술'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해 非다자녀 부모(48.0%)보다 다소 높았음.
- 응답자의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서는 미성년 자녀가 2명인 응답자 중에서 '자녀 양육 기술'이 60.0%로 다른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났음.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응답자 중에서 '자녀 양육 기술'이라는 응답이 63.1%로 남성(41.6%)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음. 남성 응답자의 경우 '가족 전체의 관계'라는 응답이 31.7%로 여성(20.1%)보다 비교적 높았음.
- 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500만원 이상 응답자에서 '자녀 양육 기술'이라는 응답 비율이 5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0만원 미만 응답자가 53.0%로 그 뒤를 이었음.

표 III-8 |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필요 내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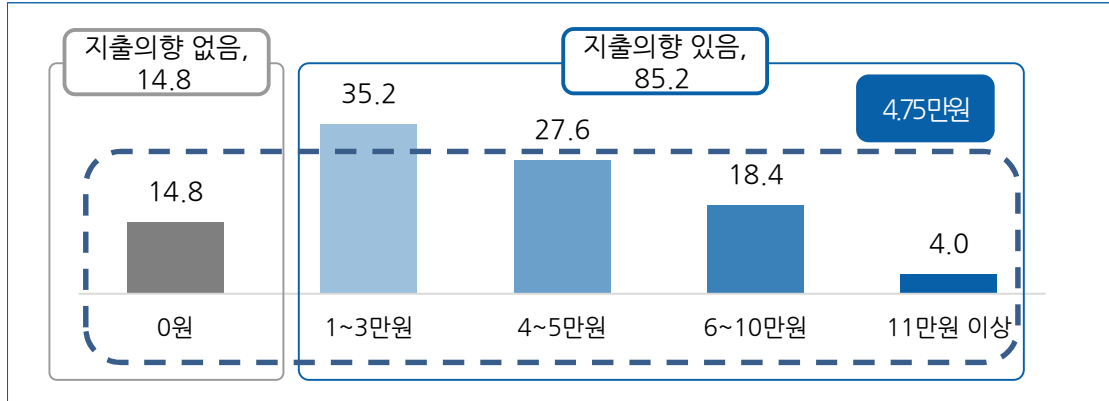
| 구 분            |            | 사례수   | 자녀양육<br>기술 | 가족 전체<br>관계 | 부부 간 관계 | 시/처가 관계 | 기타   |     |
|----------------|------------|-------|------------|-------------|---------|---------|------|-----|
| 전체             |            | (250) | 54.4       | 24.8        | 10.4    | 3.2     | 7.2  |     |
| 미성년<br>자녀수     | 1명         | (75)  | 48.0       | 26.7        | 14.7    | 0.0     | 10.7 |     |
|                | 2명         | (145) | 60.0       | 22.1        | 9.0     | 3.4     | 5.5  |     |
|                | 3명         | (30)  | 43.3       | 33.3        | 6.7     | 10.0    | 6.7  |     |
| 다자녀<br>여부      | 非다자녀       | (75)  | 48.0       | 26.7        | 14.7    | 0.0     | 10.7 |     |
|                | 다자녀        | (175) | 57.1       | 24.0        | 8.6     | 4.6     | 5.7  |     |
|                | 부모<br>직업   | 없음    | (55)       | 60.0        | 29.1    | 3.6     | 1.8  | 5.5 |
|                |            | 있음    | (120)      | 55.8        | 21.7    | 10.8    | 5.8  | 5.8 |
| 연령대            | 30대        | (42)  | 45.2       | 28.6        | 16.7    | 7.1     | 2.4  |     |
|                | 40대        | (152) | 57.9       | 22.4        | 8.6     | 3.3     | 7.9  |     |
|                | 50대        | (45)  | 51.1       | 26.7        | 11.1    | 0.0     | 11.1 |     |
|                | 60대이상      | (11)  | 54.5       | 36.4        | 9.1     | 0.0     | 0.0  |     |
| 성별             | 남성         | (101) | 41.6       | 31.7        | 11.9    | 2.0     | 12.9 |     |
|                | 여성         | (149) | 63.1       | 20.1        | 9.4     | 4.0     | 3.4  |     |
| 거주<br>권역       | 도심권        | (36)  | 52.8       | 22.2        | 13.9    | 5.6     | 5.6  |     |
|                | 동북권        | (60)  | 53.3       | 23.3        | 15.0    | 0.0     | 8.3  |     |
|                | 서북권        | (63)  | 63.5       | 17.5        | 9.5     | 3.2     | 6.3  |     |
|                | 서남권        | (46)  | 50.0       | 34.8        | 2.2     | 6.5     | 6.5  |     |
|                | 동남권        | (45)  | 48.9       | 28.9        | 11.1    | 2.2     | 8.9  |     |
| 주택<br>점유<br>형태 | 자가         | (148) | 56.8       | 18.9        | 10.8    | 4.7     | 8.8  |     |
|                | 전세         | (75)  | 56.0       | 29.3        | 8.0     | 1.3     | 5.3  |     |
|                | 월세         | (18)  | 38.9       | 44.4        | 16.7    | 0.0     | 0.0  |     |
|                | 무상거주 및 기타  | (9)   | 33.3       | 44.4        | 11.1    | 0.0     | 11.1 |     |
| 평균<br>가구<br>소득 | 300만원 미만   | (39)  | 48.7       | 23.1        | 17.9    | 0.0     | 10.3 |     |
|                | 500만원 미만   | (83)  | 53.0       | 27.7        | 9.6     | 3.6     | 6.0  |     |
|                | 500만원 이상   | (116) | 57.8       | 24.1        | 9.5     | 3.4     | 5.2  |     |
|                | 거절 및 무응답   | (12)  | 50.0       | 16.7        | 0.0     | 8.3     | 25.0 |     |
| 직업             | 자영업/개인사업   | (71)  | 49.3       | 26.8        | 11.3    | 1.4     | 11.3 |     |
|                | 판매/영업/서비스직 | (19)  | 36.8       | 31.6        | 15.8    | 10.5    | 5.3  |     |
|                | 생산/기능/노무직  | (5)   | 20.0       | 40.0        | 40.0    | 0.0     | 0.0  |     |
|                | 사무/관리/전문직  | (68)  | 57.4       | 23.5        | 7.4     | 5.9     | 5.9  |     |
|                | 전업주부       | (73)  | 61.6       | 23.3        | 8.2     | 1.4     | 5.5  |     |
|                | 학생         | (1)   | 100.0      | 0.0         | 0.0     | 0.0     | 0.0  |     |
|                | 은퇴 및 무직    | (4)   | 50.0       | 50.0        | 0.0     | 0.0     | 0.0  |     |
|                | 기타         | (9)   | 66.7       | 0.0         | 22.2    | 0.0     | 11.1 |     |

9.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지출의향

Q [미성년자녀가 있는 응답자만] 귀하께서 자녀 양육 과정에서 심리적 정서적 만족감이나 안정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1회에 얼마까지 지불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림 III-9 |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지출 의향

[N: 250, 단위: %, 만원]



-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에 ‘지출의향 있다’ 85.2%, 평균 지출의향 4.75만원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 250명 중 85.2%가 자녀 양육 과정에서 심리적 정서적 만족감이나 안정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지출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음. ‘1~3만원’ 35.2%, ‘4~5만원’ 27.6%, ‘6~10만원’ 18.4%, ‘11만원 이상’은 4.0%였음. ‘지출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4.8%였음. 이에 대한 평균 지출의향은 4.75만원으로 집계되었음.
- 응답자의 다자녀 부모 여부에 따라서는 다자녀 부모 중 ‘지출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88.6%로 非다자녀 부모의 동일 응답 비율(77.3%)보다 10%p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응답자의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서는 미성년 자녀가 2명인 응답자에서 ‘지출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90.3%로 가장 높았고 3명 80.0%, 1명 77.3%의 순이었음.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응답자 중에서 ‘지출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90.6%로 남성(77.2%)보다 다소 높았음.
- 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500만원 이상 응답자에서 ‘지출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9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0만원 미만 응답자에서 89.2%로 그 뒤를 이었음.

표 III-9 | 심리·정서 관련 전문조력 지출 의향

[단위: %, 만원]

| 구 분      |            | 사례수   | 0원   | 1~3만원 | 4~5만원 | 6~10만원 | 11만원 이상 | 지출의향 없음 | 지출의향 있음 | 평균 지출 의향 |
|----------|------------|-------|------|-------|-------|--------|---------|---------|---------|----------|
| 전체       |            | (250) | 14.8 | 35.2  | 27.6  | 18.4   | 4.0     | 14.8    | 85.2    | 4.75     |
| 미성년 자녀수  | 1명         | (75)  | 22.7 | 22.7  | 26.7  | 24.0   | 4.0     | 22.7    | 77.3    | 5.04     |
|          | 2명         | (145) | 9.7  | 39.3  | 30.3  | 15.9   | 4.8     | 9.7     | 90.3    | 4.88     |
|          | 3명         | (30)  | 20.0 | 46.7  | 16.7  | 16.7   | 0.0     | 20.0    | 80.0    | 3.37     |
| 다자녀 여부   | 非다자녀       | (75)  | 22.7 | 22.7  | 26.7  | 24.0   | 4.0     | 22.7    | 77.3    | 5.04     |
|          | 다자녀        | (175) | 11.4 | 40.6  | 28.0  | 16.0   | 4.0     | 11.4    | 88.6    | 4.62     |
|          | 부모 직업      |       |      |       |       |        |         |         |         |          |
|          | 없음         | (55)  | 7.3  | 56.4  | 25.5  | 9.1    | 1.8     | 7.3     | 92.7    | 3.71     |
|          | 있음         | (120) | 13.3 | 33.3  | 29.2  | 19.2   | 5.0     | 13.3    | 86.7    | 5.04     |
| 연령대      | 30대        | (42)  | 11.9 | 42.9  | 26.2  | 16.7   | 2.4     | 11.9    | 88.1    | 4.31     |
|          | 40대        | (152) | 11.2 | 38.8  | 28.9  | 16.4   | 4.6     | 11.2    | 88.8    | 4.86     |
|          | 50대        | (45)  | 22.2 | 22.2  | 24.4  | 28.9   | 2.2     | 22.2    | 77.8    | 4.89     |
|          | 60대이상      | (11)  | 45.5 | 9.1   | 27.3  | 9.1    | 9.1     | 45.5    | 54.5    | 4.27     |
| 성별       | 남성         | (101) | 22.8 | 21.8  | 22.8  | 23.8   | 8.9     | 22.8    | 77.2    | 5.84     |
|          | 여성         | (149) | 9.4  | 44.3  | 30.9  | 14.8   | 0.7     | 9.4     | 90.6    | 4.01     |
| 거주 권역    | 도심권        | (36)  | 2.8  | 52.8  | 25.0  | 11.1   | 8.3     | 2.8     | 97.2    | 5.11     |
|          | 동북권        | (60)  | 23.3 | 26.7  | 25.0  | 20.0   | 5.0     | 23.3    | 76.7    | 4.90     |
|          | 서북권        | (63)  | 4.8  | 50.8  | 28.6  | 12.7   | 3.2     | 4.8     | 95.2    | 4.25     |
|          | 서남권        | (46)  | 21.7 | 26.1  | 21.7  | 30.4   | 0.0     | 21.7    | 78.3    | 4.63     |
|          | 동남권        | (45)  | 20.0 | 20.0  | 37.8  | 17.8   | 4.4     | 20.0    | 80.0    | 5.07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148) | 14.2 | 35.1  | 30.4  | 18.9   | 1.4     | 14.2    | 85.8    | 4.40     |
|          | 전세         | (75)  | 16.0 | 32.0  | 22.7  | 20.0   | 9.3     | 16.0    | 84.0    | 5.73     |
|          | 월세         | (18)  | 16.7 | 44.4  | 27.8  | 5.6    | 5.6     | 16.7    | 83.3    | 3.61     |
|          | 무상거주 및 기타  | (9)   | 11.1 | 44.4  | 22.2  | 22.2   | 0.0     | 11.1    | 88.9    | 4.56     |
| 평균 가구 소득 | 300만원 미만   | (39)  | 35.9 | 41.0  | 12.8  | 7.7    | 2.6     | 35.9    | 64.1    | 2.56     |
|          | 500만원 미만   | (83)  | 10.8 | 37.3  | 30.1  | 19.3   | 2.4     | 10.8    | 89.2    | 4.77     |
|          | 500만원 이상   | (116) | 9.5  | 31.0  | 31.9  | 21.6   | 6.0     | 9.5     | 90.5    | 5.59     |
|          | 거절 및 무응답   | (12)  | 25.0 | 41.7  | 16.7  | 16.7   | 0.0     | 25.0    | 75.0    | 3.50     |
| 직업       | 자영업/개인사업   | (71)  | 23.9 | 15.5  | 28.2  | 25.4   | 7.0     | 23.9    | 76.1    | 5.79     |
|          | 판매/영업/서비스직 | (19)  | 10.5 | 42.1  | 15.8  | 21.1   | 10.5    | 10.5    | 89.5    | 6.47     |
|          | 생산/기능/노무직  | (5)   | 40.0 | 0.0   | 40.0  | 20.0   | 0.0     | 40.0    | 60.0    | 3.80     |
|          | 사무/관리/전문직  | (68)  | 10.3 | 36.8  | 32.4  | 17.6   | 2.9     | 10.3    | 89.7    | 4.51     |
|          | 전업주부       | (73)  | 8.2  | 52.1  | 26.0  | 12.3   | 1.4     | 8.2     | 91.8    | 3.86     |
|          | 학생         | (1)   | 0.0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1.00     |
|          | 은퇴 및 무직    | (4)   | 50.0 | 25.0  | 25.0  | 0.0    | 0.0     | 50.0    | 50.0    | 1.50     |
|          | 기타         | (9)   | 11.1 | 44.4  | 22.2  | 22.2   | 0.0     | 11.1    | 88.9    | 4.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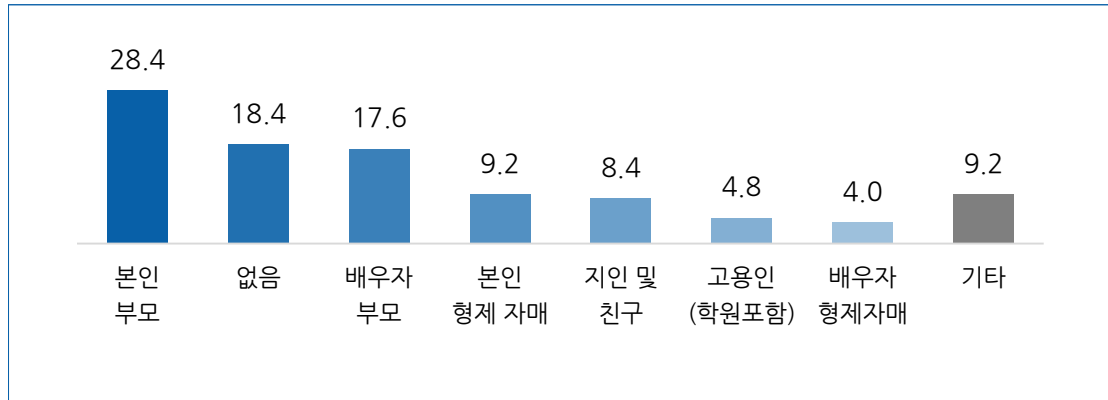
## 10. 자녀 양육 조력자

Q

[미성년자녀가 있는 응답자만] 배우자 외 귀하의 자녀 양육을 돕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림III-10 | 자녀 양육 조력자

[N: 250, 단위: %]



■ 응답자의 28.4%, '본인 부모'로부터 자녀 양육 도움받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 250명 중 자녀 양육 조력자를 물어본 결과 '나의 부모님'이 2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없다' 18.4%, '배우자 부모님' 17.6%, '나의 형제자매' 9.2%, '지인 및 친구' 8.4%, '고용인(학원포함)' 4.8%, '배우자 형제자매' 4.0%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기타'는 9.2%였음.
- 응답자의 다자녀 부모 여부에 따라서는 다자녀 부모 중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 비율이 32.0%로 非다자녀 부모의 동일 응답 비율(20.0%)보다 10%p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非다자녀 부모에서는 조력자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32.0%로 비교적 높았음.
- 응답자의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서는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조력자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32.0%로 나타났음.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응답자 중에서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36.9%로 남성(15.8%)보다 다소 높았음.
- 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500만원 미만 응답자에서 '나의 부모님'이라는 응답 비율이 3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0만원 이상 응답자에서 28.4%로 그 뒤를 이었음.

표Ⅲ-10 | 자녀 양육 조력자

[단위: %]

| 구 분      |            | 사례수   | 본인 부모 | 없음   | 배우자 부모 | 본인 형제 자매 | 지인 및 친구 | 고용인 (학원 포함) | 배우자 형제 자매 | 기타   |
|----------|------------|-------|-------|------|--------|----------|---------|-------------|-----------|------|
| 전체       |            | (250) | 28.4  | 18.4 | 17.6   | 9.2      | 8.4     | 4.8         | 4.0       | 9.2  |
| 미성년 자녀수  | 1명         | (75)  | 20.0  | 32.0 | 17.3   | 5.3      | 9.3     | 5.3         | 5.3       | 5.3  |
|          | 2명         | (145) | 30.3  | 13.1 | 18.6   | 12.4     | 7.6     | 3.4         | 4.1       | 10.3 |
|          | 3명         | (30)  | 40.0  | 10.0 | 13.3   | 3.3      | 10.0    | 10.0        | 0.0       | 13.3 |
| 다자녀 여부   | 非다자녀       | (75)  | 20.0  | 32.0 | 17.3   | 5.3      | 9.3     | 5.3         | 5.3       | 5.3  |
|          | 다자녀        | (175) | 32.0  | 12.6 | 17.7   | 10.9     | 8.0     | 4.6         | 3.4       | 10.9 |
|          | 부모 직업      |       |       |      |        |          |         |             |           |      |
|          | 없음         | (55)  | 36.4  | 10.9 | 14.5   | 12.7     | 9.1     | 1.8         | 0.0       | 14.5 |
|          | 있음         | (120) | 30.0  | 13.3 | 19.2   | 10.0     | 7.5     | 5.8         | 5.0       | 9.2  |
| 연령대      | 30대        | (42)  | 45.2  | 4.8  | 16.7   | 7.1      | 7.1     | 2.4         | 0.0       | 16.7 |
|          | 40대        | (152) | 27.6  | 17.1 | 19.1   | 9.2      | 9.2     | 5.9         | 3.9       | 7.9  |
|          | 50대        | (45)  | 20.0  | 33.3 | 13.3   | 13.3     | 4.4     | 4.4         | 6.7       | 4.4  |
|          | 60대이상      | (11)  | 9.1   | 27.3 | 18.2   | 0.0      | 18.2    | 0.0         | 9.1       | 18.2 |
| 성별       | 남성         | (101) | 15.8  | 28.7 | 22.8   | 5.0      | 8.9     | 3.0         | 8.9       | 6.9  |
|          | 여성         | (149) | 36.9  | 11.4 | 14.1   | 12.1     | 8.1     | 6.0         | 0.7       | 10.7 |
| 거주 권역    | 도심권        | (36)  | 44.4  | 0.0  | 22.2   | 5.6      | 13.9    | 2.8         | 2.8       | 8.3  |
|          | 동북권        | (60)  | 23.3  | 33.3 | 25.0   | 5.0      | 5.0     | 3.3         | 5.0       | 0.0  |
|          | 서북권        | (63)  | 23.8  | 4.8  | 12.7   | 19.0     | 9.5     | 3.2         | 1.6       | 25.4 |
|          | 서남권        | (46)  | 34.8  | 26.1 | 15.2   | 6.5      | 2.2     | 4.3         | 6.5       | 4.3  |
|          | 동남권        | (45)  | 22.2  | 24.4 | 13.3   | 6.7      | 13.3    | 11.1        | 4.4       | 4.4  |
| 주택 점유 형태 | 자가         | (148) | 30.4  | 16.9 | 23.0   | 8.1      | 6.1     | 7.4         | 2.7       | 5.4  |
|          | 전세         | (75)  | 24.0  | 22.7 | 8.0    | 13.3     | 10.7    | 1.3         | 6.7       | 13.3 |
|          | 월세         | (18)  | 27.8  | 22.2 | 16.7   | 0.0      | 11.1    | 0.0         | 5.6       | 16.7 |
|          | 무상거주 및 기타  | (9)   | 33.3  | 0.0  | 11.1   | 11.1     | 22.2    | 0.0         | 0.0       | 22.2 |
| 평균 가구 소득 | 300만원 미만   | (39)  | 20.5  | 35.9 | 12.8   | 7.7      | 5.1     | 2.6         | 5.1       | 10.3 |
|          | 500만원 미만   | (83)  | 32.5  | 15.7 | 19.3   | 10.8     | 4.8     | 2.4         | 4.8       | 9.6  |
|          | 500만원 이상   | (116) | 28.4  | 14.7 | 16.4   | 8.6      | 12.1    | 7.8         | 3.4       | 8.6  |
|          | 거절 및 무응답   | (12)  | 25.0  | 16.7 | 33.3   | 8.3      | 8.3     | 0.0         | 0.0       | 8.3  |
| 직업       | 자영업/개인사업   | (71)  | 22.5  | 28.2 | 19.7   | 9.9      | 8.5     | 1.4         | 5.6       | 4.2  |
|          | 판매/영업/서비스직 | (19)  | 31.6  | 21.1 | 10.5   | 5.3      | 5.3     | 0.0         | 10.5      | 15.8 |
|          | 생산/기능/노무직  | (5)   | 20.0  | 40.0 | 40.0   | 0.0      | 0.0     | 0.0         | 0.0       | 0.0  |
|          | 사무/관리/전문직  | (68)  | 27.9  | 10.3 | 23.5   | 7.4      | 5.9     | 13.2        | 4.4       | 7.4  |
|          | 전업주부       | (73)  | 37.0  | 12.3 | 13.7   | 12.3     | 9.6     | 2.7         | 0.0       | 12.3 |
|          | 학생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은퇴 및 무직    | (4)   | 0.0   | 75.0 | 0.0    | 0.0      | 0.0     | 0.0         | 25.0      | 0.0  |
|          | 기타         | (9)   | 11.1  | 11.1 | 0.0    | 11.1     | 33.3    | 0.0         | 0.0       | 33.3 |



# 서울시 다자녀 지원정책 확장 관련 여론조사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제3장. 전화면접조사

**제4장. 표적집단면접**

제5장. 전문가심층인터뷰

제6장. 결론

부록





## 1절. 서울시 복지정책 평가 및 인식

### 1. 서울시 복지 관련 일반적 인식

#### ■ 상대적으로는 개선되었으나, 절대적인 관점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음

- 정부나 각 지자체가 홍보 및 안내하는 만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대부분 공감.
- 남성의 경우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구나 방법을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일원화 되어있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음.
- 하지만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고, 경기 등 주변의 타 지역에 비해서도 낫다는 평가가 일부 존재.
- 여성의 경우 '영양플러스', '다둥이카드(주차)' 등 체감하는 복지정책의 종류가 남성에 비해서 다양하게 노출되었음. 더불어, 교통이나 '따릉이'로 대변하는 인프라에 대한 개선도 복지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 Real Voice

- ✓ 세 아이의 아빠인데, 그 당시만 해도 다자녀 출산이 되면 정말로 나라에서 아이를 키워주는 줄 알았어요. (남성, 고▲▲)
- ✓ 가족이 다섯이에요. 호텔 같은 거 잡을 때 꼭 뭐 두 명이나 이렇게 잡고 꼭 추가 요금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남성, 고▲▲)
- ✓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채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성, 김◎◎)
- ✓ 어쨌든 그걸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지 뭔가 혜택을 보든가 신청을 하던가 하는데, (남성, 공○○)
- ✓ 그냥 막 두 명, 세 명 많이 낳으면 국가가 지원을 많이 해줄게 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믿고 낳을 수 있을까? (남성, 이□□)
- ✓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보편적으로 정책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좀 많이 없는 거 같아요. (남성, 김 ■)
- ✓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개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 강■)
- ✓ 지방 보다는 서울이 확실히 살기가 좋은 곳이다 라는 걸 얘기 들으면서 이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생겼는데, (여성, 이○○)
- ✓ 전반적으로 다는 제가 모르죠.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만족하는 부분에 이제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시는 어쨌든 금액이 싸고, 서울페이인가 할인도 되고 하는 그런. 따릉이가 요즘 잘 되어 있고. 서관이 경기도나 다른 외곽에 비해서 좀 열악한 거 같거든요. 도서관이 환경이 되게 열악해서 저는 그게 별로인 것 같아요. 주차할인 되는 거랑 좀 믿을만한 보육 시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걱정은 교육비죠. 교육비가 신경이 제일 많이 쓰이고. 다동이 카드에 월급을 삽입해 주는 거는 힘들겠죠? (여성, 조☆☆)

- ✓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그런 재활용 장터 같은 걸 많이 이용했습니다. 따릉이를 이용도 하고 (여성, 송♣♣)
- ✓ 요즘 들어서는 첫째 때보다 막내 때 아기들을 돌봐 주는 그런 구청에서 주는 프로그램.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8년 만에. (여성, 송♣♣)
- ✓ 애들 퇴원하면 영양플러스라고 유기농으로. 그것도 아이 한 명씩 받고, 저 임신했을 때 받고, 총 네 번 받았고, 그리고 주차 할인. 공공 주차장 가면 할인을 해 주잖아요. 상상나라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그것도 세자녀 이상이면 무료입장이거든요. 음악이랑 미술이랑 그 학원보조비를 대줘요. (여성, 서□□)
- ✓ 뭐 때문에 불만족스러웠는지 (사회자) 단발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 서□□)

## 2. 정부-지자체 간 복지정책 구분

### ■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복지정책 구분 불가능

- 복지정책의 내용이나 종류에 관해서 개별적 관심을 보였지만, 구분을 할 수 있는 참여자는 없었으며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음.
- 주무부서 혹은 관청의 이미지가 막연한 가운데, ‘다둥이카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주차할인 등의 이유로 다자녀 가정에서는 대부분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 차후, 관련 정책 추진 시 서울시가 추진·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이 필요함을 시사.

### ■ Real Voice

- ✓ 제가 알고 있기는 임대, 장기전세주택 할 때 다자녀 순위랑 그게 서울시에서 하는 제가 알고 있는 다자녀를 위한 정책인 거 같습니다. (남성, 김 ■)
- ✓ 문화센터 할인도 (여성, 조☆☆)
- ✓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사회적, 사회적 배려자 전형 이라는게 있더라고요. (여성, 서□□)

## 2절. 다자녀 정책 관련 평가 및 인식

### 3. 다자녀 정책 관련 평가

#### ■ 다자녀 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참여자 거의 없었음

#### ■ 거주(주택)과 교육관련 요구가 가장 컸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

-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및 국민임대 주택의 혜택 대상자는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일단 대상이 되면 주거라는 문제를 서울시의 다자녀 혜택을 통해 해결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수 있음.
-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한계를 노출하였음. 다자녀의 가정의 경우, 특히 자녀의 성별이 다를 때, 충분한 방의 개수나 공간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는 2명이나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교육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이나 정책이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음.
- 공공주차장 요금할인으로 대변되는 할인혜택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기는 하나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정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견 일치
- 더불어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하거나 집행 및 종료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 Real V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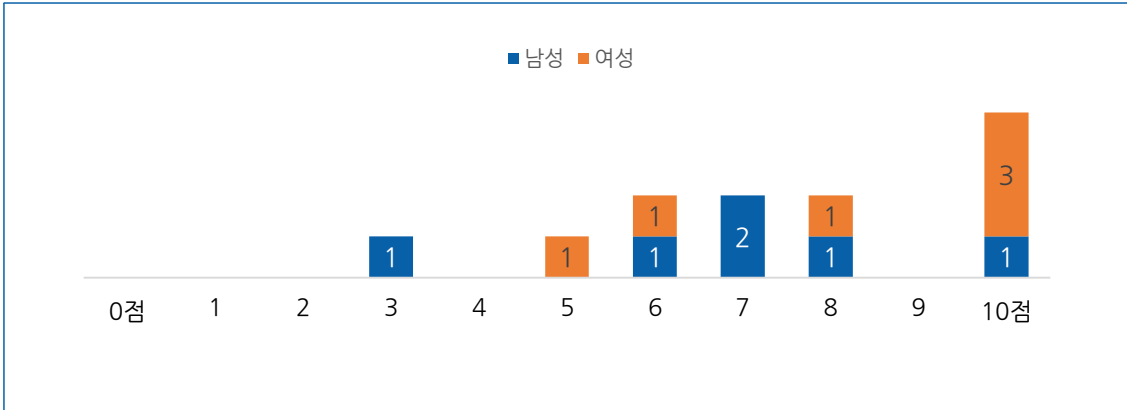
- ✓ 근데 어떻게 메일링 같은 걸로 좀 소식 같은 것들을 좀 예를 들어 두 아이의 아빠다 이러면은 뭘 받을 수 있다 (남성, 김◎◎)
- ✓ 그럼 아이들을 데리고 장기임대주택에 들어갔을 때 실제 주거공간에서 아이들을 몇 살 때 까지 키울 수 있는지 의문이 남더라고요. (남성, 최◆◆)
- ✓ 중요한 게 뭘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성, 공○○)
- ✓ 최소한으로 누리고 있었던 부모님들이나, 학교라던가, 이용하고 있던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예산에 따라서 그냥 집행해버린 거죠. (남성, 최◆◆)
- ✓ 장기주택, 국민임대주택에 살면서 굉장히 많은... 집 값 때문에 고생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스러워요, 그런 면에서는. (여성, 김●●)
- ✓ 2자녀하고 3자녀 혜택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세 자녀가 50% 받을 때 두 자녀는 20% 받는단가. (여성, 이○○)

- ✓ 정말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내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구나라고 확 와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소소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확 당기는 그런 혜택은 아니다’라고 생각 (여성, 송♣♣)
- ✓ 장기공급이나 다자녀 특별공급처럼. 가장 큰 것 (여성, 송♣♣)
- ✓ 어떤 정책을 해서 내가 그러면 한 셋째까지 낳아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여성, 조☆☆)
- ✓ 집이랑 교육이거든요. 집과 교육인데, 실제적으로 매달 매달 우리한테 직접 와 닿는 것은 교육비가 제일 큰데. 자녀가 한 명 늘어서, 우리가 줄여야 하는 돈이 몇 배가 또 확 늘어나니까. 그런 부담감이 좀 많죠. 다둥이 카드로 3,000원 주차비가 나오는 걸, 30% 할인해서 9백 원 할인받거든요. 정도가 그냥 소소하게 찾는 다둥이의 행복인 거거든요. (여성, 조☆☆)

#### 4. 다자녀 정책 강화 필요성

##### ■ 다자녀 정책 강화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

그림Ⅳ-1 | 다자녀 정책 강화 필요성



- 다자녀 정책이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공감했음
- 다자녀 지원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정책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한편, 보편적 복지보다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복지를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하였음.

##### ■ Real V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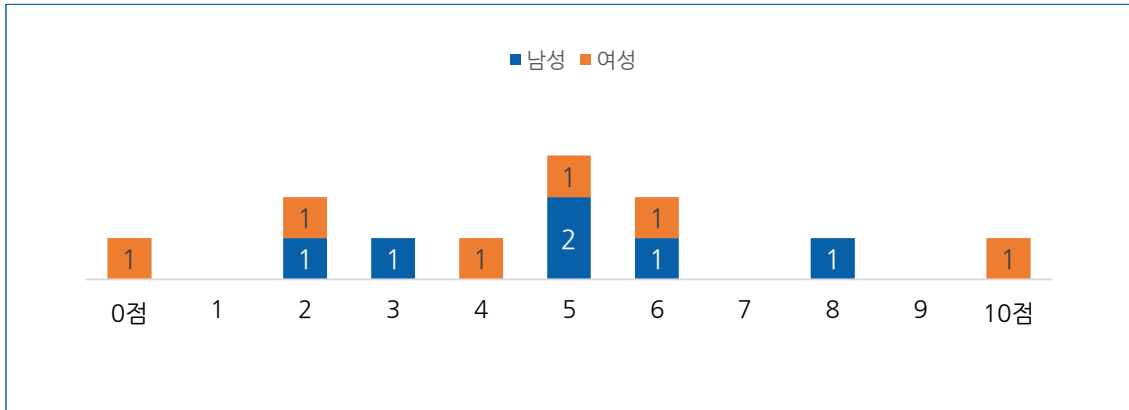
- ✓ 모든 자녀나 모든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성, 김 ■)
- ✓ 출산 장려정책을 더욱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남성, 고▲▲)
- ✓ 두 자녀 과정에 대한 복지를 현재 세 자녀 이상 정도로 좀 약간 상향 조정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남성, 김◎◎)
- ✓ 다자녀에 관한 지원을 지금처럼 몇 가지를 개발하고 거기다가 늘린다고 해서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셋 이상 낳고 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보편적으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들이 좀 늘어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최◆◆)

### 3절. 자녀수에 따른 스트레스

#### 5. 가정 내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 ■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률적으로 평가가 곤란

그림Ⅳ-2 | 자녀양육 스트레스



- 스트레스를 0점에서 10점 사이의 리커트 척도로 질문한 결과 0에서 10점까지 광범위하게 산포되어 있음
- 5점을 중심으로 4~6점까지 약간 몰리는 경향을 보임
- 스트레스의 평가는 외부적 요인보다는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했으며, 남성의 경우 아내의 스트레스를 자신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관여도를 보임.

##### ■ Real Voice

- ✓ 아이를 많이 낳아서 많이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구나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남성, 고▲▲)
- ✓ 셋째가 둘째랑 나이 텀이 적어서 연년생이다 보니까 거의 둘을 같이 키워서 그런지 셋째 낳고 제일 크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 같아요. (남성, 공○○)
- ✓ 첫째, 둘째와 막내 사이가 텀이 길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첫째, 둘째는 스스로 하는 게 많이 있어서 (남성, 이□□)
- ✓ '갈수록 좀 더 커졌다?' (남성, 고▲▲)
- ✓ 첫째 같은 경우는 멋모르고 그냥 처음이라 겪었던 과정들인데, 그렇게 3년 있다가 또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 이미 제가 알고 있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남성, 김◎)
- ✓ 애들 키우면서 스트레스 뭐 이런 건 잘... (여성, 송♣♣)

- ✓ 부담이 중간보다는 조금 더 있어서 (여성, 조☆☆)
- ✓ 매번 막 너무 스트레스다 이렇게 아니라 (여성, 이○○)
- ✓ 아무튼 스트레스나 부담으로 친다면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여성, 서□□)
- ✓ 저는 첫째가 태어났을 때 가장 힘들었는데, 뭐 (여성, 강■■■)
- ✓ 저도 강■■■님 말처럼 첫째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성, 김●●)
- ✓ 두명까지는 좋았지만 세명부터 어렵다. 저는 그래요 (여성, 서□□)



## 6. 지지자 여부

##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전업주부 어머니가 자녀는 키우는 경우 많아

- 참석자 중 다수가 전업주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녀는 양육할 수 있다는 의지가 드러남
- 단기간(1년 이내) 가까운 친척에게 돌봄을 위한 조력을 받기는 했는데, 곧 종료되었음
- 자녀 양육을 위해 퇴직 후 도우미 등 없이 자녀를 키우는 사례가 있음
- 부부 간 협력 및 상호 조력의 중요성 도출

## ■ Real Voice

- ✓ 당연히 와이프가 이제 혼자서 그냥 직장생활 하지 않고 온전히 키웠고요. 둘째는 이모님이 라고 보통 하잖아요? (남성, 김 ■)
- ✓ 와이프가 스타일이 누군가한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걸 원하지 않아서 (남성, 공○○)
- ✓ 좀 출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학교에서 등교 하는 것도 이제 병행해서 가야 돼서 그냥 저희들 안에서 다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남성, 최◆◆)
- ✓ 저희 누나 중에 한 분이죠. 가정어린이집을 하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한 1년 정도 가서 맡긴 적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았습시다. (남성, 김◎◎)
- ✓ 애는 와이프가 회사를 그만두고 오로지 양육에만 신경 쓰는 식으로 진행이 돼서 (남성, 고 ▲▲)
- ✓ 그냥 저 혼자 잘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 없어요, 지금. (여성, 서□□)
- ✓ 저도 남의 도움을 받은 적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느껴본 적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여성, 김●●)
- ✓ 저도 마찬가지로 전업주부 이기 때문에, 대신 남편이 조금 가사나... (여성, 강■)
- ✓ 저도 쌍둥이 낳았을 때 시어머님께서 첫째 둘째를 한 1년 정도, 제가 보면서. 반 정도 봐주신 것 외에는 제가 다 키웠습시다. 도움 받은 건 거의 없습시다. (여성, 송♣♣)
- ✓ 제가 큰애 여덟 살, 입학할 때 회사 그만뒀거든요. 그전까지는 도우미분이 계속 계셨는데. 그 때까지 계셨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여성, 조☆☆)

## 4절. 심리적, 정서적 지원 필요성

### 7. 심리적·정서적 스트레스 발생 성향

#### ■ 가족 내부의 관계서 발생하는 문제가 심리·정서적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 차지

- 외부 조력이나 환경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은 경우 필요의 불충족으로 오는 스트레스는 많지 않음
-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으로 교육관이나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남성과 여성 간 기질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어머니와 아들과 같이 부모-자녀 간 성별이 다른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 간 기질의 차이가 자녀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쳐 양육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이 보고됨
- 부모의 원가족(결혼 전 가족)의 관계가 결혼 후까지 여전히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여성의 경우 시부모와의 갈등이 자녀 양육을 두고 빚어지기는 하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 Real Voice

- ✓ 갈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 같은데, 자기 혼자 이제 어떻게 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는 하는데 그거를 저랑 이제 같이 얘기를 해서 합의점을 찾고 이제 풀어나가는 편이고, (남성, 공○○)
- ✓ 와이프는 며느리 입장이잖아요. 시댁하고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남성, 이□□)
- ✓ 그 다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아이가 좀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다친 적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저 아이를 전담해 주신 어머니 아버지하고 한번 좀 사이가 안 좋았던 거. (남성, 고▲▲)
- ✓ 저희 어머니의 입장에서선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본인의 방식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 제 아내도 제 방식이 있는데, 쉽게 아빠들은 이상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엄마들은 주변에 워낙 듣는 정보도 많고 엄마들끼리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현실을 모른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요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가장 큰 갈등은 교육 문제입니다. (남성, 김◎◎)
- ✓ 역시 아내랑 인 거 같아요. 제 아내하고 재는 이제 세 자매 중에 맏이고, 저는 2남 1녀 중에 둘째인데, 거의 이제 남자 중심으로 살았던 저하고 자녀들에 대한 이해방식이 완전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내가 너무 답답해 보일 때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가 보기에는 제가 너무 급진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저녁에 대화하면서 (남성, 최◆◆)
- ✓ 세 자매 중에 맏이인데,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점점 이렇게 하더

라고요. 처제들한테 제일 감사한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막 쌓아놓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남성, 최◆◆)

- ✓ 남자들 특성상 일이 좀 깔끔하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와이프가 좀 답답해하고 좀 더 빨리 알아서 좀 해 줬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좀 못했던 거 같아요. (남성, 김 ■)
- ✓ 저는 솔직히는, 누구한테 기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대거나, ‘내가 이 정도 힘든데 누가 좀 도와줘야지’라고 바래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갈등상황은 없었고요, (여성, 송♣♣)
- ✓ 봐달라고 하면 좀 그래서 그냥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제가 하는 제가 하는 선에서 거기에 테두리를 딱 정하다 보니까 별로 다른 사람과 갈등 없고 저 자신과 갈등이 있었던 거 같아요. (여성, 서□□)
- ✓ 이 아이가 나한테 있어서 혹시 다른 저희 시어머니가 가르치면 더 잘 가르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자리 빠져 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많고 해서. 그래서 계속 그런 갈등이 심했던 거 같은데 그런 거에 좀 내려놔요. 내려놓고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애들은 엄마가 필요한 거지 어떤 유능한 스킬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생각이 정리가 됐습니다. (여성, 서□□)
- ✓ 기독교 신념이 이제 다 성장 시키는 게 나의 책임이고 부모에 대한 책임이고 감당해야 될 역할이다그래서 이제 뭐 스트레스가...(여성, 김●●)
- ✓ 일 문제는 자녀하고 저하고의 부딪힘이죠. 큰 애가 이제 내년이면 중학교 입학 하는데, 아 들이고 저는 여자고, 엄마고. 서로 성격에 차이가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시작이 되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죠. 주로 남편하고 대화하면서 이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성, 이○○)
- ✓ 이제 집에 이모님이 퇴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까지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반복적으로 이제 뭐 제가 들어가고 신랑이 자꾸 뭐 늦는 시간이 자주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갈등이 생겼었고. 이제 교육 방법을 학습량 이런 것 때문에 (여성, 조☆☆)

## 8. 심리적·정서적 스트레스의 영향력 및 해소 방안

### ■ 심리적·정서적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해 자녀와 격리된 상황에서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하는 경향

- 심리적·정서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혼자만의 산책이나, 부부만의 시간 혹은 외부활동을 하는 경향을 보임
- 자녀만 배제하거나, 자녀와 배우자를 배제한 시간 및 공간을 가짐으로 일정한 휴지를 두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임
- 유튜브나 책을 통해 자녀와 발생한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도 보고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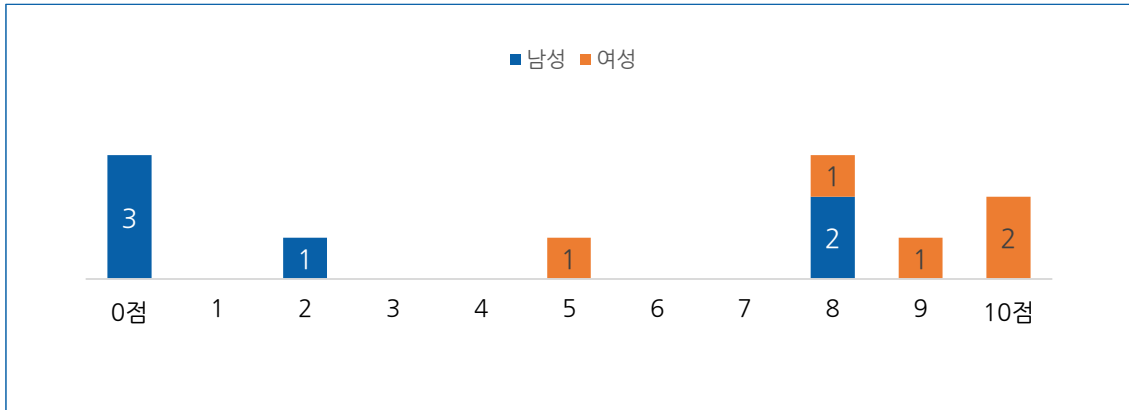
### ■ Real Voice

- ✓ 큰아이가 아들인데 엄마들이 남학생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부분들이 약간 약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사실 부부 사이에 앙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하는 거죠. (남성, 김◎◎)
- ✓ 사실 딱히 누구 하나가 이제 뭐 굽히고 사실은 제가 많이 포기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아내 입장을 들어 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딱히 뭐 이거 이렇게 하자. 합의가 정말 불가능한 거 같습니다. (남성, 김◎◎)
- ✓ 가족 여행을 간다거나, 드라이브를 간다거나 (남성, 김◎◎)
- ✓ 운동 동호회 정기적으로 (남성, 고▲▲)
- ✓ 와이프랑 같이 와이프도 술을 좋아하고 저도 (남성, 공○○)
- ✓ 저희들만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 근래에 아이들을 좀 일찍 재우고 저희도 이제 즐겨 보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 같이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죠 (남성, 이□□)
- ✓ 수다 떨고 여행 가고 그런걸로 (여성, 조☆☆)
- ✓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주장이 있는데 그게 저랑 대치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게 조금 갈등이 심해졌는데 그럴 때 또 유튜브에 보면 그런 교육이나 그런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자세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섭렵하고, 모든 상황의 아이들에게 또는 저에게 적용할 순 없지만 전문가들의 그런 말들이나 조언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성, 강■■)
- ✓ 그래서 밤에는 꼭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산책을 나가요. (여성, 김●●)

## 5절. 심리적, 정서적 지원에 대한 태도

### 9. 심리적·정서적 지원 경험 및 참여 의사 및 관심 분야

그림Ⅳ-3 | 정서적,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참가 희망



- 여성의 경우 심리적인 지원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남성의 경우 호·불호가 엇갈림
- 남녀를 막론하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경험한 경우 참여 의지가 높게 나타났음
- 부부나 가족 전체의 관계성의 문제보다는,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관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경향을 보임
- 심리적·정서적 상담 지원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특히 남성의 경우 형식적이거나 비전문적인 상담을 경험을 들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겠다는 의견을 비쳤으며, 실제로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어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방어적 태도를 보이기도 함
- 이는 공공기관에 대해 불신하는 태도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심리·정서와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을 경험이 있는 경우 참여 의사가 매우 높았음
- 남성의 경우에도 방어적 입장과는 달리 남성이 상담할 청구가 (여성에 비해) 잘 없다는 점을 들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음
- 자녀 교육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으나, 자녀들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혹은 부모교육 등으로 관심을 확장하는 경우가 있었음.

### 10. 지불의사 및 참여빈도

- 5만원 이내의 비용 지불 의사를 밝혔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 수행에 동의
- 비용에 대한 저항이 매우 크지는 않았으며, '필요'에 의해서 지출한다는 일반적인 소비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
-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이 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기꺼이 지불하려는 태도를 내비침

■ Real Voice

- ✓ 무언가 그냥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고 뭔가 얘기를 통해서 풀어주는 TV에서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도움이 무조건 될 거 같은데 (남성, 공○○)
- ✓ 왜냐하면 일단은 당장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같지는 않고요. 서울시라든가 다른 데서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아이들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을 한번 참석해본 적이 있어요. 그 상담은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가는 것보다 더 나은 정보를 얻지도 못했고 실제로 아이가 궁금해 하던 것에 대해서 답변도 없더라고요. (남성, 최◆◆)
- ✓ 사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든 상담할 창구가 그게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사회적으로 여자분들에 비해서. (남성, 김◎◎)
- ✓ 사실은 누구한테 딱히 조언을 받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다들 자기 경험한 이야기 할 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전문가분들에게 좀 이야기 듣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거 신선한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남성, 김◎◎)
- ✓ 그 공공기관에서는 상담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어요. 공무원에 대한 그런 불신? 신뢰하지 않는 그런 것들 제가 공공기관의 이름을 달고 상담했던 분들은 너무 틀에 박혀서 정형적인 얘기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남성, 고▲▲)
- ✓ 저도 회사에서도 비싼 강의와 비싼 상담을 자녀에게도 어느 분이 소개 시켜 주셔서 한 회에 한 40만 원짜리 강의도 아이 상담도 받은 적이 있고, 시립 쪽에서 하는 3만 원짜리 받은 적이 있거든요. 확실히 질이 달라요. (남성, 김 ■)
- ✓ 다가감에 형식적인 것 이라면 안 했으면 좋겠고, 전문적인 전문가가 했으면 좋겠고 그런 질적인 부분도 한 상담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5만원 미만에 (남성, 김 ■)
- ✓ 아이가 이제 확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일단 그 시간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좀 됐어요. 저도 (여성, 이○○)
- ✓ 떠나서 학교생활을 하고 공교육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예민하고 많이 까칠한 남자였거든요. 이 아이를 단회적으로 검사를 받고, 그래서 전문가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좀 큰 그림으로, 이런 성격의 아이는 어떤 교육과 어떤 양육 방식이 맞을 거라고 그런 조언을 얻어서, 제가 이제 아이를 그 이후로 키우면서, 조언을 항상 조금 많이 생각하고 적용하면서 키우려고 노력했던 생각이 나네요. (여성, 강■)
- ✓ 좀 더 전문가가 투입해서 제대로 된 검사지에 의존하는 검사가 아니라, 나는 검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거라면 그런 아이들의, 본인의 성격이나 진로 탐색에 대한 검사가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 이○○)
- ✓ 단기성으로 받아서는 심리검사가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성, 이○○)

- ✓ 성격 유형 검사나, 아이들이 어떻게 진로를 개척할 것인지, 그러니까 진로 상담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저는 10회 (여성, 김●●)
- ✓ ‘부모교육’이 아이를 낳기 전에 좀 선행되었으면. 큰일인데, 너무 물론 결혼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준비나, 공부나 그런 것들이 지식적으로나 너무 부족한 부모들이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해요. (여성, 강■■■)
- ✓ 저도 한 3만 원 정도, 한 6개월 이상은 어떤 이런 치료들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 강■■■)
- ✓ 전문가가 문제를 짚어낸 다음에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필요성이 느끼게 한 다음에 유료로 전환하면 좋지 않을까? (여성, 송♣♣)
- ✓ 원래 아이 키우는게 힘이 드는게 1명이면 2배, 2명이면 4배, 3명이면 8배 힘들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관계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늘어날수록 아이들하고 가족들 하고 1대1 관계 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애들끼리로 나이가 들면 사이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가 많아지는 관계들 안에서 그들 사이에 필요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지내보니 가족 사이에서도 문제가 뭔지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여성, 서□□)
- ✓ 성북구에서는 1회당 2만원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반드시 오프라인일 필요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1:1상담도 가능할 듯 한데... 싶네요. (여성, 서□□)

## 11. 자유 의견

- 현재의 지원정책으로는 다자녀 문제 해결하는데 부족함
- 대학생 멘토제도, 생활체육, 교육비 등 자녀 교육관련 의견이 다수 제시
- 자녀키우기 안전한 환경, 학대방지 의견
- 탄력적 근무제를 제도화 함으로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의 의견이 제시됨
  
- Real Voice
  - ✓ 좀 일원화한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책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좀 센... 그런 지원? 그런 정책을 만들고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여성, 송♣♣)
  - ✓ 대학생 멘토제도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건데 대상들과 과외형식으로 다자녀 아이들과 연결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 이○○)
  - ✓ 또 하나는 생활체육 확대, 비용 혜택 이런거요. 사실 사교육으로 시키기에는 너무 비용부담이 높을 때가 많아요.(여성, 이○○)
  - ✓ 부모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좀 좋은, 안전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방금 이야기한 학대도 그렇지만, 미디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사건이나 사고 소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성, 강■■■)
  - ✓ 그리고 지원금 이런 것도 좋지만 부모들이 맞벌이 하는 데 도움을 주게 탄력근무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 조☆☆)
  - ✓ 아무래도 (제일 부담이 되는 것이) 교육비인지라...(여성, 서□□)





# 서울시 다자녀 지원정책 확장 관련 여론조사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제3장. 전화면접조사

제4장. 표적집단면접

제5장. 전문가심층인터뷰

제6장. 결론

부록



## 1절. 심리상담가

### ■ 인터뷰 대상자

성명 : 송 영 숙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치료교육대학원 석사, 연세대학교 상담심리과정 재학 중

경력 : (현) 굿네이버스 좋은 마음센터 음악치료사

(전) 한국기독교대학교 강사

(전) 수원대학교 강사

(전) 대현초등학교 등 학부모 교육 및 교사연수 강사 경력 다수

### ■ 인터뷰 내용

#### 1. 근무하시는 곳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좋은 마음센터에서 가족상담과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악치료로 필요에 따라서 병행하고 있어요.

#### 2.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동상담과 성인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대부분이 2명 혹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들이 대다수입니다. 기업이나 구청과 연계하여 2세대를 포함하는 가족 상담 또한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담 프로그램들이 사례마다 달라서 하나로 규정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루는 가정의 사례 중에 다자녀 사례가 많은데요, 그 부분에 집중해서 몇 가지 적절한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가명) 내담자는 초등학교 \*학년으로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A의 다른 가족도 또한 상담실을 이용하고 있어서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 상담을 \*회기 진행했습니다.

A는 아버지의 가치관과 관계 패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형제들이 대부분 게임이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시간을 보내서 A 역시 게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A형과 누나는 A보다는 아래 동생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챙겨주는 분위기가 있어서, A에 대해 불쌍하게 생각하는 아버지가 A를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A의 아버지는 퇴근 후 주로 게임을 하고, 주말에는 TV시청과 낮잠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녀 간 다툼이 있으면 화를

내거나 나무라기만 하고 이 때문에 어머니 역시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집중하고 있으나,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자주 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녀들이 정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상담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듣고 생각할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주말에 낮잠과 TV시청 대신에 가족들과 산책을 시작했으며, 급격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A는 앞서 언급한 인지적인 문제가 있던 형을 무시했는데 가족상담을 통해서 형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형을 배려하는 태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A는 부모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며 자신의 나쁜 습관에 대해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또한 자녀에 대한 이해가 생긴 후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심리적으로 지쳐있던 모습이 사라졌고, 부부간에는 우호감이 생겼습니다. 부부가 자녀를 훈육하는 방식도 문제행동을 지적하기보다는 공감하는 대화로 관계의 개선을 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담 후 가족회의를 만들어 스마트폰에 대한 규칙을 세우기도 했는데, 이런 것은 그동안 무시 되었던 가족 기능을 되찾아 가는 바람직한 모습이었습니다.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가족이 많으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이 많아서 상담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런 사례들이 많나요? 다른 유사한 사례는 없으셨습니까?

비슷한 사례로 B(가명) 내담자의 가정이 있습니다. \*학년 남학생인 B는 산만한 초등학교 \*학년 동생과 중학교 \*학년인 형 사이의 끼인 상태였습니다. B는 신경질적이었고 또래관계를 어려워했는데 초기 진단을 통해 가족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B라는 자녀의 문제로 인해 시작되었으나,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B 부모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많아 이혼위기에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심리적인 과기능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으며, 아버지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성향이 강하고 공감능력이 약해 부부와 자녀 간 친밀함이 약했습니다. 특별히 상담 초기에는 B와 형은 진지함을 회피하며 현재의 감정에 머무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결국, B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상담이 거듭되면서 B와 형은 내면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풀어내기 시작했으며,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부도 단절된 정서가 회복되어 서로의 아픔을 수용하는 모습까지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좋은 아빠가 되

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하거나 책을 읽고 적용하려는 실제적인 아버지의 노력은 부부의 변화에 이어서 자녀들과의 변화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경질적이었던 B는 가족상담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대화를 접한 이후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이해했고 감정을 자기 조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감정의 정리가 되자 어머니는 가족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감소했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만약 B에 대한 \*\*치료만 진행했다면 장기적인 개선을 끌어내지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케이스로 C(가명)내담자는 충동성이 강하고 자극적인 언어사용이 문제인 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자녀를 양육하면서 소위 독박육아로 인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C에 대해서 지시적이고 통제하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C의 행동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훈육이 되지 않아 부모로서의 권위를 잃고 있었습니다. C는 가정에서 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폭력적 동영상을 접하며 욕을 익혀가고 있었으며, 게임도 장시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C는 상담실에 와서도 산만하게 돌아다니며 활동에 집중하는 시간이 같은 연령대의 아동보다 매우 짧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상담을 통해서 C는 집중력이 늘어났으며 자극적인 언어사용의 횟수를 줄여갔습니다. 산만한 행동과 충동성 행동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있을 때 통제의 가능성을 보였으며,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도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머니를 무시하는 태도가 강하게 드러났으며, 어머니는 C를 다스릴 수 있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매 회기마다 어머니에게 상담을 통해서 훈육 코칭을 하며 가정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숙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어머니는 C의 ‘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C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세가 약했습니다. C의 행동에 대해서 바로 통제하며 수정하려는 태도가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성취감을 부여하기 위해 ‘반영기법’을 시도하는 접근을 반복했습니다. C는 어머니가 반영을 해주면 수용적인 모습도 보이고, 과제에 집중하는 태도도 보이면서 활동에 대해 상당한 상호작용을 만들어 냈습니다.

상담 회기가 진행되며 밝혀진 바로는 어머니가 우울감을 경험하는 이유는 자녀 양육 외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남편과의 갈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개인상담도 병행하면서 원가족(family of origin, 자신이 태어난 가족) 가족상담과 해결중심상담 기법을 통해서 단시간 안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긍정적 정서를 고양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3. 상담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 같습니다. 인터뷰 초에 사례마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다자녀 가정이 주로 호소하는 문제의 유형이 있지 않을까요?**

개인 아동의 경우는 자존감이 낮아서 사회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많이 알려진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진단을 받고 집중력의 문제와 충동성으로 자기조절이 어려운 아동이 많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춘기로 인한 감정 기복과 가정에서 부모와의 갈등 및 또래 관계의 어려움으로 센터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주로 다자녀 부모님은 양육 스트레스를 주문제로 호소하는데, 자신의 자녀들 간의 갈등이나 부모와 자녀들의 갈등이 주문제로 나타납니다. 부부 문제로 위기의 상황에 있는 경우와 우울증을 호소하는 내담자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비단 다자녀 가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은 더 뚜렷한 경향을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4. 다자녀 가정이 주로 겪는 심리적·정서적 갈등이나 취약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자녀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로 인한 기쁨과 행복함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각각의 자녀들 개인에게 마다 만족스러운 사랑이나 관심, 돌보는 시간을 나누어 줄 수 없다는 현실로 인해 미안한 마음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자녀들은 각자가 고유한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숫자보다는 ‘각 자녀의 고유한 성향의 차이’로 양육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 자녀를 모두 맞추려다 보니 특히 다자녀 가정의 어머니들의 경우 과기능(過機能)으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자녀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양육에 할애하는 절대적 시간이 많아서 재충전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피로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낮은 만족도 이어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경험하면서 자녀들과 남편과 감정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패턴이 많습니다.

남편의 경우는 경제적 부담과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아내와 갈등을 경험하고 소통의 기회가 부족하여 부부간의 심리적 갈등이 극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들은 사회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충전 받아야 할 필요가 어느 정도 있는데, 다자녀 가정에서는 앞 사례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충전의 기회를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

다.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많을수록 부부 소통의 기회와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버지의 심리적 긴장과 위축도 상담이 필요한 문제의 요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형제나 자매와의 의사소통의 문제나, 아니면 부모님과 의사소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는 심리적으로 자녀들을 위축시키고, 위축된 심리는 부적절한 분노 표출을 만들어,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만들어 냅니다.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와의 갈등이 해소될 여지가 없으니 화가 쌓이고 이것을 매끄럽게 표출할 수 없으니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데 아동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또래 관계에서도 소외당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 때문에 특별히 다자녀들의 형제간 갈등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가고 수용하게 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관계하는 방법과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는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서 정서적 단절까지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쌓인 부모님의 권위주의적인 억압과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통해 자녀들이 받은 심리적 억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래 관계에서 부정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 5. 앞서 말씀해주신 다자녀 가정의 심리적·정서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이나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자녀 가정에서 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첫 번째는 자녀 간에 갈등 관계와 부모님들이 사랑과 관심이 골고루 자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제약성과 한계 때문입니다. ‘관계에 대한 욕구 해결을 위해 가족상담이 필요’한 것이지요. 개인 상담은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가지고 접근하지만, 가족상담은 ‘체계’라는 관점에서 한 사람의 변화는 결국 다른 가족 구성원의 반응을 자극해 좋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 처음부터 다자녀 가족에 대한 상담의 초점을 가족 상담에 맞추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녀 간 갈등은 가족상담을 통해서 다른 형제의 생각과 감정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부모님들이 자녀 각각의 성향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게 지지자로 접근할 기회나 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자녀들은 ‘일상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가 형제·자매에게 대물림되기 때문에 가족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가 학업에 흥미가 없고 게임에 심취해 있으면 아래 동생들도 게임과 인터넷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정

적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부모님을 비롯해 손위 형제들로부터 이어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상담 보다는 가족상담을 통해서 증독현상의 원인을 고찰하고 서로가 바라는 욕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구심점을 찾아가고 갈등관계에서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표출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감정표현에 대한 훈련을 형제가 같이 받는 경우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자녀의 가정은 주(主)양육자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심리·정서적인 지원 가운데 ‘부부상담이 중요’합니다. 다자녀를 둔 부부의 아내는 ‘독박육아’를 하며 많은 우울감을 호소하는데, 일터에서 지친 남편은 집에 와서 쉬고 싶은 욕구가 커 부부간의 갈등이 파생됩니다. 자녀들이 주는 기쁨과 행복감도 있지만, 경제적 부담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부부간의 심리적 거리를 키우고 긍정적 정서 교류의 단절마저 만들어 냅니다.

상담실에 오는 다자녀 가정의 부부 중 이혼하고 싶지만, 자녀 때문에 그냥 버티는 식으로 인연을 유지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가족상담 중 부부상담을 통해서 부부간의 긍정적인 정서를 회복하며 서로에 대한 우호감을 다시 키워나가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부상담은 부모들이 자녀들과 잠시 분리되어 오로지 자신과 부부의 관계에만 집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녀에 대한 이해관계의 폭도 넓어지는 효과도 있고, 부부가 자녀 교육의 ‘협력자’로 거듭나게 된다면 어느 한 사람만의 과기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자녀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많음으로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다른 가족보다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복잡성만을 놓고 보더라도 부부만 있는 경우 관계는 ‘남편-아내’ 이렇게 1가지에 불과하지만, 3인 가족의 경우 4가지로 늘어가고, 5인 가정의 경우 26가지 조합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다자녀 가정은 건강하고 균형 있는 의사소통의 부재는 비일비재합니다.

가족상담에서 사람들이 긴장했을 때 보이는 대처방식과 의사소통 유형을 분류한 ‘사티어의 경험주의’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의사소통 유형을 ‘비난형’, ‘회유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평가지도 있는데,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족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매우 많은 가족에서 극단적인 형태가 나타나곤 합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도, 일반적 개인상담과 달리, 가족 전체가 참가하는 활동이 효과적입니다. 가령 자신의 위치와 관계를 몸으로 표현하는 ‘조각활동(Family Sculpting)’의 경우는 가족과의 관계를



말이 아닌 직관적으로 직시하는 기회가 되어서 각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합니다. 이런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치료방법은 가족치료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다자녀 가정은 구조적으로 전체 가족체계 중에서 ‘부부’ 하위체계와 ‘부모-자녀’ 하위체계, ‘형제 간’ 하위체계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자의 역할과 질서가 무너진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가족의 체계가 바르게 기능하도록 하며, 특별히 모든 체계에 바른 경계선과 권위를 세워가는 상담의 기능이 중요하다.

**6. 가정 안에서 경제적 문제가 중요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심리·정서적 상담 프로그램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가정에 큰 문제를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요인이 문제인지 심리적인 요인이 우선인지는 조금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변수가 스트레스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본인의 스트레스 상황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딱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이 없어서 무기력해지기도 하지만 무기력한 구직자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긍정하고 에너지를 북돋기 위해서는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보다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수년 전부터 구직대상자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가정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인 만큼 부모가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내면에 의지와 원동력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심리체계가 불안정하면 무기력과 우울감을 기본으로 다양한 부정적 감정이 드러나는데, 이는 일터에서의 경제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불러옵니다. 연예인도 공황장애와 같은 이유로 활동을 못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일반 가정에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동시에 부모가 느끼는 우울감은 주변 가족에게 반드시 스트레스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 심리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7.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천할만한 프로그램이나 기법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하시는 상담 프로그램 예시를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단기해결중심 가족상담’을 추천합니다. 단기해결중심 가족상담은 개인의 강점을 중심으로 상담으로 진행한다. 방식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단기로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적인 부분에서 다른 상담기법에 비해서 부담이 덜한 측면에 이 있습니다.

둘째, 다자녀 가정은 대부분 의사소통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사티어의 경험주의 가족상담’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과 상대방의 의사소통 유형을 알아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가족들 안에서 감정적 대립이나 갈등은 말로만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조각’은 관계규정을 시각화해 묘사하므로 가족구조를 사실적으로 인정하며 지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조각은 가족들의 위계질서와 연합, 거리감, 친밀감,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과 상호작용을 직접 느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활동 자체만으로 직·간접적인 치료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부의 관계나 부모가 자녀와 관계하는 패턴은,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원가족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심리적 기반이 영향을 줍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한 가족의 부모님도 자신이 자녀였을 때의 그 부모님,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받은 심리적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웬’이라는 학자의 ‘다세대 가족상담’은, 개인주의적 접근과는 달리,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았는데, 한 개인을 가족이라는 전체 체계의 한 부분으로 보고 이 가족은 하나의 정서적인 단위로 보았습니다. 한 가구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해 살아있거나 죽은 모든 가족원 또는 집에 같이 살거나 떨어져 살거나 상관없이 계속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부모들이 자신이 자녀였을 때 부모로 받은 정서적 문제나, 인지적으로 분화가 안 된 문제들이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는데도 반복하는 패턴으로 나타나서 가족의 갈등을 유발하게 합니다.

또한, 가족 안에서 삼각관계가 발생하는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웬은 가족 안에서 두 사람 관계체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상충하는 욕구가 있을 때 균형을 유지하려고 삼각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갈등 관계인 두 사람 간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가족의 다른 구성원을 두 사람의 상호작용체계로 끌어들여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들 대 엄마를 개입시키려 하는 것이 가장 발견하기 쉬운 사례일 것 같습니다. 이런 가족 내부의 정서체계와 삼각관계를 탐색하면서 세대 간에 전수되고 있는 특징들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일수록 관계의 수가 늘어나는데, 역기능적인 가족의 모습에서 건강한 기능의 가족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형식의 ‘다세대 가족상담’의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심리치료의 방법론적 측면으로 다자녀 가정에는 매체를 활용한 가족상담이 효과적

일 것 같습니다. 말이 아닌 감각이나 인지를 자극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나이의 여러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 아이들 수준에서의 집중력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매체를 접목한 가족상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버지들 즉 성인 남성들은 상담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부정적 편견을 가지신 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음악, 미술, 놀이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정서적인 이완을 시작으로 접근하면 상담에 임하는 자세가 이전보다 편안해지고 안정적입니다. 아버지가 첫 회기에서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계속 우선순위를 두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8. 그렇다면 지금 다자녀 가족 상담을 위해 활용하시는 프로그램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매체를 활용한 가족상담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을 하나 설명하자면, 우선, 부모님과 자녀들의 긴장과 경직성을 허물기 위해 자녀들이 선호하는 보드게임을 시작으로 상담의 문을 엽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스브레이킹 혹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드게임 안에서 가족의 역동성을 볼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 간에 지지자 관계나 ‘소외된 구성원’ 등을 관찰할 수 있으며, 재미와 흥미를 통해서 가족이 하나 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술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며 가족 구성원들의 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풀어냅니다. 때로는 협동과제를 해결해 가면서 갈등 관계에 있던 가족구성원이 친밀감을 회복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세 번째는 음악인데, 즉흥연주를 통해서 서로의 연주패턴을 모방하며 상대방과 마음의 거리를 좁혀갑니다. 가족 안에서 주도성을 쥐고 있던 인물이 음악 활동 안에서도 역할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음악연주를 통해 협력자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수동적이고 정적이었던 가족도 연주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경험을 극대화합니다. 이런 활동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구두 상담프로그램 만으로는 이끌어 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구조화된 음악연주를 진행하면서 가족들의 응집력을 강화합니다. 연주의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개인과 전체 구성원들의 협동과 성취감이 고조되고 응집력이 발달하게 된다. 서로를 인정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사용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개인의 에너지를 발산하며 각자의 창의성을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가령 ‘모방’과 같은 활동은 서로의 생각과 느낌

을 상상이 아닌 체험할 수 기회를 주고 구성원 간 친밀함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내담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변형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활동 프로그램 안(案)을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표 V-1 | 다자녀가족 심리치료프로그램 예시

| 프로그램명 | 가족 소통 및 힐링 프로그램  |
|-------|--|
| 대상    | • 가족 집단  |
| 활동날짜  | • **월**일 ~ **월**일  |
| 활동목표  | • 1) 매체를 활용한 가족체계에 대한 이해를 경험할 수 있다.<br>• 2)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
| 주제    | • 정서적 지지체계 강화  |

회기별 세부 지도 계획

| 회기 | 내용   | 준비물   |
|----|--|---|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드게임 : 자녀들의 나이와 가족의 응집력을 고려하여 가족의 상황에 맞게 보드게임을 선택하여 진행하면서 가족상담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제공한다.</li> <li>• 난화 활동 : 각자 8절지에 낙서를 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낙서 안에서 의미 있는 형상을 찾아서 그림으로 표현한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낙서에 집중하여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표현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li> <li>• 사랑의 지도(가트먼의 부부상담) : 부부의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서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활동을 한다. 부부에게 서로의 강점 30-50개를 찾아오는 과제를 제공한다.</li> <li>• 즉흥연주 : 가족 구성원이 선호하는 악기를 선택하여 즉흥연주를 진행하면서 가족의 역동을 관찰한다. 가족의 구조와 영향력을 볼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이 즉흥연주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일체감을 경험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드게임</li> <li>• 8절지</li> <li>• 파스텔</li> <li>• 색연필</li> <li>• 연필</li> <li>• 지우개</li> <li>• 타악기</li> <li>• 톤차임</li> <li>• 공명실로폰</li> </ul>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드게임 : 가족 구성원들이 합의하에 벌칙을 정하고 게임 안에서 서로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경험하도록 한다.</li> <li>• KDF 가족화 그리기 : 가족화 그리기를 통해서 평소 가족원들의 위치 및 활동을 탐색하도록 한다. 가족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을 이끌어 내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알아간다. 가족화를 통해서 가족의 기능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며 해결중심적인 대안을 만들어 간다.</li> <li>• 악기연주 구조화 : 톤차임과 공명 실로폰으로 한 곡의 음악을 연주하는 경험을 한다. 가족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의 역할을 정하고 관계의 조율을 경험한다. 연주 과정을 통한 성취감을 경험한다.</li> </ul>  |   |

## 회기별 세부 지도 계획

| 회기 | 내용   | 준비물  |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드게임과 mirroring : 동근 원을 만들어서 음악에 맞추어 동작을 만들어 내면서 모방활동을 한다. 동작을 만들어 내는 가족원에게 나머지 가족원들은 집중하여 마음을 읽어 내는 경험을 한다. 보드게임에 앞서 벌칙을 먼저 정하고 게임이 끝난 후에 게임에서 이기 사람과 진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벌칙을 지킨다.</li> <li>• 가족 figure 이미지 찾기 : 자신에 대한 특징과 이미지를 생각하여 피규어를 찾고, 가족 구성원들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피규어를 찾아서 서로에 대한 생각을 교류한다. 피규어를 통해서 가족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쉽게 전달할 수 있으며, 피규어의 거리와 위치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체계와 거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이다. 서로에 대해서 강점을 칭찬하며 문제가 아닌 해결중심적인 접근으로 진행한다. 피규어의 배치는 내담자의 선택에 따라서 재구성되어 이상적인 가족을 만들게 된다.</li> <li>• 타악기 즉흥연주 : 내담자를 중심으로 악기 즉흥연주를 시작하여 연주 안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는 연주 패턴을 만들어 간다. 갈등 관계에 있는 가족원들이 동일한 악기를 가지고 즉흥연주를 하면서 감정적인 순환을 경험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드게임</li> <li>• 전지</li> <li>• 파스텔</li> <li>• 색연필</li> <li>• 연필</li> <li>• 지우개</li> <li>• 타악기</li> <li>• figure</li> </ul> |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과 동작 : 가족의 응집력을 위한 활동으로 음악 템포의 변화에 맞추어서 하나의 동작을 만들어 낸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도우며 동작을 만들어가며 음악에 맞게 동작으로 표현해 간다.</li> <li>• 작사, 작곡 : 가족들이 합의하여 주제를 정하고 작사를 만들어 간다. 가족들이 작곡을 할 때는 역할을 정하여 실로폰으로 음정을 연주해 주는 사람과 음정을 만드는 사람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작곡을 완성해 간다.</li> <li>• 가족 구성원들의 강점을 이야기 하며 서로를 칭찬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반악기</li> <li>• 보드판</li> <li>• 실로폰</li> </ul>   |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 감상과 이미지 활동 : “가족”이란 주제의 음악을 감상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한다. 떠오른 이미지를 가족 구성원들이 이야기로 연결해 가거나 그림으로 연결해 가도록 한다. 이는 각자가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풀어내는 기회가 되어서 서로가 원하는 가족상에 대한 하나의 공통분모를 찾게 됨으로 가족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li> <li>• 재활용 상자를 이용한 다리 만들기 : 가족 구성원이 모두가 협력하여 다리를 만드는 작업이다. 소외되거나 주도적이고 강압적인 위치가 없이 가족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역동성을 경험하며 서로에 대한 다른 시각을 경험하도록 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반악기</li> <li>• 재활용 상자들</li> <li>• CDP</li> </ul>   |

회기별 세부 지도 계획

| 회기 | 내용   | 준비물  |
|----|--|--|
|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붐웨이크어 연주 : 구조화된 연주를 통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다림과 성취감을 경험하게 한다. 반면 비구조화의 연주를 통해서 각자의 느낌을 연결해 가면서 연주의 완성도를 높여 가고, 악기 연주의 과정을 통해서 억압된 감정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li> <li>• 음악극 연주하기 : 음악극의 노래, 대사, 악기 연주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 속에서 각자의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생각을 알아간다. 서로에 대한 다름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가족들의 긍정적인 정서가 강화된다. 전체적인 연주가 완성됨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서로에게 역할에 대한 칭찬을 언급하면서 자신감을 심어준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반악기</li> <li>• 타악기</li> <li>• 붐웨이크어</li> </ul> |

9. 심리·상담이라고 하면 편한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역동적인 활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에 관해 더 나눠주실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프로그램, 정책, 재정, 필요성 등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일선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리이러한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가정의 가장 작은 단위는 '부부'입니다. 가정의 기능과 가족 전체 구성원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부부의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다자녀 가정의 부부에게 '상담 쿠폰' 같은 것이 제공된다면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3회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대부분의 지출을 교육비 등으로 자녀를 위해 사용합니다. 부모님 자신을 위한 지출은 보통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의 건강관리와 취미생활을 통해서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스포츠센터 및 평생교육원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경제적인 문제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다자녀 가정 중에서도 저소득층, 비정규직 혹은 저임금으로 가족의 생계에 불안함을 느끼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자녀 가정의 가장들이 정규직 혹은 가정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일터가 확보될 수 있는 정책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확실한 일자리는 개인의 생계를 넘어 미래 사회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자녀 교육비 역시 부모님들의 큰 부담감입니다. 부모의 교육열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이 배움의 욕구가 있을 때, 경제적인 한계로 인해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선택지만 있을뿐더러 투입되는 비용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자녀 교육비를 단순히 구에서 운영하는 공적인 센터 같은 곳의 할인을 넘어서 지역의 학원이나 이런 곳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절. 심리상담프로그램기획자

### ■ 인터뷰 대상자

성명 : 최 현 영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경력 : (현) 부스리기사랑나눔회 후원홍보팀 선임팀장

(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서비스기획팀 근무

(전) 이화여자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가족복지·사례관리·서비스팀 팀장

(전) 서대문 민-관협력 사례관리 위원

(전) 서울특별시 다문화특성화프로그램 위촉컨설턴트

(전) 푸른청소년쉼터 및 덕일중학교, 가출청소년 상담사 및 징계청소년 위촉상담사

### ■ 인터뷰 내용

#### 1. 구체적인 인터뷰에 앞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업무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현재 부스리기사랑나눔회(이하, 나눔회)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후원·홍보·기금마련 등의 운영을 총괄하는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나눔회에서 운영하는 아동가족상담연구소의 여러 가지 업무 중 온라인상담 업무신설을 총괄하고 있고, 파일럿 사업의 일환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집단 부모교실도 준비 중입니다.

#### 2. 나눔회에서 근무하시기 전에도 관련 경력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햇수로는 12년정도 공공기관 산하의 전문상담센터를 운영에 관해 왔습니다. 센터에서 위기부부상담이나 부모교육 등을 다수 진행했습니다. 일반 상담뿐 아니라 전체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위기가정, 경력단절여성가정 등 다양한 상황의 가족들을 많이 만나왔는데요, 이들의 필요나 욕구나 필요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왔습니다. 상담의 형태도 개별상담이나 가족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진행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3.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맞춤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기관에서 다양한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 진행을 다 할 수 있나요? 한 기관에서 총괄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상담을 한 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죠. 다른 기관이나 센터 등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상담프로그램을 기획하려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런 점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내담자나 가정에 대해 한 기관에서 상담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별가족 상담을 통해 인트로(도입)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각 가족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던지, 양육에 대한 어려움, 자립의 필요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규명해냅니다. 그 후에 필요에 따라서 관내나 혹은 유관기관의 프로그램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담자에게 필요한 상담프로그램을 신규개설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제가 기획했거나 제공한 프로그램을 몇 가지 들자면 한부모 자조모임 내 봉사활동,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 가족 양육 지원 및 남한사회 적응·자립 집단 프로그램, 조손(祖孫)가족 자립 강화 프로그램, 초등자녀 부모교실, ADHD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의학교실 등이 있습니다.

**4.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심리상담과는 좀 결이 다른 구체적이고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있으셨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우선 ‘한부모 여성가장의 원예활동을 활용한 심리정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 이야기해 드리고 싶네요. 한부모 가족은 주로 여성이 혼자 자녀들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많이 느끼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여성 가장과 그 자녀들이 함께 가드닝을 소재로 해서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전문적인 정서치료도 진행하면서 참가자가 함께 서로의 상처를 아올려 주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었어요. 3월부터 11월까지 20회에 걸쳐서 거의 한해 내내 진행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그램 특성상 일정이 꽤 길었는데도 80% 정도를 끝까지 참석했어요. 좀 특수한 프로그램이다 보니 폐쇄적으로 운영했는데요, 참여자 선정할 때도 개별 면담을 통해 참여자로 선정된 후에 참

여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인은 참여하거나 참관하는 것이 불가능했고요…; 대신 참가비는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자신의 모습 돌아보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및 스트레스에 대한 정보공유’, ‘따뜻한 말과 상처 싸매기’, ‘미래 조망하기’ 같은 세부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자녀 가정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다룬다거나 힘든 환경에 처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부분들은 다자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참고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 스트레스 관리하니까 생각나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사실 미성년자를 키우는 사람이 부모인 가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신의 손자, 손녀를 키우는 조손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손가정은, 예상이 가능하시겠지만, 손자녀의 양육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조손가정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참여해서 자립역량도 강화하고 주도적으로 자기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원예 프로그램처럼 폐쇄적으로 운영했고, 참가비는 없었습니다. 조부모님을 대상으로 양육훈련 프로그램 운영했고 더불어서 스트레스 관리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대 간 공감을 위해서 다양한 소통방법을 도입해서 운영하기도 했었네요. 우선 생각나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5. 상담 프로그램에 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없게 하는 방해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금전적인 측면이나 프로그램의 인지도가 제일 큰 변수일 듯한데 그런가요? 다른 구조적이거나 체계적인 방해 요인은 없나요?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접근을 막는 장벽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말씀하신 요소 포함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요. 각 가정마다 사유는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자녀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해 요인은 ‘홍보의 영향’ 인 것 같습니다.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외출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특히 어머니들이 밖으로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 실제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실제 홍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맘카페로 대표되는 온라인 채널이나 지인들의 커뮤니티 속에서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프로그램이 이미 시작해 진행되는 도중에 접하는 경우가 많아 참여기회를 잡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실 프로그램 인지도는 홍보 여부와 특히 바이럴 홍보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편입니다.

지인들끼리 서로 알려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유관기관의 실무자 혹은 관련 교육기관에서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한 참여자들을 추천해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무척 효율적입니다.

다음으로 ‘자녀돌봄 자체에 대한 어려움’ 때문입니다.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정보 습득을 위해서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테 실제로 자녀를 맡길 곳이 없거나, 자녀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다 보니 참석하려고 했다가 그런 이유로 포기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둘 곳이 없어서 오기 힘든 경우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변인이 참여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시어머니나 남편 등 주변 가족 구성원의 방해나 반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로 도움이 되는 순기능을 기대하기보다는 ‘참여하다 보면 괜히 엉뚱한 정보만 알게 된다.’며 참여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상으로 남편의 반대보다는 보통 시어머니 혹은 시누이들이 반대가 심한 편이었습니다. 좀 더 심각한 사례로 다자녀를 둔 이주여성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할 때, 그 시간 동안 자신들의 가사노동이 늘어나거나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을 꺼려서 참여를 심하게 반대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시간이나 장소’가 진입장벽으로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역할 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다자녀를 둔 가정 중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토요일까지도 근무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시간을 주말로 지정하더라도 참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근무뿐 아니라 다른 개인적 사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개인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서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중에도 동시간에 개최하는 지역사회 행사나 다른 흥미를 끄는 프로그램이 본 프로그램 참석률을 떨어트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요소는 ‘참여자 특성’입니다. 기왕의 프로그램 참여자 중 일부는 참여자 간 갈등 관계로 인해 탈락합니다. 참여자들은 대체로 잘 지내기도 하였으나 갈등의 소지는 항상 있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거나 본인 발언 시간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 발언에 방해받는 경우가 그런 사례입니다. 대화 중에 서로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식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가 불편해지면 다음 회기부터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여자의 내부적 요소 외에, 언급하셨던 것과 같이 금전적인 유인도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유료인지 무료인지에 따라서 참여 여부가 많이 갈립니다. 비단 저소득 가정이 아닌 경우도 유료참여를 꺼립니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 시 외부

지원사업을 많이 활용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지자체의 특성화 프로그램, 성평등기금 등을 활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상담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었을 때, 저소득 가정은 무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소득기준'에 따라 유·무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도 기준충족이 되지 않아 참여 의사를 가진 분들의 참여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바우처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지 묻는 분들도 있었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의 무료지원 사업으로 활동하였기에 문의하신 분이 참여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제한 사항이 있는 것이죠.

#### 6. 보건복지부 바우처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더불어 정부나 지자체에서 심리상담의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유사한 제도로 보건복지부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활용해 부모 교육 정도만 참여 가능하며 집단활동 등은 사용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지자체 특성화 프로그램 혹은 성평등기금 등을 활용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해 참가자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나 실제로 지원되는 비용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활용도가 다소 낮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가구의 소득 기준을 따라 참가자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자녀 양육 어려움을 가진 가정이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됩니다. 다자녀 가정도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는 매우 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자녀 가정이나 부모만을 위한 지원제도는 실제로 발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7. 지금까지 기획하신 프로그램 중 다자녀를 가진 부모 혹은 다자녀 가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만약 없었다면 가장 관련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다자녀 가정만으로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제가 했던 것 중 가장 유사한 것으로 '다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주여성 양육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주여성 중에서도 특히 자

녀가 2~3명인 다자녀인 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 했었습니다. 사전 검사를 통해 필요욕구를 검토하고 참여여부를 선정했었습니다. 격주 토요일로 매월 2회기 총 16회기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총 15명 정도였는데 참석률은 60%정도였습니다. 그다지 높은 참석률은 아니지요. 프로그램에는 자녀 양육훈련 및 자녀와 소통하는 법, 다자녀 다루기 등의 상담·훈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녀 양육 기초, 자녀 다루기,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 배우기, 형제·자녀에 따른 특성 알기, 자녀끼리의 건강한 소통법 배우기,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행동하는 엄마 되기, 남편과 협업하기 등 다자녀에 양육에 꼭 필요한 방법론을 다루었습니다.

실질적인 프로그램 진행은 초기 4~5회기 에서는 부모교육, 역할훈련의 한가지로 이주 여성과 한국인 배우자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6~10회기는 자녀와 부모가 소통하는 방법을 훈련했는데 언어나 의사 및 감정 전달에 대해서 훈련했습니다. 11~16회기에는 가족이 함께 피크닉이나 미니올림픽 등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관계를 맺고 서로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역할 나눔에 대해 학습하고 훈련했습니다.

가족의 역동을 활용하여 심리·정서 및 역할훈련을 아울러 다루면서 다자녀 양육 어려움에 대한 체계적 접근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도모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8. 좀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이런 심리·상담 프로그램에서 자녀의 연령대와 성별이 프로그램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이런 요소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단활동에서 자녀 연령대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별이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참여 가족 중 다자녀 중 첫째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참여자들의 욕구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였습니다. 첫째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양육자들은 양육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또한 관련 프로그램 참여 욕구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녀의 가사 도움, 동생 돌봄이 양육자들의 양육 어려움이 경감시키거나, 나아가 자녀 학습지도까지 도움을 받는다고 개별 면담시간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경우 더 참여 의지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정보공유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는 방식 혹은 다자녀의 자녀들 사이의 갈등 중재 등에 대한 역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양육 관련 프로

그램에 대한 참여 욕구가 높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미 청소년기에 접어든 경우는 자녀와 큰 갈등이 없는 한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높지는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어 했는데, 청소년기 자녀와 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성별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프로그램 참여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 자녀가 아들만 있는 경우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이것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거나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성별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앞두고거나 초등학교 고학년인, 청소년 전기 자녀를 둔 양육자들이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매우 높았고, 이들은 자녀가 청소년기에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역할훈련을 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 9. 심리상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셨는데, 이를 다자녀 가족이나 다자녀를 가진 부모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자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정책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자녀 가족이기 때문에 무작정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로 이겠지만, 남·오용 우려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정작 상담에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족이라 하더라도 심리검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검사를 거쳐서 양육 스트레스 혹은 기타 상담이 필요한 증빙이 갖춘 후 이것을 근거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과연 다자녀가족만을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다자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족까지 확대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상담 바우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부모교육지원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이면서 동시에 저소득층인 경우에 지원받기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진단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자녀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경제적으로 다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추가적인 요소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자녀 가족에게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적 지원일 것인지 아니면 다자녀 가정이면 모두 지원할 것인지 여부일 것 같습니다. 지원에 있어서 경제적 수준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은데, 다자녀 가정이 경우 경우 맞벌이를 해서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중위 수준 혹은 중상위 수준일 수 있습니다. 중상위라도 심리적으로 힘든 것은 마찬가지일 듯 합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한가지 기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다자녀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상담뿐 아니라 돌봄도 시급한 경우가 많은데, 이미 기존의 여성가족부 돌봄과 보건복지부 상담지원정책과 겹칠 가능성도 있어서 기존의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적, 정서적 지원정책을 마련한다면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론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을 좀 어렵고요, 다자녀 가정의 어려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돌봄의 취약성’,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이러한 어려움이 꼭 다자녀 가정이 아니라도 어려운 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령 미혼모, 한부모, 조손가정이나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있는데 차별적으로 왜 ‘꼭 다자녀 가정에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이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미 자녀의 수에 따라 지원정책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리상담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비단 이 문제는 자녀를 포함하는 가정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상대적으로 다자녀 가구가 아닌 가정, 다시 말해 노년가구, 1인가구, 동거가구 등에서도 심리·정서적 어려움은 많은데, 왜 꼭 가족으로 구분 지어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양육 어려움, 소통 어려움, 갈등관계, 부모역할 취약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다자녀 가정이 아니어도 심리·정서 지원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에서도 마련되어 진행되고 있다 보니, 별도의 다자녀가구 서비스가 설득력을 보여줄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론보다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이미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11. 만약 정부의 지원을 받아 다자녀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다자녀 프로그램 기획 제안을 위해서는, 다자녀이면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관한 요소 뿐 아니라, 자녀의 학교적응 어려움, 가족 간 갈등관계, 문제해결이 필요한 가족 등의 요소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자 모집 후 개별 면담을 통하여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집단활동에 적합한지 판정을 한 뒤, 이들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육자’, ‘자녀’, ‘양육자 및 자녀’ 등으로 구분하여 단위 세부 사업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집단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가진단, 성찰,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 지식, 기술 습득 및 훈련 등이 포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정 내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원개발 예를 들어 ‘지역사회 필요한 정보 찾기’, ‘활동하기’, ‘모임 참석’ 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상담 프로그램 내 개별가족일지, 집단가족일지를 결정하고, 이들의 참석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서, 활동에 대한 약속 등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들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 활동에 대한 성찰, 집단원의 도움 등으로 각 가정이 호소하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어려움이 심각한 가정은 개별가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이들이 지닌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함께 찾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 12.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에 관해 더 나눠주실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요. 프로그램, 정책, 재정, 필요성 등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서 필요한 것이 심리·정서 지원이기도 하겠지만, 맞벌이 가정의 탄력근무의 제도적 보장, 기존에 지원받는 것 외에도 다자녀 특혜의 추가적 지원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정서 지원정책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양육자와 자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기획되고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맡길 곳이 없거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고 나아가 참여로 인해 다른 자녀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절. 심리상담 학자

#### ■ 인터뷰 대상자

성명 : 조 성 봉

학력 : Florida State Univ. 결혼 및 가족치료 박사(Ph.D.)

경력 : (현)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

(현) 한동대학교 상담센터장

(현)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편집위원장

#### ■ 인터뷰 내용

##### 1.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 및 경력에 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주전공 분야는 부부 및 가족 상담입니다. 결혼 및 부부관계, 발달 및 양육 관련 주제들에 대해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으며, 기회가 닿는 대로 심리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주제들은 성인 남녀의 관계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동거관계에서의 출산/양육 경험, 가족기반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등이 있습니다. 부부/가족 관련 학술학회들에서 학술, 편집위원 등으로 일하고 있으며 현소속 대학의 상담센터장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 2. 전달 해드린 ‘다자녀 지원정책 관련 일반시민 여론조사 결과’에 관해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조사결과에 대해 살펴보자면, 먼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다자녀 부모들의 대다수(80% 이상)가 다자녀 지원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다자녀 가구 부모들 대부분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전반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질문들에 대한 응답을 좀 더 살펴보면, “심리정서적 지원”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응답에서 다자녀 가구 부모들이 비(非)다자녀 가구 부모들에 비해 가족문제 관련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전문가의 도움을 정책적 서비스를 통해 받고 싶다고 말한 경우가 더 많았고, 앞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반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를 선택한 수보다 더 많은 다자녀 부모들이 이같은 “심리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였음을 함께 고려할 때, 심리정서적 지원에 대한 필요가 다자녀 부모들에게 상당히 실질적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양육과정에서 심리정서적 전문조력을 필요로 했던 경험의 유무“와 관련해서는 과반의 부모들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었다”라고 보고하였고(비다자녀 52% vs. 다자녀 59%), 특히 비다자녀 가구의 부모들에 비해 2배에 가까운 다자녀 가구 부모들이 전문조력의 필요가 “자주 있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각각 8% vs. 15.5%). 이를 볼 때 전문가로부터의 심리정서적 지지, 코칭/교육 등이 제공된다면 양육문제에 대해 조력을 필요로 하는 상당수의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고 됩니다. 동시에 이러한 전문조력 필요경험의 빈도 차이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의 가구들(500만 원 이상)에 비해 낮은 소득 수준의 가구들(300만원 미만)이 더 잦은 양육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음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등과 같은 심리정서적 전문조력이 필요한 “구체적 영역”과 관련해서 부모들 절반 이상이 “자녀양육 기술”을 꼽았고 (그 외 부부관계, 가족관계, 시/처가 관계 등), 이같은 자녀양육 기술에 대한 전문조력의 필요성이 비다자녀 가구 부모들에 비해 다자녀 가구 부모들 사이에서 더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비다자녀 부모들보다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더 많은 실질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은 다자녀 부모님들이 자녀양육으로 인한 고충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두 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동안 습득한 더 많은 양육의 경험이 있음에도 양육관련 도움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은 두 명 이상의 “다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인해 경험하는 부가적 스트레스, 심리적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이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조력을 통해 도움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 3. 교수님께서서는 우리나라의 다자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겪는 정서적이거나 심리적인 취약점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의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결혼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점점 더 많은 정책적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신중한 고민과 결정을 필요로 하는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출산을 하게 되면 부부의 상당한 수고와 희생이 요구되는데, 당장은 물론 아이가 성장하는 기간 내내 양육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며, 부부 각자가 누릴 수 있는 여러 방면에서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현 사회제도 내에서 자녀의 교육비를 위한 지출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인해 출산 자체를 주저하거나 출산하더라도 그 수가 한 두 명을 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가족에 대한 자신들의 가치에 따라, 혹은 가족계획의 부재(의도치 않은 임신 등) 등으로 인해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가구당 출산 자녀의 수는 그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를 함께 고려할 때, 많은 다자녀 부모들은 현실을 고려하여 여성, 즉 어머니가 자신의 경력을 단절하거나 포기한 채로 집에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여 자녀들을 돌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자녀를 양육하는 많은 어머니들이 이같이 장기간 지속되는 양육으로 인한 상당한 수준의 피로와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데, 특히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경우 어머니가 이렇게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각각의 자녀들을 돌보는데 사용하면서 가사의 대부분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삶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자녀가 3명인 경우 6-7년 이상)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자녀 부모라고 해서 非다자녀 부모들보다 반드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고 육아의 부담과 책임으로 인해 힘든 가운데서도 분명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부모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다자녀 가구의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은 경제적 제약, 소위 ‘독박육아’, 경력 단절, 체력적 한계 등으로 인해 양육의 과정에서 상당한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의 수준과 건강 문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정적 경험들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에 다양한 모습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부부가 원해서 다자녀를 출산, 양육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다자녀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상대적 박탈감, 우울감 등을 경험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상 이 같은 문제를 다른 공동체나 전문가 등과 함께 나누고 도움을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일시적, 제한적으로만 다루어지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4. 그렇다면, 이런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다자녀 가정을 위해 제공된 기존의 다양한 정책들은 주로 출산장려금 지급, 교통/주차비 할인, 공공요금 감면 등 물질적 지원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나기로는 이러한 정책들은 다자녀 부모의 양육경험이나 출산장려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거나 체감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한 바도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금번의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다자녀 가구의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관련된 지원에 대한 수요는 기존 정책적 접근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면서도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정 인구/대상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일반 가구들에 바우처 제공 등을 통한 심리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긍정적 반응/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양육문제 등으로 인해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부모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들도 다 겪는, 하지만 혼자 감당하고 이겨내야 할 일이라고 여겨지는 양육/가족 문제에 대한 전문적 조력 서비스가 정책적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제공된다면, 양육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실제로 다수의 다른 부모들도 겪는 심각한 문제임을 보다 편하게 받아들이고, 필요한 도움을 보다 편하게 받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담을 받고 싶었지만 비용으로 인해 주저하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심리상담센터 등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심리적, 기술적 도움을 기꺼이 받으려는 마음이 있다 해도 전문적 상담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심리상담 바우처 등의 제공은 이러한 부모들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나 지자체가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실제로 많은 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정책을 통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 고민과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자녀 가구를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구체적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번 설문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다자녀 양육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했던 경험이 전혀 없었거나 거의 없었다고 보고한 가구도 결코 적지 않았음을 함께 고려할 때, 구체적 타겟/대상을 설정하지 않고 제공되는 일방적, 선심성 정책은 그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미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일괄적으로, 누구에게나 “심리상담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즉 심리·정서 관련 전문가 도움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들이 나아지도록 돕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구체화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가, 어떤 종류의 상담/심리적 지원을 어디서 받을지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선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혹 정책적인 이유로 이같은 서비스를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별도의 스크리닝 절차를 두어서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정말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지,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등을 선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 그 자체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지 못한다면 이 정책 또한 결국 별 의미나 영향이 없는 또 하나의 사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결국 이같은 다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심리상담의 주된 목적과 제공된 상담효과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이슈나 부부관계에 대한 일반상담이 아닌, (개인이 겪는 스트레스와 좌절 등에 잘 반응해 주면서도) 부모역할에 관련된 교육, 코칭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개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같이 다자녀 가구를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 심리정서적 조력의 제공은 이를 통해 현재의 낮은 출산율 수치의 개선 자체에 주된 목적을 두거나 그와 관련된 즉각적 결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부모의 다자녀 양육경험과 그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도움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다자녀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덜 수 있고 보다 행복과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결국 그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주변 다른, 그리고 새로이 형성될 가정과 부모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 서울시 다자녀 지원정책 확장 관련 여론조사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제3장. 전화면접조사

제4장. 표적집단면접

제5장. 전문가심층인터뷰

**제6장. 결론**

부록



- 이 조사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 수치를 보여 서울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를 위해 방안 마련의 한 방편으로 기획 되었음. 현재 서울시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의 대부분은 ‘생활요금감면’ 종류의 경제적 지원에 편중됨. 하지만 서울은 도시화, 다양화, 다변화의 특징을 지닌 도시임. 따라서 획일적 비용지원 정책의 효과는 낮을 수 있으며, 경제적 지원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서적’, ‘심리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요구됨. 따라서 ‘정서적’, ‘심리적’ 지원정책 등을 포함한 다자녀 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 조사를 수행함.
- 현재 서울시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다자녀에 관한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감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다둥이카드’로 대변되는 소소한 지원정책만을 인지하고 있음. 장기임대주택 등 주택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점하는 정책이 있으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정을 일부에 불과하고, 나아가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이 성장한 후 상대적으로 협소한 임대주택은 다자녀 가족이 거주하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됨. 이 같은 기존의 정책들이 출산 요구나 다자녀 부모의 행복도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문가와 일반시민도 동의하는 바임.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이 미비한 가운데, 다자녀 가정이 겪고 있는 심리적·정서적 스트레스나 부담이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스트레스에 대해 관리 및 지원해 주는 정책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심리·정서관련 전문 조력이 특히 필요한 구체적 영역은 ‘자녀양육기술’에 관한 것이었음. 시민들은 전문적 조력을 받을 의지가 있으며 일정 정도의 비용(약 5만원)도 감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상당수가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일반 시민이 ‘자녀’에 관한 지원정책이나 혜택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문가들은 체계의 관점에서 ‘가족’ 자체에 초점을 맞춤. 가정은 내부적 ‘관계’로 이루어졌고 구성원의 숫자가 많을 수록 관계의 수와 양상도 복잡해 짐. 여기서 발생하는 소통의 문제와 관계 맺음의 문제가 나중에 더 많고 복잡한 문제를 자아냄.
- 나아가 전문가들은 다자녀의 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녀 보다는 ‘부부’에 더 초점을 맞추고 프로그램을 추천함. 현재의 부모가 자신의 부모들로부터 받은 영향까지 추적하는 구체적인 상담기법 등도 제시되었음.
-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다자녀 가정의 심리적·정서적 부담에 관한 지원 수요는 기존의 정책적 접근

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며,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음을 밝힘.

- 특정 대상이 아닌 광범위한 가구에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상담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자체보다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꼭 필요한 가정에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로 볼 수 있음. 서울시가 제공하는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남성에게 그 이유를 청취한 결과,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했던 유사한 서비스를 활용했다가 실망한 기억이 크게 작용하였음.
- 전문가들은 관련 정책을 수행할 때 ‘일괄적’으로 누구에게나 ‘심리상담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수요자가 개선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선별절차를 구비해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실제로 상담이 필요한지, 상담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함.
- 심리·상담프로그램은 출산율 제고가 1차 목적이기는 하나 수치 개선 자체에 목적을 두거나 즉각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 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을 두고 진행하는 것을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필요 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진입장벽이 낮다면, 양육 스트레스와 부담이 덜어질 수 있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새로이 꾸려질 가정과 부모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장기적으로 서울시민의 행복을 도모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서울시 다자녀 지원정책 확장 관련 여론조사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제3장. 전화면접조사

제4장. 표적집단면접

제5장. 전문가심층인터뷰

제6장. 결론

**부록**



## 부록1 : 전화면접조사 설문지

REALMETER

서울시 다자녀 지원정책 확장관련 여론조사

□□□□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면접원 ○○○입니다. 저희는 서울시의 가정 서울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응답 하나 하나는 서울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셔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 9.

(주)리얼미터 / 담당 연구원: 문광춘 차장 / Tel. 02-548-4071 / E-mail real@realmeter.net

## SQ. 응답자 선정

SQ01. 귀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 \_\_\_\_ )

1. 서울                      2. 서울 외 (조사중단)

SQ01-1. 그러시다면 서울시 어느 구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_\_\_\_ )

- |         |          |          |          |
|---------|----------|----------|----------|
| 1. 강남구  | 2. 강동구   | 3. 강북구   | 4. 강서구   |
| 5. 관악구  | 6. 광진구   | 7. 구로구   | 8. 금천구   |
| 9. 노원구  | 10. 도봉구  | 11. 동대문구 | 12. 동작구  |
| 13. 마포구 | 14. 서대문구 | 15. 서초구  | 16. 성동구  |
| 17. 성북구 | 18. 송파구  | 19. 양천구  | 20. 영등포구 |
| 21. 용산구 | 22. 은평구  | 23. 종로구  | 24. 중구   |
| 25. 중랑구 |          |          |          |

SQ0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 만 25세 미만 조사 중단)

1. 25~29세      2. 30대                      3. 40대                      4. 50대                      5. 60세이상

SQ03. 성별 (목소리로 체크)

1. 남성

2. 여성

SQ04. 귀하께서는 혹시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십니까?

1. 있음

2. 없음 → Q01

SQ05. 귀하께서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는 몇 명 인가요? ( \_\_\_\_\_ 명)

## 서울시 다자녀

**Q01. 귀하께서 평소 서울시가 전반적인 시정운영을 얼마나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로 말씀 주십시오. 매우 잘 한다고 생각하실수록 10점에 가까이, 매우 잘 못한다고 생각하실수록 0점에 가깝습니다.**

|        |   |   |   |   |   |   |   |   |   |   |         |
|--------|---|---|---|---|---|---|---|---|---|---|---------|
| 매우 잘한다 |   |   |   |   |   |   |   |   |   |   | 매우 잘못한다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Q02. 그렇다면, 서울시가 전반적인 ‘시민 복지관련 정책’은 얼마나 잘 수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로 말씀 주십시오. 매우 잘한다고 생각하실수록 10점에 가까이, 매우 잘 못한다고 생각하실수록 0점에 가깝습니다.**

|        |   |   |   |   |   |   |   |   |   |         |
|--------|---|---|---|---|---|---|---|---|---|---------|
| 매우 잘한다 |   |   |   |   |   |   |   |   |   | 매우 잘못한다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Q03. 그렇다면 귀하께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1. 잘 구분한다
2.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다
3. 별로 구분하지 못한다
4.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

※안내 : 다자녀가정 지원제도 중 서울시 소관인 제도는 ‘다둥이 행복카드’,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이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지원제도 총정리,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147531>)



**Q04.** 귀하께서는 서울시가 '다자녀 지원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로 말씀 주십시오. 매우 잘한다고 생각하실수록 10점에 가까이, 매우 잘 못한다고 생각하실수록 0점에 가깝습니다.

|        |   |   |   |    |   |   |   |         |   |   |
|--------|---|---|---|----|---|---|---|---------|---|---|
| 매우 잘한다 | ← | ← | ← | 보통 | → | → | → | 매우 잘못한다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Q05.** 귀하께서는 서울시가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로 말씀 주십시오. 매우 강화해야 할수록 10점에 가까이, 전혀 강화할 필요가 없을수록 0점에 가깝습니다.

|       |   |   |   |    |   |   |   |           |   |   |
|-------|---|---|---|----|---|---|---|-----------|---|---|
| 매우 강화 | ← | ← | ← | 보통 | → | → | → | 강화할 필요 없음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Q06.** 그렇다면 (자녀를 포함한) 가족관계의 문제로 인한 심리 상담이나 스트레스 관리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얼마나 크게 느끼시나요?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로 말씀 주십시오. 매우 필요할수록 10점에 가까이, 전혀 필요 없을수록 0점에 가깝습니다.

|       |   |   |   |    |   |   |   |          |   |   |
|-------|---|---|---|----|---|---|---|----------|---|---|
| 매우 필요 | ← | ← | ← | 보통 | → | → | → | 전혀 필요 없음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양육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 Q7

[양육 미성년 자녀 없는 경우] ➡ DQ1

**Q07.** 귀하께서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심리적·정서적 만족감이나 안정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1. 매우 자주 있다
2. 자주 있는 편이다
3. 가끔 있다
4. 한두 번 있었다.
5. 전혀 없었다

**Q08. 귀하께서 '자녀 양육'에 관해 상담이나 전문적인 조언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보기 로테이션)**

1. 부부 사이의 관계
2. 가족 전체의 관계
3. 자녀 양육 기술
4. 시댁 혹은 처가와와의 관계
5. 기타

**Q09. 귀하께서 자녀 양육 과정에서 심리적 정서적 만족감이나 안정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1회에 얼마까지 지불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만원)**

**Q10. 배우자 외 귀하의 자녀 양육을 돕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은 누구입니까?**

1. 배우자 부모님
2.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나의 부모님
4. 나의 형제자매
5. 지인 및 친구
6. 고용한 도우미
7. 기타

## DQ. 응답자 특성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입니다.

**DQ01. 선생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 1. 자영업/개인사업  | 2. 판매/영업/서비스직    | 3. 생산/기능/노무직 |
| 4. 사무/관리/전문직 | 5. 전업주부          | 6. 학생        |
| 7. 은퇴 및 무직   | 8. 기타 (        ) |              |

**DQ02. 선생님께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              |       |                  |
|--------------|-------|------------------|
| 1. 자가        | 2. 전세 | 3. 보증금 있는 월세     |
| 4. 보증금 없는 월세 | 5. 무상 | 6. 기타 (        ) |

**DQ03. 선생님 닉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 \_\_\_\_\_ )**

1. 100만원 정도
2.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4.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5. 700만원 이상
6. 응답 거부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부록2 : 표적집단면접 가이드

REALMETER

서울시 다자녀 지원정책 확장관련 여론조사

□□□□

### Ice-breaking과 Rapport 형성

10분 - Total 10분

#### ■ 진행방식 소개(진행자)

- 기본 에티켓 안내: 화장실 다녀오기, 흡연자 미리 다녀오기, 휴대폰 off
- 토론 방식 안내 및 공지: 모든 분의 참여, 사회자와 대화가 아닌 참석자 간의 자유발언으로 진행. 주제를 너무 벗어나는 경우에 사회자가 안내할 수 있음. 거수 협조 요청 및 녹취 공지
- 토론 내용 소개: 각자 참석자 개인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 거주하는 '서울시' 의 관련 정책도 포함하는 내용. 맞는 말 틀린 말이 없기 때문에 쉽고 자유롭게 평소의 생각대로 이야기 하면 되고,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친구나 가족의 의견을 전달해도 됨. 이야기 중 다른 참석자의 의견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덧붙이거나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음.

#### ■ 모더레이터 및 참석자 각자 소개

- (각자)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현재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히 두 줄로 소개

### 서울시 복지정책 평가 및 인식

15분 - Total 25분

#### ■ 서울시 복지 관련 일반적 인식

-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가정을 이루고 계시니 복지정책에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서울시의 전반적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지 못하시나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두 각자 듣기)
- (만족한다는 응답자 대상) 만족한다고 하신 분들은,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우신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이 경험하신 것 정책 중에서 만족스러우셨던 것이 있으시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꼭 만족한 부분만 아니라 불만족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 해 주셔도 좋습니다.
- (불만족/잘모르겠다) 그렇다면 불만족하시거나 잘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대답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잘 모르실 수 있으니, 평소 이런 복지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한두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 ■ 정부 - 지자체 간 복지정책 구분

-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정책이 따로 있는데도 이런 복지정책을 평소에 잘 구분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 다자녀 정책 관련 평가 및 인식

15분 - Total 25분

### ■ 다자녀 정책 관련 평가

-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복지정책 중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자녀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시는 대로 한 분 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모두 각자 듣기)

- 서울시가 다자녀가정 지원제도 중 서울시 홈페이지에 서울시 소관이라고 소개된 제도는 '①다둥이 행복카드', '②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③하수도 사용료 감면' 입니다.

-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가스요금, 전기료 이런 것들은 사실 서울시의 소관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의 지원정책이나 평소 느끼셨던 점들 고려하셨을 때 서울시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평소 만족스러우셨는지, 그렇지 못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만족한다는 응답자 대상) 만족한다고 하신 분들은,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우신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평가도 괜찮고, 경험하신 정책이나 특정 이벤트에 관한 것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물론, 불만족스러운 점도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 (불만족/잘모르겠다) 그렇다면 불만족하시거나 잘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대답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평소 다자녀와 관련해 이런 정책이 필요했다거나 부족했다고 느끼셨던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다자녀 정책 강화 필요성

- 그렇다면, 서울시의 다자녀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 Break Time

5분 - Total 분

■ Break Time

-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시 쉬신 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정확히 5분 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수에 따른 스트레스 5분 - Total 45분

■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 정도 및 지지현황

- 평소 자녀 양육에 관한 스트레스나 부담을 말로 표현해 본다면 어느 정도이십니까?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전혀 스트레스나 부담을 받지 않는다’ 손들어 주세요.  
다음으로 ‘별로 스트레스나 부담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약간 스트레스나 부담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매우 스트레스나 부담을 받는다’ 손들어 주세요.
- 그렇다면 자녀를 양육하실 때 자녀가 늘어날수록 스트레스도 많이 늘었는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 다들 자녀 양육하시면서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을 하면서 가족이나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고용한 도우미나 이런 분들도 좋으니 말씀해 주세요.

심리적, 정서적 지원 필요성 20분 - Total 65분

■ 갈등상황 발생

- 이런 스트레스나 부담이 부부 혹은 다른 가족이나 주변인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진 적은 없나요? 주로 누구와 갈등이 발생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 영향 및 해소

-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이런 갈등 상황이나 스트레스가 가정이나 가족관계에 금이 가게 하거나 위기를 초래한 경우도 있나요?
- 그렇다면 이런 갈등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어떤 방법으로 풀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혹시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이런 문제의 도움을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받아보신 분 계신 효과나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좀 말씀 해 주세요.

## 심리적, 정서적 지원에 대한 태도

10분 - Total 75분

### ■ 심리, 정서지원에 대한 태도

- 만약에 서울시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심리적 정서적 상담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한다면 참여해 보시고 싶으신가요? 꼭 참여해 보고 싶으시다든지, 약간 그렇다든지, 별로 필요 없다든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 그런데, 이러한 상담에 일부 비용을 지불한다면 1회에 얼마정도 지불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5만원 까지라든지, 만원까지라든지 만원 단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 자유의견

-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정의 지원정책에 관련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나 제도 등이 있으면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마무리

5분 - Total 80분

### ■ 감사의 인사 및 보안 당부

- 오늘 참석해주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SNS에 올리거나 하지 말아주십시오.

### ■ 사례비

- 사례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메일주소를 전달드릴텐데 처음 안내해 드린 것처럼 주민번호가 나온 신분증과 본인의 통장 사본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 신고 때문에 그런 것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 ■ 추가 연락 가능

- 오늘 다 다루지 못한 주제로 전화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3 : 표적집단면접 스크립트

#### 1. 다자녀 아버지

진행자 :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주제를 너무 벗어나는 이야기가 진행될 때는 제가 중간에 이야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개인적으로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경험하셨던 이야기들을 풀어내시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 복지정책의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누어질 텐데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무겁고 힘드신 이야기는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자기소개 좀 할까요? 자녀 명수, 거주하시는 지역 정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게 보이는 순서대로 지금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님부터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이의 아빠 고요. 첫째는 지금 딸, 초등학교 3학년 10살 그리고 둘째는 아들 초등학교 1학년 8살이고요. 지금 막내가 이제 16개월 됐습니다. 조금 늦둥이인데요. 네 그렇게 딸, 아들, 딸 삼둥이 아빠입니다.

진행자 : 우리 김 ■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 ■ : 네. 저는 이름은 김 ■이고요. 지금 현재 아들 두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14살 중학교 1학년이고요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11살인가요? 여덟, 아홉, 열 살입니다.

진행자 :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공○○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공○○ : 네 저는 이름은 공○○이라고 하고요. 아들만 셋이고 10살, 4살 3살 아들 셋 키우고, 은평구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최◆◆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최◆◆ : 저는 최◆◆이고요. 딸하고 아들이 있고, 딸아이는 이번에 중3이 되었고, 그리고 아들은 중1 이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감사합니다. 김○○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 : 안녕하세요. 저는 두 중학생 중학교 3학년하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기르고 있는 아빠고요. 지금 출판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큰애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입니다.

진행자 : 사시는 구는 어디가 될까요?

김○○ : 지금 서울시 은평구에 살고 있어요. 진관동.

진행자 : 우리 마지막으로 고▲▲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 :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이고요. 주거지역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입니다. 자녀는 큰애가 고3이고요, 둘째 고1, 그리고 막내가 중학교 1학년이고 딸, 딸, 아들의 아빠입니다.

진행자 :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세 명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저희 아버님들께서 이렇게 막 눈이 동그래지셨는데 저희 앞의 여성분들이 먼저 하셨을 때는 네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2명을 키우시는 분들이 갑자기 막 눈이 휘둥그레지시면서 다들 놀라 하셨는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도 파이팅이시고요. 이제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서울시 전반적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혹시 만족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서울시 복지정책. 이게 꼭 자녀에 포커스를 안 뒀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딱 떠 올리셨을 때 서울시 복지정책 만족하나? 안 만족하나? 잠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족한다? 지금 손을 모두 안 드셨습니다. 불만족함으로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자 그러면 돌아가시면서 한분 한분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런 정책이 좀 새롭게 마련됐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님부터 한 번 나눠 주실까요?

고▲▲ : 네 저는 세 아이의 아빠인데, 그 당시만 해도 다자녀 출산이 되면 정말로 나라에서 아이를 키워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제 다동이 카드라는 거에 대해서 혜택이 엄청 많은 거 같이 그 광고가 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건 5만 원 이상 할부가 된다는 거 그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동이 카드가 홍보가 많이 된 거에 비해서 정말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홍보만큼의 그런 도움이 되는 부분은 좀 빈약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양육정책이나 뭐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다고 지금 후배들한테 들으니까 그러던데 제 막둥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제가 애들 양육하고 키우는 동안에는 이렇다 할 복지정책에 대해서 정말 서울시가 다자녀 아이 키우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정말 잘 해주고 계시구나 라는 걸, 죄송하지만,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부족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말씀을 첨언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다섯이예요. 그래서 여행 같은 거나 어디 이렇게 나가게 되면 펜션이나 호텔 같은 거 잡을 때 꼭 뭐 두 명이나 이렇게 잡고 꼭 추가 요금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다 자녀들에게 말로만 이렇게 정책적으로 복지를 줄 게 아니라,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자녀들은 갈 때 얼마의 추가를 해준단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됐으면 더 다자녀 가구원들이 느끼는 복지 혜택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행자 : 네. 감사합니다. 좀 더 그 여가생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원되면 참 좋겠네요. 더 보완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차후에 생각하셨다가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김○○님? 김○○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 네. 제가 불만족, 만족 사실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게 그 체험하기가요... 어떤 복지정책이 있는지가 사실은 떠오르는 게 없어요. 일단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을 펼친다 이거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채널이 좀 있으면, 알게 모르게 저도 복지 혜택을 받고 있을 텐데, 사실은 아!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복지구나? 구청에서 하는 거였구나. 이것을 사실, 인지를 잘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했을 때 뭘 하고 있지, 아니면

뭐가 부족한지가 딱 막연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다거 보다는 좀 약간 그런 것들을 저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채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 : 아,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밖에는 혹시 더 이런 복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실까요?

김○○ : 지금 중3 남자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긴 하지만 이 친구들이 정말 운동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이 좀 뛰어놀 만한 공간이 좀 없어서 약간 구민체육 센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효 시설들을 사용해서 지금 아이들이 뭘 수 있는 공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일단 교육한 입장에서는 그게 좀 가장 아쉬운 거 같아요.

진행자 : 네. 감사합니다. 공○○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 : 네. 저도 뭐 딱히 뭘 받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울시에서 뭘 하고 나라에서 뭔가 했을 때, 어쨌든 그걸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지 뭔가 혜택을 보든가 신청을 하든가 하는데, 그런 게 홍보가 되지 않고 우리가 뭔가 소문을 통해서 들어가야지...; 들어가서도 겨우 겨우 뭘 찾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는 혜택을 뭘 받고 복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다동이 카드로 주차장 할인 말고는 거의 찾을 수가 없는 거 같고 뭘 좋은 거는 일단 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집을 보내는 건 일단 무료로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급식이랑 어린이집 가는 거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는 모든 거를 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모든 걸 다 엄마 아빠가 다 찾고 다 해결하고 무언가 기대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거 같습니다.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 : 네 저도 앞의 두 분하고 비슷한데요. 일단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은 아이들을 키울 때 아내가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아빠들이 아이를 양육할 때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정보들이 많이 좀 있으면 연계해서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텐데 어떤 목적을 하고 있는지 좀 적은 거 같고요. 좀 아쉬움

은 다둥이 카드도 얘기하셨고 다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육아 정책에서 지원하는 아  
까 거의 출산에서 취약층 아동들이 정도에 많이 집중되어있는 거 같아요. 아까 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딸아이가 중3인데, 중3 아이들이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지만 청소년들도 개방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많이 없는 것 같고, 접근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게 복지정책 측면에서 학교랑 연계  
해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충분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근  
데 이제 너무 직업적성 이런 식으로 쏠려있거나 아니면 자원봉사 쪽으로 쏠려있어서 학  
생들 점수 따기 이런 정도로 활용이 되는 거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네요.

진행자 :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님 말씀해 주시죠.

이□□ : 저도 뭐 어떻게 막 되게 만족해 는 아닌데 그렇다고 약간 뭐 아쉬움? 그런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나마 제가 좀 많이 혜택을 제 판에는 이렇게 좀 찾아서 이렇게 누리는 거 같은  
데, 일단 다둥이 카드로는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 그거는 할인을 가끔씩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주로 받는 건 교통비 할인, 지하철요금, 유류비를 할인받는 거, 보통 기  
본으로 이제 다둥이 카드로는 그렇게 받고 있고. 그다음에 출산했을 때, 셋째를 출산했  
을 때,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전기요금 할인, 그런 건 처음에 신청을 했어 가지고 그런  
거는 지금 되게 소소해요. 몇 천원? 그렇게 받고 있어요. 가장 컸던 건 이제 어린이집  
우선순위? 예 그런 거 이게 아주 그냥 소소하게 느끼는 정도라서 이제 국가 지금 출산율  
이 엄청 한 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막 두 명, 세 명 많이 낳으면 국가가  
지원을 많이 해줄게 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믿고 낳을 수 있을까?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 : 네. 너무 소소하다.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김 ■님 한번 답변해주시죠.

김 ■ : 어떤 서울시가 서울 빈곤층을 향한 아이 낳았을 때 산후 도우미 보내 주는 것이나, 빈곤  
층이 공동주택 같은 혜택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듯이 실질적으  
로 이제 일방적인 우리 직장을 갖고 있구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  
은 특별히 많이 없는 거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아이가 두 명이 있다고 했는  
데, 물론 다둥이 카드도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으로 정책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좀 많이 없는 거 같아요. 복지정책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야지 찾아서 행정 중심의 복지정책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만족한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진행자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혹시 그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보건복지부나 이런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정책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건 혹시 아시나요? 한 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구분되어 있는 걸 안다.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두 분? 세 분? 세 분 정도 따로 구분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혹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자녀 정책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다면 각자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자녀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네. 김 ■님 말씀해주세요.

김 ■ : 제가 알고 있기는 임대, 장기전세주택 할 때 다자녀 순위랑 그게 서울시에서 하는 제가 알고 있는 다자녀를 위한 정책인 거 같습니다.

진행자 : 네. 또 아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퀴즈가 아니라서 모르셔도 됩니다. 못 맞추셔도 됩니다.

최◆◆ : 제가 다자녀가 아니라서.

진행자 : 거기 두 명도 다자녀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보통 그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서울시 소관이라고 소개된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아까도 말씀하셨던 다둥이 행복카드가 있어요. 이걸 다 아시죠? 지금 김 ■님께서 말씀하셨던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이게 서울시 주관 인거고요. 하수도 사용료 감면 이게 서울시 주관이고 근데 뭐 가스요금전기로 사용 이런 것들은 사실 서울시 소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구분에서 알고 있지 못했죠. 그냥 혜택만 누리고 있었을 뿐이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그 지원정책이 어떠세요? 만족스러우실까요? 혹시 만족스러우신 분? 또 한 번 손들어 주십시오. 서울시 정책이 만족스럽다. 지금 다자녀 정책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만족스럽다? 자, 네. 모두 불만족이십니다. 네. 불만족 이유? 앞에

말씀하셨던 것 이외에 혹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님?

고▲▲ : 서울 시내에 다자녀 정책을 어느 곳에서 관장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다자녀인 공무원분들이 팀을 이뤄서 그분들이 실생활에서 기획과 정책을 했으면 더 좋은 피부에 느끼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회의를 하고 그런 분들이 뭐 미혼이거나 자녀가 한 명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 한다면 실질적으로 다자녀 들의 삶에서 부대끼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못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팀을 꾸리실 때 서울시에도 다자녀인 공무원들이 제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팀을 이뤄서 실질적으로 다자녀들이 살면서 부대끼면서 느끼는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정책을 내주시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행자 :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님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정책을 풀어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실까요?

김○○ : 일단은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뭔가 메일링 이라든지 이렇게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등록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자녀가 둘인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약간 매뉴얼을 정해놔 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알려 주시면, 지금 일일이 복지 포탈 찾아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메일링 같은 걸로 좀 소식 같은 것들을 좀 예를 들어 두 아이의 아빠다 이러면은 뭘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게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메일 같은 걸로.

진행자 : 또 불만족하신 이유도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김○○ :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비슷해요. 뭐 다둥이 카드 이런 것들 뭐 카드 만들어야 되고, 뭐 수도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딱히 뭔가 체감 하는게 없기때문에, 굳이 신청할까 말까 이런 좀 주저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귀찮은데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할꺼 흘러 버리는 것도 좀 많고요.

진행자 :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님 말씀해 주세요.

최◆◆ : 네. 저는 좀 어느 정도 까지 가능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장기 저소득층 임대주택 해서 한 십여 년 살다가 최근에 이사했어요. 뭐였냐면 이제 남자아이로 딸하고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주거공간의 협소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대부분 장기임대주택이 다자녀라고 해서 보면은 저는 두 명 있는 건 다자녀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세 명 내지 네 명은 되어야 한다. 라는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아이들을 데리고 장기임대주택에 들어갔을 때 실제 주거공간에서 아이들을 몇 살 때까지 키울 수 있는지 의문이 남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사를 결정하게 됐던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 했던 게 남자와 여자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들이 각각의 방을 줄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이 아니어서 결국은 이사를 결정했고, 이사하게 됐거든요.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제 친구 다른 장기임대주택 전세 들어간 친구 같은 경우도 자녀가 넷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그래도 성별이 아들 하나에 딸 셋 이렇게 되니까 그 공간에 어떻게, 또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거기에 있지, 좀 더 크면 이사를 고려해야 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모든 지원이 어느 정도 쫓아가더라도, 확실한데 조금 더 지난 시점에서 어떤 지원들이 얼마 만큼 유효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행자 : 네 감사합니다. 약간 자녀들이 발달단계에 맞게 좀 복지정책이 지원이 되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님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불만족에 대한 이유. 앞에 것 하고 겹치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 해주세요.

이□□ : 간단히 이게 그냥 얼핏 생각된 거는 다자녀면은 일단 저희가 어떤 혜택의 어떤 조건들 어떤 상황에 어떤 조건들이 돼야지 그거를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것 보다는 그 조건이 되는 분들은 이제 그 혜택을 받는데, 그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은 다자녀인데도 이제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자녀 혜택이니까 보편적으로 다자녀한테는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좀 다 같이 이런 그런 혜택을 내가 누리네 라고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행자 : 혹시 다른 분 말씀하실 동안 그 다 같이 누리는 정책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 하실 수 있으면 이야기 나눠 주십시오. 우리 공○○님 이야기 해

주실까요?

공○○ : 저는 다른 것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뭘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문제로 예를 들면 제가 저희 형님이 장애가 있어서, 그거 쪽으로도 뭘 알아보려고 한 게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어렵고, 아이에 대한 복지나 뭐 장애인복지나 똑같이 내가 다 알아보고 우리 이거 이거 있다는데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해야지만 그쪽에서 그래 그거 해줄게요. 라고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상황이 이런데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아, 그러시면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게 있는데 해 볼 수 있겠냐고 상담을 해주고 필요한 정책을 찾아 줘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뭘 이거를 필요한 거예요? 저게 필요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거를 찾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저 이거 이거 해 주세요. 라고 해야지만 그때 움직인다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행자 :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공○○님은 좀 더 개선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공○○ : 일단은 만약에 다자녀에 대한 뭐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내가 아이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쪽으로 연결해서 담당이 상담을 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뭐 하자. 라는 식으로 이제 그쪽에서 우리의 처해진 상황을 듣고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담당? 그런 것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행자 : 맞춤형 서비스 제도가 조금 더 행해지면 참 좋겠네요. 혹시 또 이야기 안 하신 분이 계시까요? 말씀 다 나눠 주셨죠? 그러면 서울시 다자녀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네! 최◆◆님 말씀 해주세요.

최◆◆ : 복지에 지금 이제 자녀 양육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다자녀 가구 뭐 이러니까. 우리 들한테 하는 문제도 있는 거 같은데, 중요한 건 아이들의 복지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어찌됐던 부모님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학교 도서관들이 있었거든요. 그 학교 도서관들을 이용



할 수 있었어요. 동네에서. 다 같이 좋았는데, 저희 이제 강남구 일원동에 사는데, 강남구청장이 바뀌고 이러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줬던 게 종료되면서 학교 도서관들의 시설들을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 아이들하고 갈 수 있는 도서관이 공공도서관 큰데 밖에 없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각 학교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책도 보고 부모님들하고 시간도 보내는 이런 좋은 정책들이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아무런 평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아이들한테 직접 관련된 거라면, 최소한으로 누리고 있었던 부모님들이나, 학교라던가, 이용하고 있던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예산에 따라서 그냥 집행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들이 워낙 많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서 다 진행해주시는 어렵겠죠. 매뉴얼에서 올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게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를 현장하고 전혀 동떨어지게 되는 데스크에서 하고 있으니까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닌 사람들은 또 사라진 거야? 이라고 끝나는 거 같아요.

진행자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 다자녀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강화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텐데요. 전혀 강화할 필요가 없다. 는 0점이고요. 매우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10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몇 점 정도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이야기 나눠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 ■님 몇 점 정도 해당 사항이 될까요?

김 ■ : 저는 아 한 6점 정도 왜냐하면 다자녀란 부분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한 명 있는 분들도 두 명 있는 분들도 세 명 있는 부분, 네 명 있는 부분도 어떤 다자녀라는 정책보다는 다자녀라는 정책보다는 보편적으로 모든 자녀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항상 다자녀 어떤 또 아니면 경제적으로 빈곤층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보편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태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다자녀보다는 모든 자녀나 모든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도 다자녀 정책으로 부분은 6점 정도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도 혜택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딱 구별해서 하는 것보다 보편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행자 :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님은 몇 점 정도 주실까요?

고▲▲ : 저는 10점입니다. 왜냐하면 출산 장려정책을 더욱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사회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데,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교육을 시키는 여건이나 압박감, 부동산값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서 그런지 젊은 친구들이 출산을 (멈춤) 그래서 이런 출산장려정책을 서울시에서라도 시작을 해서 적극적으로 정말로 피부에 젊은 친구들이 느낄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현실화된다면 아이를 안 낳는 게 정말 손해다. 라는 생각들이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된다면 인구가 자연스럽게 지금보다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10점을 생각했습니다.

진행자 :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님은 몇 점 정도 생각하실까요?

김◎◎ : 네 저는 7점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그 세 자녀 이상 분들에 대한 복지를 좀 더 넓혀야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두 자녀? 저도 두 자녀 이기는 하지만, 두 자녀 과정에 대한 복지를 현재 세 자녀 이상 정도로 좀 약간 상향 조정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자녀도 보편은 애매하거든요. 사실 세 자녀 이상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하고 한 자녀보다는 조금 낮고 좀 체감하기 애매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약간 조금씩 높여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님 몇 점 정도 생각하실까요?

최◆◆ : 저는 질문하신 대로 다자녀에 관한 것만 보신다면 오히려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3점정도 주겠습니다.

진행자 : 몇 점이요?

최◆◆ : 3점 정도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김 ■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다자녀에 관한 지원을 지금처럼 몇 가지를 개발하고 거기다가 늘린다고 해서 청년들이 결혼하

고 아이를 셋 이상 낳고 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복지보다는 자녀들이 평균적으로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아예 40명이 됐던, 전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는 게 피부로 와 닿으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에 주저함이 없겠죠. 지금 당장 사실 정책들이 자녀를 키울 때 세간에 들리는 것들 양육비보다도 현재에 부족하거나 전혀 현실과 달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청년들이 자녀를 낳는게 부담이 되는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보편적으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들이 좀 늘어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네. 감사합니다. 이□□님 몇 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 말 들어보니까는 처음에 생각했던거와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뭐 8점 정도 생각 했고요. 어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또 듣다 보니까 한 자녀든 자녀들이 있는 다 같이 있는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혜택이 주어지면서 동시에 이제 좀 더 많이 있는 다자녀에게는 거기가 좀 더 이렇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 그런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왔습니다.

진행자 :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공○○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공○○ : 저도 한 6점에서 7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아이들이 좋은 게 좋은 거지만 분명히 키우는 걸 한 명 키우는 것보다 두 명 키우는게 어렵고 당연히 두 명보다 세 명 키우는게 어려우니까 좀 더 아이들이 많은 집 한테 혜택을 줘야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더 한 명이나 두 명보다 더 쉽게 키울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혜택을 많이 줘도 세명은 더 어렵고 아마 네 명은 더 어려울 거고 더 힘들거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자 : 네. 좋습니다. 1부에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 내에서 자녀 양육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계신지 전혀 스트레스나 부담이 없다가 0점이고요, 매우 스트레스가 많고 높다. 부담이 높다. 10점입니다. 몇 점 정도만 이야기하시고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 ■님 몇 점 정도 될까요?

김 ■ : 3점 정도.

진행자 : 3점. 우리 고▲▲님은요?

고▲▲ : 저는 아이가 딸, 아들인데요.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제 와이프가 이제 양육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아 이거 아이를 많이 낳아서 많이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구나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저는 5점 정도 하겠습니다.

진행자 : 네. 5점. 우리 김◎◎님은요?

김◎◎ : 저는 6점 하겠습니다.

진행자 : 네. 6점. 최◆◆님은 몇 점 정도 드릴까요?

최◆◆ : 저는 2점 하겠습니다.

진행자 : 2점. 이□□님은요.

이□□ : 어, 5점? 4점, 5점.

진행자 : 4점, 5점. 네. 앞에서 점수를 너무 낮게 주면 왠지 부담되죠. 뒷 분들이. 공○○님은 어떻게 되세요?

공○○ : 저는 8점입니다.

진행자 : 네. 8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세 아들을 키우시고 계시는데, 공○○님 8점 뿐이 안 되세요? 대단하십니다.

진행자 : 아까 전에 마지막 질문이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였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

---

가 늘어날수록 스트레스가 늘어날까요? 몇 번째부터 자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공○○님 지금 아들 셋을 키우고 계시는데 몇 번째부터 스트레스가 조금 더 올라오는 거 같으세요?

공○○ : 저는 셋째가 둘째랑 나이 텀이 적어서 연년생이다 보니까 거의 둘을 같이 키워서 그런지 셋째 낳고 제일 크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 같아요. 와이프도 그렇고 둘이 다 이제 애기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 같아요.

진행자 : 아, 그러실 수 있겠네요. 우리 이□□님은 어떠세요?

이□□ : 저는 첫째, 둘째가 이제 10살 8살이고, 지금 이제 막내가 이제 1년 6개월? 1년 6개월 됐는데 지금은 물론 제 아기를 다시 오랜만에 다시 이제 키운다는 거 자체가 이제 좀 힘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반대로 첫째, 둘째와 막내 사이가 텀이 길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첫째, 둘째는 스스로 하는 게 많이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덜 힘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본적인 그런 힘들 건 있지만.

진행자 : 그러면 몇째? 첫째? 몇째부터 내가 그 스트레스가 좀 있다. 자녀에 대한. 그걸 느끼셨을까요?

이□□ : 그거는 그냥 저는 몇째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특별히 그거는 이제 찾으면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지금 생각하게 그냥 아이들 키우는 거 자체가 기본으로는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닌가.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님은 어떠세요? 혹시 자녀분들 몇째부터 스트레스가 좀 더 많아지셨을까요?

고▲▲ : 그 자녀 양육에 스트레스의 기준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출산하면서부터 아이의 낯밤이 바뀌고, 저도 같이 바뀌고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스트레스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둘째가 출생하고 셋째가 출생했다. 그래서 그게 좀 가중되거나 그런 부분은 있는 거 같지만 그게 뭐 특별히 둘째부터

셋째부터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일단 출산부터가 지금 말씀하시는 스트레스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첫째가 있고 그다음에 또 둘째가 출산하면 그 둘째를 바주어야 되고 또 둘째가 아기인데 셋째 봐 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저희는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좀 있어서 굳이 뭐 스트레스에 가중을 나누자면 '갈수록 좀 더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님은 어떻게 되세요?

김○○ : 저는 둘째부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김○○ : 첫째 같은 경우는 멋모르고 그냥 처음이라 겪었던 과정들인데, 그렇게 3년 있다가 또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 이미 제가 알고 있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스트레스가 이제 또 고스란히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그게 모르고 겪는 거랑 알고 겪는 거랑 차이가 있어서 둘째부터였던 거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성별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아들과 딸을 키우다 보니까 다른 성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겪는 스트레스 플러스 또 큰애는 그사이에 컸기 때문에 또 새로운 스트레스를 제공하죠. 그래서 제 경험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둘째부터입니다.

진행자 :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님은 어떻게 되세요?

최◆◆ : 저는 뭐 아까 2점을 그렇게 했더니 그냥 제 성격상 그렇게 크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받는 거 같지는 않아서 2점을 했던 건데, 근데 최근 들어서 가령 이제 딸아이가 자기만의 어떤 공간이라든가 자기만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뽐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무리 다가서려 해도 쉽게 접근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빠가 간섭해야 되는지 사실은 누가 저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 안에 조금 스트레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외에는 자녀를 낳아서 첫째 때부터 둘째 낳고 다른 친구들 셋째, 넷째 낳는데, 어려움은 좀 비슷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거 같은데, 다만 이제 최근에 겪는 게 아이들이 우리가 거쳤던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새로운 세계를 진입할 때 사실은 그거를 공감해줄 수 있는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아빠한테도 필요

한데 사실 저희 아들한테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딸아이한테는 그게 좀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요즘 좀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공○○님 이야기 해 주실까요? 지금 아, 이렇게 순서로 말씀하셨죠? 우리 김 ■님이 말씀을 안 하셨군요. 김 ■님.

김 ■ : 저는 아이가 두 명이라서 어떤 첫째나 둘째에 대한 어떤 언제부터 힘들었다. 라기보다는 아내는 이제 다룰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출산해서 100일 정도까지가 회사의 일과 어떤 또 와이프를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력적으로 가장 문제가 있었고, 이제 체력 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서로서로 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때가 가장 좀 서로 신경이 가장 날카로웠고, 또 그 부분이 가장 스트레스였던 거 같고, 그 이후부터는 어떤 조금씩 스트레스는 있지만, 힘들었다고 생각한 적은 그렇게 없었던 거 같습니다.

진행자 : 네. 그러면 혹시 자녀 양육을 하시면서 가족이나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을까요? 고용한 도우미도 좋고요.

김 ■ : 첫째는 그냥 당연히 와이프가 이제 혼자서 그냥 직장생활 하지 않고 온전히 키웠고요. 둘째는 이모님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이모님을 이제 한 살? 두 살? 까지 보편적으로 이렇게 좀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좀 같이 키웠던 것 같아요. 부모님 도움은 안 받고요.

진행자 : 아. 네. 알겠습니다. 공○○님 같은 경우는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주변에.

공○○ : 저희는 와이프가 스타일이 누군가한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걸 원하지 않아서 저희 와이프가 주 양육자니까 그런데 와이프가 도움을 원하는 게 오로지 저. 제가 뭔가를 해줘야 돼요. 저한테 무언가를 바라니까. 수유했을 때에도 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혼자 있으니까 첫째 때는 제가 화장실도 못 가고 기다리고 그랬거든요.

진행자 : 힘드셨겠네요.

공○○ : 저희는 따르는 없었고, 부모님한테도 도움을 저는 원하지만 와이프가 원하지 않아서.

진행자 : 원하지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님 혹시 뭐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계세요?

최◆◆ : 저희도 아이가 태어나고서 처음에 첫 아이 낳을 때 약간 좀 출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내가 도움이 필요했어요. 더군다나 아이를 낳고 두 달 터울이기는 하지만 얼마 뒤에 다시 둘째를 임신하게 되면서 직장생활과 병행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족회의를 통해서 제 부모님한테 첫 아이를 둘째 아이를 한 15개월 정도씩 말씀드려서 맡겼고, 대신 이제 이모님이라고 하는 가정 도우미처럼 부모님한테 양육비를 드리고 15개월씩 맡겼어요. 그런 걸 통해서 저희 아이들하고 가족들 간의 유대감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따로 도와주시는 분 없이 저도 이제 공○○님처럼 아이가 이제 저만 있으면 되는, 그래서 휴가라도 서로 병행해서 가야 됐었고, 학교에서 등교 하는 것도 이제 병행해서 가야 돼서 그냥 저희들 안에서 다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진행자 : 네.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님은 어떠세요? 주변에 도움의 손길 있으셨나요?

김◎◎ : 저희는 제 아내가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그냥 전담으로 육아를, 직업을 갖지 않고 육아를 했어요. 틈틈이 이제 급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양쪽 어머님들한테 잠깐씩 도움받은 적이 있고, 특이한 거는 이제 큰 나이가 어렸을 때 저희 누나 중에 한 분이죠. 가정어린이집을 하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근처에서 하셨어요. 거기에 한 1년 정도 가서 맡긴 적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 네. 좋습니다. 우리 고▲▲님은 어떠세요?

고▲▲ : 저희는 큰 애 때에는 와이프가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어머님께 주중에 같이 케어를 부탁드렸고, 주말에 애를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지냈고, 나머지 둘째, 셋째 애는 와이프가 회사를 그만두고 오로지 양육에만 신경 쓰는 식으로 진행이 돼서 좀 많이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행자 : 아,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님 말씀해 주실까요?

이□□ :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째는 2년 동안 처갓집에 맡겼었어요. 장모님은 장인어른은 그 처갓집 처형네가 같이 살았는데, 그때 맡겨서 2년 동안은 저희가 주말마다 찾아가서 주말에만 보고 이렇게 하다가. 2년 후에 둘째가 태어나면서 저희도 이제 이사를 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첫째를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아직 둘 다 어리고 또 특히나 저희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둘째부터는 이제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저희 집으로 오셔서 여기서 사시다가 주중 동안에는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시다가 주말에는 또 대구로 가시고 그런 식으로 한 1년 정도 또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어린이집 보내면서 저희들끼리 이제 지금은 저희들이 아직은 계속 또 맞벌이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진행자 : 아유, 쉽지는 않으시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도우미가 있든 없든 사실 자녀 양육을 하시다 보면 가족 안에서 스트레스 혹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텐데, 그런 스트레스가 높아졌을 때 주변 사람들과 갈등의 관계가 고조 될 때가 있어요. 높아질 때가 있죠? 주로 누구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갈등의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 돌봄? 혹은 교육?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을 텐데, 누구와 어떤 이유에서 갈등이 심해지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님부터 이야기해 주실까요?

공○○ : 저는 그 오로지 이제 와이프랑 저랑 둘이서 이제 키우다 보니까 어쨌든 와이프는 아이들 전업주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와이프다 라는 걸 제가 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와이프가 하자는 대로 좀 따라가고 와이프를 도와주는 쪽으로 제가 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부딪치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좀 와이프는 어린이집을 좀 늦게 보내려고 해서 저는 좀 빨리 보내서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빨리 보내자. 그리고 또 뭐 부모님한테 좀 도움을 받아라.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와이프가 양보를 하고 대부분은 제가 양보를 해서 서로 부딪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진행자 : 그러면은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가 그런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때, 누구하고 좀 갈등을 보이시는 거 같아요?

공○○ :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고요. 갈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 같은데, 자기 혼자 이제 어떻게 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는 하는데 그거를 저랑 이제 같이 얘기를 해서 합의점을 찾고 이제 풀어나가는 편이고, 부모님이 같이 있으면은 갈등이 생길 거 같은데, 저희는 부모님이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와이프가 누군가와 갈등을 겪는 상황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진행자 : 네. 아직은 아이들이 그럼 어리기 때문에 주로 아내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는 돌봄의 문제 일까요?

공○○ : 네 보통 돌봄이고, 이제 첫째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첫째는 학교 다녀도 이제 뭐 보통은 이제 뭐 교육적인 거 때문에도 많이 서로 대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와이프랑 저랑은 얘기를 예전부터 해온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육아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이 둘이 좀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교육적으로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진행자 :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님 오! 하고 계시는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이□□ : 저도 일단 최대한 제가 좀 잘하려고 해서 모르겠어요. 저하고는 갈등이 없었던 거 같은데 이제 아기가 어릴 때 애기 일 땐 아무래도 좀 처가 쪽? 하고의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 예로 들면 저희 처갓집에서 방문을 한다거나, 때로는 좀 급하게 당일날 아침에 출발할 때, 갈게. 뭐 그런 식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때는 와이프가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는 웬지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있는 대로 보여주면 될 거 같은데, 와이프는 며느리 입장이잖아요. 그 입장에서는 막 온 집이 그냥 난장판이 돼 있고, 또 아기 키우느라고 내 몸도 씻지도 못하고, 또 부모님 오시면 뭐라도 내드려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지금 안 되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많이 시댁하고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진행자 : 네. 그렇죠. 보통 가정에서 다 있는 일이죠. 사실, 사실 우리 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

---

요?

고▲▲ : 저는 뭐 큰 특이사항은 없는데, 큰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다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한번은 아이가 좀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다친 적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저 아이를 전담해 주신 어머니 아버지하고 한번 좀 사이가 안 좋았던 거. 그게 좀 많고, 나머지는 뭐 와이프가 전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뭐 얘기하고 그래서 큰 특이사항은 없고 그게 가장 갈등이라면 갈등이었던 거 같습니다.

진행자 :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님은 어떻게 되실까요?

김○○ : 아이들이 어릴 때는 육아 관련해서는 제 아내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죠? 저희 어머니의 입장에서선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본인의 방식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 제 아내도 제 방식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사소한 이런 겁니다. 저희 일요일 날 이럴 땐 토스트를 구워서 주면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딱 와서 빵 보더니 이런 거를 먹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육아에 대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고, 지금은 아무래도 남편과 아내 사이의 교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빠들은 이상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엄마들은 주변에 워낙 듣는 정보도 많고 엄마들끼리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현실을 모른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요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가장 큰 갈등은 교육 문제입니다.

진행자 :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이야기 감사합니다. 우리 최◆◆님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다.

최◆◆ : 네. 저는 갈등은 양육할 때 가장 많이 부딪치는 거는 역시 아내랑 인 거 같아요. 저희도 이제 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딪힌 적은 거의 없고요. 가끔 저의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 중의 하나가 딸아이가 이제 자기의 세계를 가지면서부터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자녀에 대한 대처 방식이 사실 이제 자매 사이에서만 컸던 제 아내하고 재는 이제 세 자매 중에 맏이고, 저는 2남 1녀 중에 둘째인데, 거의 이제 남자 중심으로 살았던 저하고 자녀들에 대한 이해방식이 완전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즉각 즉각 어떤 답을 주기를 원하고 해결하기를 바라는 그런 성향이 강한데, 아내 같은 경우

는 충분히 듣고 기다려주고 아이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내가 너무 답답해 보일 때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가 보기에는 제가 너무 급진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저녁에 대화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쳤으면 하고 서로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좀 갈등의 요소가 되는거 같아요. 최근 들어서.

진행자 : 그러면 이 이야기를 아내분께서 들으신다면 동의하실 것 같으세요?

최◆◆ :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동의할 거 같고요. 보면 얘기를 나눌 때는 제가 이기는데, 육아로 치면 항상 아내가 뜻하는 바대로 가기 때문에 아마 동의 할 거 같습니다.

진행자 : 남편 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은 누구인 거 같아요? 누구에게 주로 가족 안에서 푸는 거 같아요?

최◆◆ : 제 아내는 일단 저한테는 아팠던 거나 이런 것들은 가끔 얘기하긴 하는데, 다 털어놓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세 자매 중에 맏이인데, 자매들끼리 우애가 상당히 깊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점점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제들한테 제일 감사한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막 쌓아놓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비교적 저희는 수월하게 해결하고 있어요.

진행자 : 다행이네요. 우리 김 ■님 이제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김 ■ : 와이프하고 실제적으로 다른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와이프랑 저랑 양육을 주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어떤 갈등이 가장 많았던 거 같고,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그런 자녀 키우는 방식에 있어 문제보다는 생활 방식 와이프는 좀 더 저보다 깔끔하고, 즉각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완전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제 남자들 특성상 일이 좀 깔끔하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와이프가 좀 답답해하고 좀 더 빨리 알아서 좀 해 줬으면 좋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못했던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못 하다 보니 와이프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이해하지 못한 부분으로 제가 갈등이 있었던 거 같고 그런 부분은 이제 자녀가 커가면서 이제 그런 손이 덜 가잖아요. 그럼 이제 많이 없어서 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 같습니다.

진행자 :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갈등상황이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극대화돼서 우리 가정이 위기의식을 느끼신 적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좀 이게 솔직함이 필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결국, 지금 다들 잘 살고 계시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어떤 자녀들 양육 아니면 가족 안에서 갈등으로 인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아, 이거 가정의 위기다. 라고 생각하셨던 사례가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솔직한 나눔 우리 김○○님 한번 나눠주시죠.

김○○ :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첫 큰아이가 아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남자이다 보니까 그 또래들이 겪었던 그 당시의 생각이나 또래들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내보다는 잘 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남자를 키울 때 이러 이러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게 제 아내도 그렇지만, 요즘 젊은 엄마들이 또는 엄마들이 남학생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부분들이 약간 약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상황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제 입장에서 이게 단지 아이 문제가 아니라 어? 내 말을 되게 무시하네? 그래도 난 아빠고 남편인데 이러다 보면 사실 부부 사이에 앙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좀 자주 있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김○○님 혹시 그런 그 갈등상황에서 이제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서로가 불편하실 텐데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고 계셨어요?

김○○ : 사실 딱히 누구 하나가 이제 뭐 굽히고 사실은 제가 많이 포기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아내 입장을 들어 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극한 상황으로 치닫다 보면은 결국은 해결이 안 나고 계속 그 문제가 심각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많은 부분들은 양보하고 그러면서 뒤로 또 이제 아들의 마음을 좀 케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딱히 뭐 이거 이렇게 하자. 합의가 정말 불가능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진행자 : 혹시 그 김○○님께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김○○ : 저는 따로 그냥 없고요. 같이 그냥 뭐 같이 가족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드라이브를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기분전환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이 가정에서 경험되어지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계세요?

고▲▲ :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운동 동호회 정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정에서는 사회적으로 가는 거를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씩 해소하고 재충전의 시간도 갖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스트레스를 꼭꼭 숨겨 놓으신가요? 어떻게 해서 하고 계세요? 우리 활짝 웃고 계신 공○○님 어떻게 해소하고 계세요? 그 많은 아이들, 아들들 키우시면서.

공○○ : 저는 술을 좋아해가지고 와이프랑 같이 와이프도 술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해서 애들을 재우고 나면은 이제 둘만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같이 술 마시는 거로, 그걸로 인해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게 그래서 좀 갈등이 좀 덜한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게 좋은 거 같아요.

진행자 : 네. 부부간의 서로 대화를 많이 하시나 보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공○○ : 네. 술 마시면서.

진행자 : 네. 술 마시면서, 이게 술이 중요하시군요. 우리 이□□님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계세요?

이□□ : 일단 저뿐만 아니고 와이프하고 한, 두 달 세 달 정도까지는 좀 그랬다가 지금 아이들이 진짜 어리다 보니까는 저희들만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 근래에 아이들을 좀 일찍 재우고 저희도 이제 즐겨 보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좀 같이 보면서 같이

보면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풀렸던 거 같아요. 같이 뭔가를 한다는 거 자체가.

진행자 : 네. 좋습니다.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방법들이 있으실 거 같은데 혹시라도 또 있으시면 따로 알려 주세요. 나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 간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가족이 위기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고 싶다. 라고 생각하셨거나 혹은 그래서 내가 받아 봤다. 센터를 찾아갔다. 상담을 받아 봤다.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 있을까요? 아직 경험은 없으세요? 네. 아직 경험은 없으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서울시가 심리적 정서 상담을 지원제도를 이렇게 마련해주겠다. 라는 그 공지가 되어진다면 혹시 참여 의향이 있으실까요? 이거는 참여 의사가 매우 참여 의사가 높다 그러면 10점, 그리고 참여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러면 0점입니다. 몇 점 정도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 ■님. 몇 점 정도 생각하시나요?

김 ■ : 궁금한 게 부부 사이인가요?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도 포함이 되는 여러 부분인가요?

진행자 : 예. 포함됩니다. 다자녀 가족 상담이니까 필요한 정서적 지원이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김 ■ : 그러면 7점정도 7, 8?

진행자 : 7, 8 점. 네. 감사합니다. 공○○님은 몇 점정도요?

공○○ : 저는 0점이에요.

진행자 : 아, 0점 그러면 상담받고 싶지 않을 거 같아요? 지원제도가 있어도.

공○○ : 네.

진행자 :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공○○ :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그니깐 무언가 그냥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고 뭔가 얘기를 통해서 풀어주는 TV에서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도움이 무조건 될 거 같은데

대부분의 그런 상담은 무엇이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가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우리가 왜 왔지? 올 필요가 없었는데 왔나 보네? 라고 생각이 될 거 같은 생각이예요.

진행자 : 네. 본인의 생각이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점?

최◆◆ : 일단 뭐 참여 의사라는 게 피상담자로서 참여를 하는 건가요?

진행자 : 네. 그렇죠.

최◆◆ : 그럼 저도 0점 주겠습니다.

진행자 : 0점. 네.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최◆◆ : 왜냐하면 일단은 당장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같지는 않고요. 몇 차례 이제 서울시 라든가 다른 데서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아이들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을 한번 참석 해본 적이 있어요. 아내의 요청도 있었고, 딸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야 돼서 같이 가서 참여를 해봤는데, 그런 데를 갔더니 되게 노력하셔서 매뉴얼도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지만, 그 매뉴얼을 적용하는 상대에 대한 특징들을 그 문제들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그렇게 듣고 상담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상담 효과가 굉장히 떨어졌고요. 그 상담은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가는 것보다 더 나은 정보를 얻지도 못했고 실제로 아이가 궁금해 하던 것에 대해서 답변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두 차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그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상담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다자녀 가구에는 보편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아야 아니면 지금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상담을 받는 그런 방식이라면 저한테 필요의 문제는 상관이 없을 거 같아서 참여 의사는 없습니다.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제도가 생기면 참여 의사가

---



몇 점 정도 될까요?

김○○ : 저는 8점입니다. 좀 참여를 하고 싶은데 이유는 사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든 상담할 창구가 그게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사회적으로 여자분들에 비해서. 이런 정서적인 케어가 필요 할 수도 있는데 기회가 생기면 저는 참석을 하고 싶습니다.

진행자 : 그럼 혹시 관심 분야가 어떤 상담이실까요? 어떤 부분에 상담이 있으면 좋겠다.

김○○ : 자녀에 대한 것도 있고요. 다양한 의견이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연장선상으로 부부의 관계라던지 가족 관계라던지 확장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누구한테 딱히 조언을 받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다들 자기 경험한 이야기 할 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전문가분들에게 좀 이야기 듣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거 신선한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이게 제도화됐을 때, 본인 부담금이 약간 있을 수 있을 텐데 얼마 정도 되면은 본인 부담금을 하실 의향 있으세요?

김○○ : 저는 5만 원 미만이면은 괜찮을 거 같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몇 번까지 상담을 좀 지원해 주면 좋을까요? 몇 회기?

김○○ : 이게 글썄요. 분기별 1회 정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행자 : 분기별 1회 정도요? 구체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 제가 아직 제 생각 같기는 한데.

진행자 : 네. 몇점?

이□□ : 몇 점은 한 1, 2점?

진행자 : 아, 1, 2점. 네.

이□□ : 그니까는 이걸 좀 성격 탓이기도 한 거 같아요. 아 이 정도로 이렇게 막 상담을 한다는 거 자체가 왠지 좀 너무 과하다? 다 뭐 이렇게 진행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되어지는 것들인데 굳이 이걸로 상담까지 해야 될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상담이 그런 게 있더라도 진짜 제가 찾아가서 하지는 못할 거 같아요.

진행자 : 근데 좀 아까 그래도 점수를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살짝 하셨으니까 살짝 혹시라도 그 가능성이 생긴다면 얼마 정도 본인 부담금이 된다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 : 아 그거는 무료?

진행자 : 무료? 전액 무료. 몇 회기 정도 전액 무료 해주면은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이□□ : 한 3회 정도.

진행자 : 3회 정도. 단기 3회기.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님 이야기 한번 이야기 나눠 주시죠.

고▲▲ : 네. 저는 먼저 그 공공기관에서는 상담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입견에 대해서 아 이 사람들 완전 대충하고 있구나 해서 공무원에 대한 그런 불신? 신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경험이 있어서 저는 뭐 0점이고요.

진행자 : 혹시 전문상담자들이 지원 되어지는 제도라면 이용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고▲▲ : 지금은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담 그룹이 어떠한 영향을 가지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공기관의 이름을 달고 상담했던 분들은 너무 틀에 박혀서 정형적인 얘기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서 차라리 다자녀가구에 대한 그런 상담이 이루어질 바에야 그런 돈으로 차라리 다자녀들에게 빵이라도 한 번씩 더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행자 :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 ■님께서서는 아까 전에 생긴다면 이용하신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본인 부담금이 어느 정도면 좋으실까요?

김 ■ : 시간이 별로 없기는 한데, 짧게 얘기하면 저는 다른 분들처럼 저도 회사에서도 비싼 강의와 비싼 상담을 자녀에게도 어느 분이 소개 시켜 주셔서 한 회기에 한 40만 원짜리 강의도 아이 상담도 받은 적이 있고, 시립 쪽에서 하는 3만 원짜리 받은 적이 있거든요. 확실히 질이 달라요.

진행자 : 돈을 많이 받는 곳이?

김 ■ : 그런 것처럼 어떤 전문적이고 어떤 혜택적인 이런 상담이 이루어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지원을 받기는 하는데, 어떤 행정적인 횡수나 어떤 다가감에 형식적인 것 이라면 안 했으면 좋겠고, 만약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문적으로 전문적인 전문가가 했으면 좋겠고 그런 질적인 부분도 한 상담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5만원 미만에

진행자 : 몇 회기?

김 ■ : 횡수가 10회 이하 정도.

진행자 : 10회 이하 정도.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것들은 충분히 나눴고요. 이제 저희가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자유롭게 오늘 못다 한 이야기가 좀 있으신 분들 이야기 좀 남겨주시면서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아버님들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 회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2. 다자녀 어머니

사회자 :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핸드폰을 좀 꺼 주시고요. 좌담회 동안은 자리를 비워 줄 수 없는 점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제를 너무 벗어나서 이야기 하실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테니, 쟁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손을 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손을 드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개인 자녀양육을 평소에 느끼셨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 부담감 안 가지셔도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관련된 그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살짝 다룰 텐데, 그 부분 역시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셨던 부분들이라서 쉽게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좌담회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않고 시작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가 참석하신 분들이 저를 제외해서 6분이 계세요. 참가자들이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과 자녀 명수, 그리고 자녀들 나이 정도 그리고 내가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 정도만 나누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모니터에서 보이는 순서대로 좀 불러서 진행해도 될까요?

참가자 : 네

사회자 : 네, 좋습니다. 우리 이○○님께서 소개해주시겠습니다.

이○○ :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에 사는 13살, 11살 아들 둘을 둔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 :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강■■■님 소개해주세요.

강■■■ : 종로구 평창동에 거주하고 있고, 14살, 10살 남자아이 두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입니다.

사회자 :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조☆☆님.

---

조☆☆ :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고, 애기는 10살 남자 애기, 12살 여자 애기 이렇게 두 명 키우고 있고요, 동네는 압구정동이에요.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님 소개해주세요.

김●● : 안녕하세요, 저는 김●●이고요, 12살 딸, 9살 아들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님,

서□□ : 네, 제 이름은 서□□이고요. 나이는 44살이고, 자녀는 셋인데, 열두 살, 아홉 살, 네 살 딸 아들 딸 있고요. 사는 곳은 성북구입니다.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송♣♣님, 말씀해주세요.

송♣♣ :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 잠실에 살고 있고요, 자녀는 22, 19, 14살 쌍둥이해서 딸, 아들 셋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 : 네, 반갑습니다. 여기 나머지 참석하신 분들 지금 갑자기 입이 벌어졌어요.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쵸? 아유, 좋습니다. 네 분의 자녀를 키우시는 송♣♣ 님까지 모두 자기소개를 마쳤는데요, 이제 조금 더 우리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실까요? 만족하시는 분이요? 갑자기, 전반적인 복지정책? 뭐지? 뜬금없이 질문했는데, 그래도 그냥 막연하게 아 뭐일거다 라고 생각하실 때에 한번 떠올려보세요, 잠시. 뭐가 있을까요? 복지정책. 서울시가 주관하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생각하셨다면, 내가 이 복지정책에 대해서 마음에 든다,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 아,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 대표주자이십니다. 강■■님 한 분 계시네요. 괜찮습니다. 말씀 조금 더 크게 해 주시고요, 우리 강■■님께서서는 왜 만족스러우신지, 그리고 만족스러웠던 경험이라든지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 없기때문에. 우리 강■■님께서 한번 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강■■ : 질문이 자녀 양육에 국한되지 않은 거라면,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왜 차도나 도보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운전자 위주였다면 이제 많이 보행자 위주로 변하는 것들이나, 좀 더 이제 사회적으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심각하게 다가와서 그런지 녹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많이 서울시에서 두루두루 복지적으로 추진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저희 동네에 흐르는 개천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굉장히 탁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최근에는 맑아지고 정비도, 신경 써서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가깝게 매일매일 오고 가는 길들에서 보면서 그런 것들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물론,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개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두루두루 환경을 잘 살피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그 사이에 ‘나도 마음이 바뀌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생각해 보니까 나도 만족스러워’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어, 있으세요? 네, 김●●님 말씀해주세요.

김●● : 저는 서울시의 복지 정책은 잘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도서관이나 영유아들을 위한 장난감 대여, 그 다음에 유치원 뭐 양육의 보조하는 것들. 그런 정책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자 : 아, 그러네요. 네.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야기 해 주시니까 정말 뭔가 많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변명이 없으시다면 이제 불만족스럽다. 우리 이○○님부터 불만족스러운 이유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유를 대시면서 아,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더 개선돼서 새로운 어떤 복지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라는점 까지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님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이○○ : 아, 네. 자녀 양육만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전반적인 부분이라 그래서 잠깐 생각에 여러 가지 들었었는데. 앞에 두 분 얘기 들어 보니까 저도 한, 불과 5~6년 전에 지방에 살다 왔거든요. 지방 보다는 서울이 확실히 살기가 좋은 곳이다 라는 걸 얘기 들으면서 이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생겼는데, 일단 조금 더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은 저는 요즘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쓰레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 재활용 쓰레기들

어떻게 처리 하고 있는지, 음식물, 폐기물 이런 것들. 저는 지금 빌라에 살고 있어서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과정도 굉장히 깨끗하지가 못하고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을까도 굉장히 궁금하고, 하다못해 제가 아이스팩을 계속 택배가 많이 오다 보니까, 쌓였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구청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 쓰레기 수거 하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분명히, 알아본 바에는 구청에서 수거를 해 간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도시에 가서 그걸 버리고 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버려야할까 고민하다가. 한 50개 정도를 어디다 버려야 하나 싶어 가지고, 알음알음해서 찾아가서 거기 구청에 버리고 왔는데 거기도 엄청 쌓여 있었어요. 정책은 세워져 있는데,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이런 작은 부분부터가… 공고로는 구청마다 ‘수거를 해줍니다.’ 라고 해놓았는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았고, 그러면서 쓰레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나라에서. 생각이 요즘 강하게 드네요?

사회자 :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계실까요?

조☆☆ : 정책에 대해서 다들 생각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해 봐 가지고. 육아 관련한 것은 따로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계속 주제가 2시간 동안 복지정책 전반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실 건가요?

사회자 :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질문을 할 때, 그냥 그런 생각을 염두 안 하셔도 됩니다.

조☆☆ : 네 그러면 아까 만족하신, 그러니까 만족하는 것도, 불만족도 있는데, 서울시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거를 전반적으로 다는 제가 모르죠.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만족하는 부분에 이제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 비해, 이제 자전거 렌탈 하는 경기 남부 쪽에 가면은 그 카카오 자전거를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경기 남부가. 서울시는 어쨌든 금액이 싸고, 서울페이인가 할인도 되고 하는 그런. 따릉이가 요즘 잘 되어 있고. 한강 따라가는 그 도로가 잘 되어 있으니까, 자전거 타기에는 좋더라고요. 그런 게 장점인데, 아까 송파구에 계신 분이 도서관이 잘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강남구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도서관이 경기도나 다른 외곽에 비해서 좀 열악한 거 같거든요. 강남구에 도서관, 단독 도서관이 아니고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위쪽에 있는 게 많거든요. 이제 공간이라든가, 책 권수라든가, 되게 부족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땅도 넓고 하니까, 도서관 자체가 단독 건물로 지어 가지고, 3, 4층도 짝, 열람실에서 이렇게 올리는데. 다른 지역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강남구는 도서관이 환경이 되게 열악해서 저는 그게 별로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불만족이고요.

사회자 : 네

조☆☆ : 그리고, 육아 관련해서 이제 다동이 카드. 발급받아서, 신용카드 결합하거나. 이제 단독으로 해서 쓰도록 지금 이제 플라스틱 카드를 주잖아요? 그걸 자꾸, 이게 주차할인 되는 거 말고는 제가. 아! 주차할인 그것은 ‘만족’인거죠? 주차할인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복지센터에서 할인되는 거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모바일 카드로 핸드폰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들고 다니기가 편할 텐데, 이게 자꾸 들고 다니다가, 안 들고 다녔는데 이제 할인도 못 받고 그러면 괜히 억울하니까.

사회자 : 그렇죠. 그러셨겠네요.

조☆☆ : 제가 예전에 이제 3년 전까지 맞벌이 했는데, 그때는 아기들이 좀 더 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육아휴직 하다가 복직할 때 아기를 맡길 곳이 마땅치가 않고, 아기를 보육기관에 맡겨도 보육기관에서 뭐 애를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맡길 수는 없으니까. 10시부터 몇 시 그래도, 애도 살아야되니까. 3~4시에 퇴원시키면. 그 앞뒤로 아주머니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 구할 때, 뭔가 이제 정부나 시에서 뭔가 인원을, 물론 이제 사설 업체가 많기는 한데, 그 사설 업체가 좀. 정확한 신원이라든가 이런 게 보장이 안되고 하니까, 정부에서 그런 걸 좀 연결해서 해 줄만한 게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집 근처에 좀 믿을만한 보육 시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회자 : 네, 보육 시설. 네.

조☆☆ : 잠깐, 잠깐 맡길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어쨌든 제가 그만두고, 집에 있고,



애들이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은 교육비죠. 교육비가 신경이 제일 많이 쓰이고. 다동이 카드에 월급을 삽입해 주는 거는 힘들겠죠? 두명 키우니까 뭐가 힘드니? 이랬더니, 교육비가 제일 힘들다고. 다동이 카드에 돈 좀 삽입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 엄마들이 하더라고요.

사회자 :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조☆☆님, 또 이제 자녀에 대한 부분은 자유의견을 마지막에 나눌 시간이 있는데, 혹시 지금 못 나누신 부분은 그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님. 기대가 큼니다. 네 자녀를 키우시면서 또 이제 지금은 20대를 훌쩍 넘긴. 그렇죠? 자녀들이 계시는데, 지금 복지정책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 자녀의 초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 복지 정책에 대한 불만족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송♣♣ : 처음 질문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만족하는 부분도 꽤 있어서.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서울시에서 예전에 없었는데 생긴 것들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 자녀가 많으니까, ‘아름다운 나눔 장터’ 이런 쪽에서,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그런 재활용 장터 같은 걸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 것도 알고 보니 서울시에서 개체를 해서, 이게 투명하고 규모도 꽤 크게 잘 운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거 좋았었고, 두 번째로 이번에 그 지난 지원금도 제로 페이로 받아서 10%를 더 쓸 수 있게 했던 거. 그런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따릉이를 이용해 봤는데, 걸어 다니고 힘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짧은 거리를 따릉이로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좋았고요. 안 좋은 면을 좀 생각해 봤는데, 저는 딱히 안 좋은 면이라고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로 와닿는, 복지정책이 있었는데 내가 사용을 못 했나? 아니면 내가 모르고 있는 복지정책이 있나? 와닿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직접 실행을 안 해 봤으니까 불만인 것도 별로 없는 느낌인 거예요.

사회자 : 네, 괜찮습니다.

송♣♣ : 그래서, 신경을 안 썼나보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요즘 들어서는 첫째가 22살. 막내가 지금 14살 이러니까 거의 여덟 살 차이가 나는데, 첫째 때보다 막내 때 구청이나 이런 데서 임신, 육아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뭐 카드에 뭐 돈을 넣어 준다든지, 임신부들의 대한 제도, 애기들을 돌봐 주는 그런 구청에서 주는 프로그램.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늘었

더라고요, 8년 만에.

사회자 : 비교되시겠네요, 우리 송♣♣님은.

송♣♣ : 네. 좀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면은 딱히 말은 못 드리겠어요.

사회자 : 아, 괜찮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불만족이셨던, 서□□님께서 많이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 : 저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복지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중에 아쉬운 점 그거 하나가, 개인적인 욕심이었는데,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태까지 받았던 복지정책을 좀 열거해보니까.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애들 퇴원하면 영양플러스라고 각 가정마다 이렇게 음식 꾸러미 주잖아요. 유기농으로. 그것도 아이 한 명씩 받고, 저 임신했을 때 받고, 총 네 번 받았고, 그리고 주차 할인. 공공 주차장 가면 할인을 해 주잖아요. 그게 되게 많이 부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막내 덕분에 우리가 덕분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50%가 참 많이 부담이 덜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상나라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그것도 세자녀 이상이면 무료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아주 잘 활용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아이들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지금 또 받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세자녀 이상일 경우, 어떤 조건이 되면 아이들 ‘우리들 꿈 그리기’ 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음악이랑 미술이랑 그 학원보조비를 대줘요. 그것도 지금 받고 있고. 도서관, 성북구는 도서관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열 몇 개 정도 도서관에, 각 도서관마다 5권씩. 총 성북구 내에서 20권까지 빌릴 수 있고, 다섯 명이다 보니까 다섯 명 다 짝 쓸어오면 거의 전집을 쓸어오게 되더라고요.

사회자 : 그러면 서□□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책하고 조금 많이 중복되서 혹시 아까 전에 불만족스럽다. 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 처음 생각 되어졌을 때, 뭐 때문에 불만족스러워 썼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서□□ : 단발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단발성은 이렇게 아이들 꿈 그리기 같은 경우나, 아님 영양플러스 같은 교육이랑 이제 애들 먹는 거 그런 거가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안 돼요.

사회자 : 아, 일회성으로 끝난다.

서□□ : 네 일회성으로 끝나서.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 그것 하나가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자 :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이제 또 좋은 부분에 대해서 하시려고 했던 부분은 좀 있다가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 나누시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요, 보건복지부나 이런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 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정책이 따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것이 구분이 가능하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되게 낯선 질문이지요?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따로 있고, 서울특별시 같은 이런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정책이 구분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일단 한번 손을 들어 보실까요? 구분한다. 구분한다, 한 분? 서□□님? 자,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 난 구분이 어렵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좁혀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다자녀 정책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모두 이야기해 주세요.

사회자 : 네. 송♣♣님 말씀해주실까요? 아는 것.

송♣♣ : 다둥이카드.

사회자 : 다둥이카드? 네, 괜찮습니다. 맞아요. 네, 네.

송♣♣ : 그거 하고, 그리고 아까 주차 할인되는 것 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회자 : 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자, 우리 강■■■님?

강■■■ : 구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둘째, 셋째 나면, 출산 축하금을 주지 않나요?

사회자 : 출산장려금?

강■■■ : 네, 네.

사회자 : 그다음, 또?

조☆☆ :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둥이카드에 주차할인 말고 문화센터 할인도 되거든요. 그게 구마다 다른걸까요?

사회자 : 네, 문화센터 할인. 또 뭐가 있을까요? 다자녀 정책,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그냥 말씀하셔도 되요.

서□□ : 그, 뭐지? 아이들 학교,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사회적, 사회적 배려자 전형 이라는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3자녀 이상일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잘 모르겠지만.

사회자 : 알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셨던 거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서울시 소관으로 소개된 제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게 뭐냐면 다둥이 행복카드,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하수도사용료 감면,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중에 자동차 취득세, 가스요금, 전기 사용료 감면이 사실 서울시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이제 고려 하셨을 때, 서울시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난 만족한다.' 앞에서 이런 정보 없이 만족, 불만족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에 소개된 제도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셨을 때,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난 만족한다. 손들어주시죠, 난 만족한다. 네, 만족한다. 강■■■님? 그럼 우리 강■■■님께서 어떠한 경험이라든지, 어떠한 생각 있으셔서 만족스러우셨는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강■■■ : 앞에서 말씀해주신 다둥이 행복카드는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액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들이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이나, 아까 말씀하신 국민임대주택 그런 것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혜택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정

책 자체가 다자녀를 위해서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저에게 직접적으로 제가 혜택자는 아니었지만,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머지 분들은 불만족이라고 표시해 주셨는데요.

김●● : 저는 만족.

사회자 : 아, 만족? 네, 김●●님. 만족하는 이유 좀 한 번 설명해주실까요?

김●● : 저는 애들 키우면서 혜택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서울시에서 하는 거, 출산장려금? 그런 거 양육비 지원받을 때 소소한 도움이 됐고.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도 두 명도 장기주택, 국민임대주택에 살면서 굉장히 많은... 집 값 때문에 고생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스러워요, 그런 면에서는.

사회자 : 네 좋습니다. 또 그사이 만족스럽다? 없으신 분들. 우리 이제 이○○님? 불만족스러운 이유 한 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이○○ : 저는 조금 서울시가 혜택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제가 받은 게 많이 없었나 봐요. 제가 좀 지방에서 살다가 돌아와서 그랬는지. 아이들 어릴 때 받았어야 할 것들 많이 못 받긴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다자녀의. 2자녀하고 3자녀 혜택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다둥이 카드를 제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3자녀가 굉장히, 월등히 많아요. 사실 3자녀 이상 돼야 다둥이가 맞긴 하죠? 근데 이제 두 자녀는 워낙 많아서 그런지, 혜택 폭이 달라요. 세 자녀가 50% 받을 때 두 자녀는 20% 받는단가. 이렇게 좀 차이가 굉장히 좀 커서 두 자녀까지 혜택을 주실 거면 조금 더 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요. 피부로 받는 거는 거주자 우선 주치를 했을 때, 두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도만 저희집은 체감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더 확대해서 해주고, 좀 다양하게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못 받아서 그 정책에 대해서 불만족이라고 표현한 거지,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많으니까, 저 외에도. 정책면에 있어서는 좋은 정책이 많네요? 오늘 알게 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자 : 좋습니다. 자, 우리 송♣♣님.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우신지요?

송♣♣ : 오늘 얘기해주셔서, 제가 받고 있던 혜택을 좀 많이 알게 된 부분도 있지만, 이게 금액적으로 환산해서 플러스를 했을 때, 정말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내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구나라고 확 와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소소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또 이게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들도 좀 많이 있네요. 문화센터라든지, 그렇게 이제 생활이 바쁘거나 그런데 신경 못 쓰면 아예 날아가는 혜택들도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솔직히는 다둥이 엄마들이 모였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출산 문제가 국가 미래의 가장 큰 데미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굵직 굵직하고, 정말 내가 이 혜택을, 이런 미래를 국가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어떤 나의 만족감과 국가의 미래를 다 골고루 생각했을 때, ‘확 당기는 그런 혜택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자 : 네, 네. 그럼 혹시 조금 더 나의 다자녀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이것만큼은 정책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있으실까요?

송♣♣ : 저 같은 경우는 그 장기공급이나 다자녀 특별공급처럼. 가장 큰 것이 주택과 공급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좀 그걸 못 누린 좀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기는 했습니다. 특별공급 같은 경우도 서너 번 했는데 매번 계속 떨어졌고. 그래서 혹시 뭐 몰아갈 일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솔직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소소하게 나눠 주는 그런 예산들이 차라리 뭐 다둥이 집에는 아주 저리로 큰 금액을 대출해 준다든지 그렇게 한 방에 몰아서 해주시는 건 어떨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사회자 : 네, 좋습니다. 우리 조☆☆님 불만족스러운 생각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조☆☆ : 예전에 비하면 정책들이 많이 바뀌었고 아기를 놓으면서 출산장려라든가, 기타 등등 예산이 없고, 또 초등학교도 무상급식이다 이런 거는 더 나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이 다둥이 정책에서 아까 송♣♣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책을 해서 내가 그러면 한 셋째까지 낳아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사회자 : 아, 그러면 조☆☆님. 혹시 조☆☆님께서 어떤 정책이 세워지면 ‘아, 내가 셋째 한번 낳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조☆☆ : 약간 이게 중복되는데, 송♣♣님 말씀과 중복되는데. 제가 몇 명 이제 이거 여기 정책 회의까지 하니깐, 좀 뭘 알고 가야 될 거 같고,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떤가 싶어서 그냥 동네 엄마들하고 몇 명하고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이랑 교육이거든요.

사회자 : 네, 네. 집과 교육.

조☆☆ : 집과 교육인데, 뭐 나라에서 집을 다 구해 줄 순 없으니까. 집이 점차 좋아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전세임대주택이나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매달 매달 우리한테 직접 와 닿는 것은 교육비가 제일 큰데. 자녀가 한 명 늘어서 인해서, 우리가 줄여야 하는 돈이 몇 배가 또 확 늘어나니까. 그런 부담감이 좀 많죠. 근데 정부에서,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수도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파트 관리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할인이 되는지도 모르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할인이라고 내가 직접 몸소 체험한 것은, 다동이 카드로 3,000원 주차비가 나온 걸, 30% 할인해서 9백 원 할인받는거요 정도가 그냥 소소하게 찾는 다동이의 행복인 거ですよ.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더 낳아봐?’ 이런 생각은, 내가 왜 둘을 낳았을 때, 하나하나 잘 길러볼까. 그래서 외당은 정책이 말씀 하신대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비가 가장 걱정이긴 해요.

사회자 : 네, 알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에 대한 정책. 우리 서□□님. 불만족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 : 처음에 이제 셋째 낳고 나서 얼마 동안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라에서 많이 해 주냐고. 근데 그게 가지 수는 많아요.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한 부분은 분명 있어요. 다양한 부분에서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게 확 외당지는 않아요. 전기세도 만 육천 원 한도 내에서, 한도 내에서 몇프로 정도. 가스비도 겨울에 많이 드는데

얼마 내서, 2,400원인가? 되게 그냥 그 선심성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했다!’ ‘너네 받았지?’ 얼마 받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너네 받았지? 라고 그냥 가짓수만 늘렸지, 실제로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 줬으면. 셋째가 됐으면 확 못 박아서 죽 갔으면 좋겠어요.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 안 하신 분 계실까요? 없죠? 그러면, 그렇다면 서울시 다자녀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있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점수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전혀 강화할 필요가 없다 를 0점으로 두고요, 매우 강화할 필요가 있다를 10점으로 두겠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몇 점을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서□□님부터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서□□ : 6점?

사회자 : 6점?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6점. 우리 이○○님은요?

이○○ : 뭐, 점수를 매겨서 강화가 될 거 같으면. 저는 10점 다 주고 싶은데요. 강화할 필요가 있죠.

사회자 : 네네. 좋습니다. 우리 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 : 네, 저도 한 8점 이상이요.

사회자 : 8점? 네. 우리 조☆☆님은요?

조☆☆ : 저도 극단적으로 10점 가겠습니다.

사회자 : 10점. 네, 우리 송♣♣님은요?

송♣♣ : 저도 10점!



사회자 : 네. 반드시 강화할 필요성이 보여집니다. 네, 김●●님은요?

김●● : 저는 한 5점?

사회자 : 아, 5점?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에서 ‘꼭 말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을까요? 좀 아까 생각한 것이 있는데, 말하지 못했다. 없으신가요? 이렇게 처음 만난 분들끼리 솔직하게 본인들의 생각을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잠깐만 쉬실까요?

사회자 : 그럼 다시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계신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전혀 스트레스나 부담이 없다가 0점이고요. 매우 스트레스가 높다. 부담이 높다고 하면 10점입니다. 돌아가면서 몇 점 정도만 인지 이야기를 해보지요. 그럼 우리 자녀가 가장 많으신 송♣♣님부터 돌아가시면서 한번 이야기 해 보도록 하실까요?

송♣♣ : 저는, 0점이에요. 뭐 애들 키우고 이런 거에서는 자연스럽게 자기들 하고 싶은 것 하게 하니까, 애들 키우면서 스트레스 뭐 이런 건 잘...

진행자 : 와 대단하세요. 다른 분들도 다들 좀 놀라는 눈치인데, 자녀 키우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다니... 다른 참가자분들도 점수로 이야기 해 볼까요? 예, 조☆☆님.

조☆☆ : 저는 한 6점 정도요. 앞에서 0점이라고 하셔서 좀 그렇기는 한데 저는 부담이 중간보다는 조금 더 있어서 6점 하겠습니다.

강■■■ : 그럼 저는 4점이에요. 중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낮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행자 : 자, 강■■■님은 4점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이○○님은 몇 점 점수를 주시겠어요?

이○○ : 저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매번 막 너무 스트레스다 이렇게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 좋은 것도 있어서, 가운데 딱 중간 5점 할래요.

진행자 : 이번에는 서□□님이 몇 점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서□□ : 저는, 좀 애들 때문에 아니 아이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힘든 시간이 많이 있어서 10점 하겠습니다. 지금도 막 마음이 힘들고 그러네요. 아무튼 스트레스나 부담으로 친다면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진행자 : 아, 10점이 나오셨네요. 아무래도 육아부담이라는데 작지가 않죠. 0점과 10점이 같이 나오셨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김●●님께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부담, 스트레스 이런걸 10점으로 하신다면 몇점 정도일까요?

김●● : 방금 10점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 그렇게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이들 키우는 데 육체적으로나 그런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조금 한 2점 정도요.

진행자 :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야기를 바꿔서 자녀가 늘어날수록 스트레스도 많이 늘었는지 한번 나눠 볼텐데요, 여러분들은 몇 번째 자녀부터 스트레스가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다 힘들셨겠지만 그래도 몇 째 때 가장 힘들었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이전보다 많이 늘었다 이런걸 좀 이야기 해 주세요. 문선 그럼, 강■ ■님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강■ ■ : 저는 첫째가 태어났을 때 가장 힘들었는데, 뭐 아무래도 처음 겪는 일이고 나중에는 한번 해 봤으니까... 첫 째 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회자 : 다른 분들은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안계신가요?

김진희 : 저도 강■ ■님 말처럼 첫 째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회자 : 송♣♣님이나 김●●님은 힘들지 않으셨다고 하셨고,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부담이라던지, 스트레스라던지. 네, 서□□님 말씀해 주세요.

서□□ : 저는 앞에 말씀해주신 분들이랑은 조금 다른데... 스트레스는 아니고 뭐라고 말해야 하나? 자녀 수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증가 된다고 보다는, 두명까지는 좋았지만 세명부터 어렵다. 저는 그래요

사회자 : 아 또 이야기해 주실 분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자녀양육을 하시면서 가족 주위에 도와주는 분들이 계실까요? 고용한 뭐 도우미도 괜찮고, 부모님도 괜찮고, 자녀 양육을 하는데 어떤 지지적인 체계가 조금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님부터 이야기해 주실까요?

서□□ : 네, 저는 친정이나 시댁이나 다 서울에 계시기는 하지만 그냥 저 혼자 잘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 없어요, 지금.

사회자 : 아, 도우미 없으시고요. 우리 김●●님은 어떻게 되실까요?

김●● : 저도 남의 도움을 받은 적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제가 또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제가 두 명을 케어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 가지고, 도우미가 필요하다거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거를 느껴본 적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사회자 : 그럼 지금 서□□님과 김●●님은 그 전업주부로서 자녀양육을 하시고 계신 상황이에요?

서□□, 김●● : 네, 네.

사회자 : 우리 강■■■님은 혹시 도움을 받는 분 계실까요?

강■■■ : 저도 아이들이 지금은 커서 지금은 없는 상태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전업주부 이기 때문에, 대신 남편이 조금 가사나 육아에 좀 많이 도움을 많이 주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첫째 낳고 근데 둘째 태어났을 때, 첫째랑 둘째랑 터울이 다섯 살, 네 살이 차이가 나는데, 그때 둘째를 베이비시터 이모님이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오셔가지고 둘째를 많이 케어,

갓난아기였을 때 많이 케어해주셨어요. 그때 한 1년 정도 말고는 없습니다.

사회자 : 아, 그러셨군요. 네. 애쓰셨어요. 다들 아이들 키우시느라고. 그래서 우리 송♣♣님은 어 떤데요?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직장생활을 좀 하시는 거 같았는데?

송♣♣ : 저도 쌍둥이 낳았을 때 막내 둘 낳을 때 시어머님께서 첫째 둘째를 한 1년 정도, 제가 보면서. 반 정도 봐주신 것 외에는 제가 다 키웠습니다. 도움 받은 건 거의 없습니다.

사회자 : 힘드셨겠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조☆☆님은 혹시 도와주시는 분 계실까요?

조☆☆ : 양가 부모님이 다 지방 계셔 가지고. 그 분들이 도와주시긴 힘드시고, 제가 큰애 여덟 살, 입학할 때 회사 그만뒀거든요. 그전까지는 도우미분이 계속 계셨는데. 그 때까지 계 션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사회자 : 아, 그러면은 자녀분이 여덟 살 됐을 때 이제 퇴사를 하셨나 보네요?

조☆☆ : 예. 제가 퇴사하고, 이모님 퇴사 당하시고. (웃음)

사회자 : 아, 그렇게 되는군요. 자녀 양육 때문에 퇴사하셨나요?

조☆☆ : 그냥 1학년 때는... 그 영향이 오직 그것 때문에는 아닌데 어쨌든 영향을 미치긴 했죠. 어쨌든 애가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가니까 뭔가 회사도 조금 줄이거나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사회자 :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 양육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분이 대부분이신데, 그렇다면 혹시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부담감과 함께 이게 가족이 나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변진 경험이 없으신지 한번 이야기 좀 나눠 주십시오. 그 리고 그 경험이 있다면, 주로 누구하고 갈등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그 갈 등이 발생했었는지까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든분들이 다 대 답을 해 주세요. 우리 송♣♣님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송♣♣ : 저는 솔직히는, 누구한테 기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대거나, ‘내가 이 정도 힘든데 누가 좀 도와줘야지’라고 바래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갈등상황은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런 육아스트레스를 0점이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는 솔직히 애들한테 큰 기대라기보다는 뭐를 해라 지시하고, 그게 거부가 나와서 개랑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학원도 안 보냈고, 약간 좀 특이하게, 보편적으로 어머니들이 하시는 그런 거를 잘 안 하는 타입 이어가지고 제가 스트레스가 없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갈등도 별로 없었고, 어른들이나 주변에 뭐 ‘내가 이 정도니까 서로 좀 도와야지’라고 바라보거나 얘기를 해서 거절당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 갈등도 없었습니다.

사회자 : 그럼 송♣♣님은 보통 가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있으세요?

송♣♣ : 그냥 좀 자연스럽게 받아내는 편이거든요?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끼리 투닥거리고, 공부 잘하는 놈도 있고, 못 하는 놈도 있고, 그리고 꼭 학원을 가야지만 아이들이 케어를 받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약간 그렇게 좀. 아이가 많으면 생기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러워서, 왜냐하면 밥도 많이 해야되고 뭐 이런 것들. 내가 당연히 육아에 할애하는 노동 시간이 길어질수 밖에 없는 것도 내가 낳았으니 당연한 거고,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는 면이 있어서, 별로 갈등이나 불만, 힘들..., 이렇게 생각은 별로 안 했습니다.

사회자 : 우리 송♣♣님은 또 첫째, 둘째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당시 있었던 스트레스가 이제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분리되고 해소된 느낌도 드는데, 반면에 지금 가장 나이가 어리면서 다둥이를 키우고 계시는 우리 서□□님.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서□□님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있었을까요? 또 누구하고?

서□□ : 갈등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이라는 거 내가 원했을 때 그것이 안 들어졌을 때 그것이 갈등이었기 때문에 저도 남편한테 애들 봐 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안 봐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안 하고, 얘기해 주면 또 봐 주고, 얘기해주

면 좀 봐 주고. 즉, 그러니까 자기가 전담해서 하는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그만 걸로 감사하다 보니 그리고 어른들도 이렇게 봐 주겠다고 나서는 분도 안 계시고, 그리고 봐 달라고 하면 좀 그래서 그냥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제가 하는 제가 하는 선에서 거기에 테두리를 딱 정하다 보니깐 별로 다른 사람과 갈등 없고 저 자신과 갈등이 있었던 거 같아요.

사회자 : 본인 자신과의 갈등? 본인 자신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서□□ :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이렇게 한하는데 막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뭐라 할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맞나 내가 이 아이들한테 나는 정말 유익한 사람인가. 엄마를 떠나서 이 아이가 나한테 있어서 혹시 다른 저희 시어머니가 기르시면 더 잘 기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자리 빠져 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많고 해서. 그래서 계속 그런 갈등이 심했던 거 같은데 그런 거에 좀 내려놔어요. 내려놓고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애들은 엄마가 필요한 거지 어떤 유능한 스킬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생각이 정리가 됐습니다.

김●● : 솔직한 나눔 감사해요, 우리 그럼 김●●님은 어떠세요. 혹시 그런 스트레스가 누구하고 갈등이 좀 있었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김●● : 저는 갈등이라기에는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념이라든가, 그런 거에서는 이제 아기를 기르고 그것을 이제 다 성장 시키는 게 나의 책임이고 부모에 대한 책임이고 감당해야 될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 뭐 스트레스가...

사회자 : 가치관의 영향이 크셨나요, 그러면?

김●● : 네, 네. 갈등이 있어도 제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성장한다고. 이렇게 그것이 밑거름이다 성장이 밑거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심한 갈등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서는. 그리고 애들을 기르는 과정이 내가 성장하고 애들이 같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과정으로만 인식했던 거 같아요. 갈등이라기보다는.

사회자 :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님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셨을까요, 누구와 함께?

이○○ : 저도 아이들을 제가 이제 양육했는데요. 부부가 같이 양육을 했는데요. 제가 일을 시작한 건 다시 1년 좀 됐고요. 제일 문제는 자녀하고 저하고의 부딪힘이죠. 큰 애가 이제 내년이면 중학교 입학 하는데, 아들이고 저는 여자고, 엄마고. 서로 성격에 차이가 인제 아이가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시작이 되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죠. 속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엄마는 이제 벌써 입학해서 벌써 저는 진행이 되어있는데, 아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런 속도에서 오는 아이하고의 갈등인 거 같아요.

사회자 : 아. 그래요. 예, 자녀와의 관계의 갈등.

이○○ : 네, 그렇게 시작이 됐죠. 어릴 때는 그냥 엄마 말이면 듣고 하자 그러면 하고, 따라오는데는 그게 아이가 커가니까, 그 아이를 그 인격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저의 문제가 생기고, 아이도 받아지는 엄마를 받아들여야 하니까 본인도 달라지고. 그런 데서 오는 게 제일. 주로 이제 남편하고 대화를 하고요. 애가 커 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교육이나 당장 이제 입학해야 하는 중학교 문제나 이런 부분은 주로 남편하고 대화하면서 이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조☆☆님 이야기해 주실까요?

조☆☆ : 이 부분도 약간 육아서적에 나오는 답변... 이게 지금은 뭐 그렇게 큰 갈등까지는 아닌데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이제 집에 이모님이 퇴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까지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반복적으로 이제 뭐 제가 들어가고 신랑이 자꾸 뭐 늦는 시간이 자주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갈등이 생겼었고.

사회자 : 그러면 남편분과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조☆☆ : 그렇죠. 애기를 키우면서 뭐 그런 거. 지금은 그냥 애들 이제 교육 방법을 학습량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배우자랑, 신랑이랑 그런 거에 뭐 의견 충돌이 좀 있긴 한 적도 있고 그렇죠.

사회자 : 교육적인 가치관의 차이? 맞을까요?

조☆☆ : 네, 네.

사회자 :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들이 사실 작게 크게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좌담회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과거가 되어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게 혹시 가족 관계의 어떤 극도로 위기 상황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조☆☆ : 육아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요?

사회자 : 네, 네. 관계의 어려움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극도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조☆☆ : 아기를 놓자마자 베이비시터를 바로 못 구해가지고, 그때 애기를 지방에 두 달, 뭐 친정에 두 달, 시댁에 두 달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냥 이제 뭐 지금 제가 하고있는 직장생활이라든가 이런 게 내가 잘, 애들 놓고 이렇게까지 떼 놓으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되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회자 :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는 직장생활 하시고 그러셨으니, 정말 힘드셨겠네요, 혹시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 풀어 가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세요?

조☆☆ : 제가 말할까요, 먼저?

사회자 : 네, 말씀하세요. 조☆☆님.



조☆☆ :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이제 육아나 아이, 배우자, 기타 등등은 발생하는 그 원인은 거의 뭐 사람 살아가는데 거의 비슷한 원인이 많으니까, 비슷한 동네 엄마들이나 지인들 만나서 수다 떨고 여행 가고 그런걸로 푸는 편이에요.

사회자 : 지인들과 수다 떨고 여행가고. 또 다른 분들은요? 네 우리 강■■■님 말씀해 주세요.

강■■■ : 저도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앞에 서□□님이랑 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어렸을 때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나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좀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주장이 있는데 그게 저랑 대치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 이후, 아이들이 큰 다음부터는 이 아이들이랑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게 조금 갈등이 심해졌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이게 뭐지 아이는 아이 입장이고 저는 저 입장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견 좁히고 한다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이는 아직 어리고, 저도 그렇다고 해서 엄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선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는 보면 양육 서적도 많고, 육아 서적도 많고, 또 유튜브에 보면 그런 교육이나 그런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많이 나오는 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섭렵하고, 모든 상황의 아이들에게 또는 저에게 적용할 순 없지만 전문가들의 그런 말들이나 조언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부분, 제가 소화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도 그런 영상이나 책을 통해서 알게 되면, 제가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부분도 많아지기 때문에, 아이들도 ‘엄마는 이래’ 하면서 이야기 하는 것 하고,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어떤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 그렇게 그런 부분들의 말을 빌려서 아이들에게도 전달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제가 감정을 실어서, ‘엄마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네가 이렇게 해야지!’ 어떤 그렇게 말이 나가지 않고, 제3자, 전문가의 말을 빌려서 아이들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자 : 네, 네. 감사해요. 혹시 다른 분들도 두 분이 나누신 것 이외에, 나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노하우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김●●님.

김●● : 저는 아이들하고 항상 함께 있잖아요. 전화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도 좀 소소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꼭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산책을

나가요.

사회자 : 산책하시면서 해소할 수 있다?

김●● : 혼자.

사회자 : 네, 혼자. 혼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 스트레스도 사실 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우리가 조금 극에 달하면, 내가 혼자 스스로 개인의 마음을 컨트롤 할 수 없을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상담을 받고 싶다, 상담센터 한번 찾아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상담을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전문가를 만나신 경험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주세요. 아직은 없으세요? 아, 오 있어요? 네, 네.

이○○ : 저 때문에 받을 건 아니었고, 저희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약간 소변을 자주 보는 습관이 생겨서 유치원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놀이 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에 부모 상담을 같이 받았어요.

사회자 :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효과성을 좀 잠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 : 저는 이제 도움이 됐어요. 이제 초반에 가면 아이의 성격검사, 부모의 성격검사, 이제 부모의 원 부모하고 관계에서 나오는 뭐 인제 스트레스였든, 뭐든 간에 다 조사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제 안에 있었던 문제도 발견하고, 이제 아이가 갖고있는 불안이나 걱정이나 그것도 발견하고 아이의 성격도 일단 표시되어 나오고, 그래서 아,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배우고, 그러면서 한 1년 반 정도를 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이제 확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일단 그 시간을 즐겨 워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좀 됐구요. 저도 이제 그 아이가 '이런 문제가 원래 있었지.' 싶으니까 좀 조심하게 되는 영역도 있고요, 저의 연약함도 이제 많이 알게 되었구요. 또 상담이 좋았어요, 저는.

사회자 : 다른 분들은 이용해 본 경험이 없으시더라는 건데. 오, 있으세요, 강■■■님? 네, 말씀해

---

주세요.

강■■■ : 저도 생각해 보니까 지금 큰아이가 14살인데 그 아이가 이제 6년 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떠나서 학교생활을 하고 공교육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예민하고 많이 까칠한 남자였거든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큰아이에 대해서 모른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 가지고요. 아이의 기질이나 성격이나 그런 것들을 저는 꾸준히는 아니고 단회적으로 검사를 받고, 그래서 전문가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좀 큰 그림으로, 이런 성격의 아이는 어떤 교육과 어떤 양육 방식이 맞을 거라고 그런 조언을 얻어서, 제가 이제 아이를 그 이후로 키우면서, 조언을 항상 조금 많이 생각하고 적용하면서 키우려고 노력했던 생각이 나네요.

사회자 : 아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가 심리적 정서상담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시, 참여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좀 이야기 해 주셨으면 하는데, 참여 의사가 매우 높다를 10점. 참여 의사가 전혀 없다 0점으로 기준 했을 때, 여러분들은 몇 점을 생각하실까요? 자, 웃고 계신 우리 서□□님. 몇 점정도? 지원 제도를 이용하겠다.

서□□ : 저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 10점.

사회자 : 10점. 10점 나왔습니다. 김●●님은 몇 점정도?

김●● : 저도 아이가 필요하다면 받을 의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 8점?

사회자 : 8점 정도. 지원 제도가 생기면. 우리 강■■■님은 몇 점정도?

강■■■ : 이게 부모에 대한 건가요? 아이에 대한 건가요? 어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마련해주는 그런?

사회자 : 네, 네. 그거는 이제 가정에 대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생긴다면, 정책에 생긴다면.

강■■ : 저도 한 9점 정도?

사회자 : 9점 정도. 네, 좋습니다. 우리 송♣♣님은 몇 점 정도 주실까요?

송♣♣ : 제가 직접 상담받고 싶은 것은 아직은 저는 필요를 못 느끼지만, 그런 제도가 있다면 제가 또 제 자신을 착각할 수도 있고, 해서 한 5점 정도.

사회자 : 5점. 네, 네. 자, 조☆☆님은 몇 점정도 주실까요?

조☆☆ : 서울시에서 심리상담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저는 이용해 볼 것 같아요. 저는 이용해 볼 것 같아요. 10점이에요.

사회자 : 10점.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생기게 된다면, 상담 받고 싶은 분야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상담을 받고 싶다. 네. 우리 이○○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으실까요? 앞으로 받게 된다면?

이○○ : 지금 청소년센터나 이런 데서 아이들의 성격검사나 직업 영역에 대한 검사는 해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더 전문가가 투입해서 제대로 된 검사지에 의존하는 검사가 아니라, 나는 검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거라면 그런 아이들의, 본인의 성격이나 진로 탐색에 대한 검사가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나, 불안도나 이런 거를 좀 해줄 수 있는 심리상담? 그럼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같이 받을 수 있는, 또 부부가 서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자 : 만약에 본인이 비용을, 일부를 내야 한다면 얼마까지 지불 하면서 참여하실 의사가 있을까요?

이○○ : 제가 5,6년 전에 놀이치료 받을 때 1회당 15만원 이었어요. 굉장히, 단가가 좀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지금 이게 뭐 단기성, 이게 단기성으로 받아서는 심리검사가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받아야 걸 생각했을 땐, 1회 5만원

이내?

사회자 : 5만원 이내, 좋습니다. 몇 번까지 참여를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님은 과거에 오랜 시간 경험을 하셨지만, 혹시라도 받게 된다면 시간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부담 없이 몇 번 정도?

이○○ : 저는 이제 지금 당장 자녀한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10회? 10회 이상? 네, 10회.

사회자 : 좋습니다. 자, 우리 김●●님은 어떤 부분에서 상담받고 싶을까요?

김●● : 저는 만약에 아이들이 문제행동이 있다면, 놀이치료, 그림치료, 그다음에 음악치료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는 치료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격 유형 검사나, 아이들이 어떻게 진로를 개척할 것인지, 그러니까 진로 상담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저는 한, 국가지원 받는다 그레 가지고, 한 3만 원 정도? 10회 정도 할 의향이 있어요.

사회자 : 네 좋습니다. 우리 강■■■님은 생각 나눠 주십시오.

강■■■ : 저는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자녀가 있는 가정에 조금 더 이렇게 1차원적으로,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그런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부모교육'이 아이를 낳기 전에 좀 선행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거든요.

사회자 : 네, 좋네요. 네, 네.

강■■■ : 어떤 면허증이나, 학교를가기 위해서도 오랜 시간을 준비하는데 사실 부모가 된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일인데, 너무 물론 결혼을 하고 성인이 되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준비나, 공부나 그런 것들이 지식적으로나 너무 부족한 부모들이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마다 학대며, 방치며, 그런 아이들이 사실 아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잘못 이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런 부모, 처음에 임신했을 땐, 의무적으로 부모교육도 필요하고, 저희가 왜 우리 몸을 위해서는 2~3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도 하잖아요. 정기검진을 몸을 위해서 하듯, 부모들이 어떤 말씀하신 심리나 그 정서를 위해서도, 하기는 너무 힘들겠지만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사회자 :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1회에 얼마까지 우리 강■■■님은 지불의사가 있으실까요?

강■■■ : 저도 한 3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 한 6개월 이상은 어떤 이런 치료들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상담받고 싶은 분야가 어떤 분야이실까요? 관심 분야가.

조☆☆ : 그냥 저는 이게 뭐 치료 이런 것 보다는, 일단은 지금 아이와 나의 현재 심리 상태가 어떤지. 지금은 저는 괜찮은 거 같고, 아이도 괜찮아 보이지만, 심리검사 테스트를, 검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아이는 성향검사라든가, 진로상담 아까 말씀하신 거. 기질검사 포함해서. 심리상태를 검사했는데, 여기서 만약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해야 된다면 그건 기간을 안 두고 치료에 뭔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할 것 같아요. 비용은 싸면 쓸수록 좋겠지만, 현재 시가에서 한 50% 이상은 낮았으면 좋겠네요. 치료가 필요하다면 회당 5만원 미만?

사회자 : 네, 네. 한 몇 번까지 참여하실 생각 있으세요?

조☆☆ : 이 치료를 받고, 아이가 반응이 나올 때까지. 상담사 선생님이 아, 이 정도면 해소해도 된다고 할 정도? 봐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제가 뭐 다섯 번 한다고 애가 다섯 번 만에 괜찮아질지 안 괜찮아질지 모르니까. 그거는 횟수를 정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사회자 : 아,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송♣♣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 : 저는 먼저는 예방 차원으로 먼저 해보고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료로 하는 상담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테니까, 전문가가 문제를 짚어낸 다음에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필요성이 느끼게 한 다음에 유료로 전환하면 좋지 않을까?

사회자 : 아 그럼, 우선은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서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 다음에 유료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럼 유료로 전환한 다음에는 1회에 얼마 정도가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유료 상담은 몇 회 정도 참여하실 것 같으세요?

송♣♣ : 상담이 필요하다면 저는 한 5만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자 : 그럼 횟수는 몇 회 정도가 좋을까요?

송♣♣ : 저는 개인적으로 10번 정도면 적당하다고...

사회자 : 예, 5만원 정도, 10회,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서□□님은 어떠신가요? 세 자녀 키우시면서 상담 필요성도 아까 10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어떠세요?

서□□ :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이 있거든요. 원래 아이 키우는게 힘이 드는게 1명이면 2배, 2명이면 4배, 3명이면 8배 힘들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관계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늘어날수록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1대1 관계 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애들끼리로 나이가 들면 사이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가 많아지는 관계들 안에서 그들 사이에 필요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지내보니 가족 사이에서도 문제가 뭔지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계속 해도 괜찮나요?

사회자 : 예, 거의 마지막 질문이라서 상세하고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괜찮으시죠? 대신 좀 간결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서□□ : 예, 알겠습니다. 원래 금액 이야기하려다가 말이 좀 길어 졌는데, 제가 사실 이런 거 비슷한 걸 구에서 신청한 적이 있어요. 못하기는 했는데….

사회자 : 구청에서 이런 정책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 이번 좌담회에서 꼭 필요한 사례인 것 같네요.

서□□ : 예, 구청에서는 저소득하고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 심리지원 및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5인 가족이라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어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한지 선생님들이 몇 분 안 계신지… 아이들 상담 가능한 시간이 비슷해서인지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받지 못했어요. 그때 성북구에서는 1회당 2만원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정도면 참석하는데 부담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신청했고, 그리고 뭐 반드시 오프라인일 필요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1:1 상담도 가능할 듯 한데… 싶네요.

사회자 : 그렇다면 회수는 몇 회기 정도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서□□ : 횟수 딱 정해 놓기보다는, 아이가 개선이 보일 때까지 하는게…

사회자 : 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정해진 질문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무슨 이야기라고 더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앞에서 답하지 못하신 내용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자유의견을 좀 내주셔도 좋습니다. 예, 송♣♣님?

송♣♣ : 제일 처음에 나온 이야기인데, 중앙의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너무 지원하는 그런 것들. 정책이라고 해야 하나 서비스가 많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용하려면 이런 것을 좀 일원화한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정책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좀 센… 그런 지원? 그런 정책을 만들고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말하자면 돈 문제 이긴 한데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다자녀 가족에게 많이 만들어주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다자녀 가정 초저금리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지금도 뭐 셋째는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대학교육비 면제라던가… 첫째나 둘째도 대학교 들어가는 건 똑



같으니까요. 그런 정책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자 :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체감적인 정책이 중요하다는 말씀같은데, 결국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다른 분들 더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예, 이○○님. 말씀해주세요. 다들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이○○ : 막상 이런 자리에서 말하라니 생각나는 것들이 있네요. 아까 서□□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생각 난 것이 있어서 이야기해요. 저도 굉장히 이용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정책이 있었어요. 주민센터에서 지원해 줘서 우리 지역에서 시행하던 건데, 대학생 멘토제도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건데 대상이 안 되어서 못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무료 과외 같은 건데, 이런 것처럼 검증된 대학생들과 과외형식으로 다자녀 아이들과 연결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자 : 이○○님 사시는 곳이 대학생이랑 어린이들 연결시켜 주는 제도가 있었다는 말이죠?

이○○ : 예, 그런것들 좀 크게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 확대, 비용해택 이런거요. 사실 아이들이 운동 같은 것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은데, 수영이나 스케이트 같은 계절 운동도 특히 그렇고 농구나 축구, 배드민턴, 탁구...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사교육으로 시키기에는 너무 비용부담이 높을 때가 많아요. 아이도 한 명이 아닌데. 방학특강 같은 프로그램에서 교육청에서 모집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이 넓어서 차량픽업 문제로 참여가 어렵더라고요. 이런 체육활동들을 살고있는 지역 내에서 쉽게 접근하고, 다양하게 교육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참여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회자 : 예, 학업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운동하고 그런것도 중요하죠.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평균 체중이 늘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집에서 활동적인 아이들 돌보시려면 우리 어머니들 많이 힘드실 것 같네요. 예, 또 말씀하실 분. 네, 강■■■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강■■■ : 예, 양육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면, 저는 아이 키우기 전에 아이 가졌을 때 출산 전에 의무

적인 부모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정보를 얻거나 그런데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요새 아이들 학대하거나 안 좋은 뉴스들 많잖아요? 그런 좀 사각지대에 놓은 지원대상 가정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에도 좀 좋은, 안전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방금 이야기한 학대도 그렇지만, 미디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사건이나 사고 소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해야 한다고 하나? 아무튼 자녀들을 안전하게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사회자 : 예, 돌봄이나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 자체를 조성해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계신 참석자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없으신가요? 예, 조☆☆님 말씀해주세요. 다들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조☆☆ : 저도 마칠 때 되니까 이것 저것 생각이 나네요. 앞에도 말했지만 다등이카드 모바일 버전 만들어서 좀 교육비도 지원해주고, 그 걸고 결제하면 학습지도 무료로 지원해주고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할인율로 지금도 다등이카드 할인율이 2인 자녀는 30%고 3자녀는 50%로 알고 있는데, 사실 2자녀 가정도 다등이 가정으로 인정해 주는 이상 2자녀도 실질적으로 할인을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원금 이런 것도 좋지만 부모들이 맞벌이 하는 데 도움을 주게 탄력근무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력단절도 좀 줄어들 것 같고, 맞벌이 부담이 줄어들면 아이들도 좀 더 쉽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사회자 : 예, 다등이카드 제도 확대, 그리고 회사 탄력근무제 이야기 해 주셨어요.

서□□ : 다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해야 할 것 같네요.

사회자 : 예, 서□□님께서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서□□ : 저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자녀 관련 지원이면 교육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아이를 잘 기르고자 하는 밀접한 부분이라 좀 장기적인 보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를 3명 이상을

---

낳길 망설이는 것이 아무래도 교육비인지라... 만약에 나라를 아이를 책임진다는 서포트라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이 보조금으로 생활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저소득층에 도움이 된대네요. 역시 예산 문제이긴 한데, 프랑스도 한때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때가 있었다는데 지금은 정책이 받쳐줘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어디서 봤어요. 이런 해외 사례들 참고해서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적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다자녀 지원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시 다자녀 지원정책 확장 관련 여론조사

서울특별시의회가 의뢰한

‘서울시 다자녀 지원정책 확장 관련 여론조사  
- 정서적·심리적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의 결과물로 위 조사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쥬리얼미터

